

原州地方書院學術調查報告書

1992

原 州 郡

原州地方書院學術調查報告書

1992

原 州 郡

發 刊 辭

書院은 朝鮮時代 私立教育機關으로서 國立教育機關인 鄉校와 아울러 敎育의 擔當이요, 그 지방의 精神的인 支柱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원은 1543년(中宗 38) 白雲洞書院이 설치된 이후 朝鮮 後期까지 전국적으로 393개나 설치되었고, 그 가운데 강원도 지방에는 1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71년 大院君의 제2차 서원정리에 의하여 전국의 賜額書院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고 이때 강원지방의 서원은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그후 지방의 儒林과 배향인물의 후손들에 의하여 제향만은 계속 시행되는 곳이 많았고, 이러한 제향을 통하여 敎育의 近代化 이후에도 精神的 傳統性을 계승하여 왔습니다.

1945년 해방이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대체로 그 지방의 儒林과 배향인물의 후손들, 그리고 官公署의 三者 합동으로 수많은 서원을 復元하였고, 江原道에도 溟州(江陵)의 五峰書院과 松潭書院, 襄陽의 東溟書院, 東海市(三陟)의 龍山書院 등 영동지방에는 4개의 서원이 복원하여 그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만한 인물의 위패를 봉안하고 祭享을 하여 傳統文化를 繼承·發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간 江原道の 首府였던 原州地方에는 단하나의 서원도 복원되지 못하여 내고향을 사랑하는 뜻있는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이에 本郡에서는 원주지역의 서원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원주지역 서원과 관련한 학술조사를 시행하여 『原州地方書院學術調查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學術調查報告書는 서원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향토사연구 차원에서조차 鄉土의 歷史와 文化遺産을 조사·정리·보존하는데도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원주지역의 書院 復元을 위한 資料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傳統文化와 鄉土史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勞苦에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1992년 12월 일

原 州 郡 守 姜 泰 淵

凡 例

- 본문은 國漢文混用을 원칙으로 하였다.
- 原州地方 書院址에 관한 書報는 책머리에 실었고, 配享人物에 관한 書報는 해당 인물 서술문 뒤에 실었다.
- 配享人物의 차례는 配享年代順에 따랐다.
- 사진과 그림은 편의를 위하여 일련번호를 달고, 별도의 목차를 달았다.
- 附錄에는 原州地方 書院에 配享된 인물의 關聯資料를 실었으며, 편집은 無順으로 하였다.
- 附錄은 자료가 세로 읽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편의를 위하여 뒷쪽부터 역순으로 편집하였다.



△ [사진 1] 七峰書院址, 나무로 둘러 싸인 곳이 書院址(所在地:原州郡 好楮面 山峴里 525-533番地, 山52番地 일대).



△ [사진 2] 七峰書院址. 뒷산에서 바라 본 원경으로 가운데 松林으로 둘러 싸인
곳이 書院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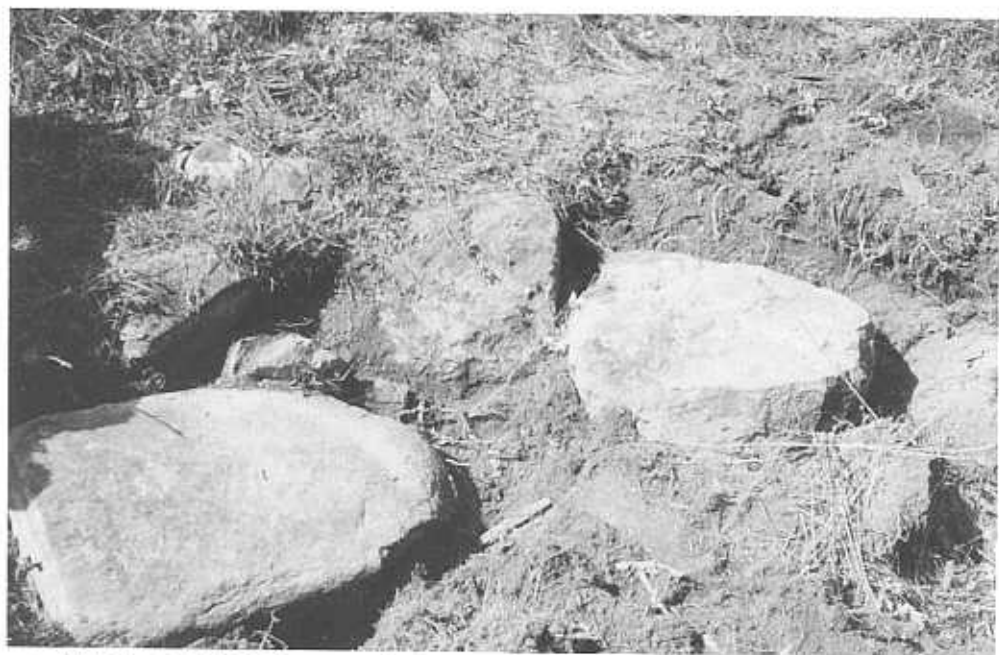
△ [사진 3] 陶川書院址, 民家 뒷쪽의 평지가 書院建物址로 추정됨 (所在地: 原州郡 地正面 安昌里 517-2番地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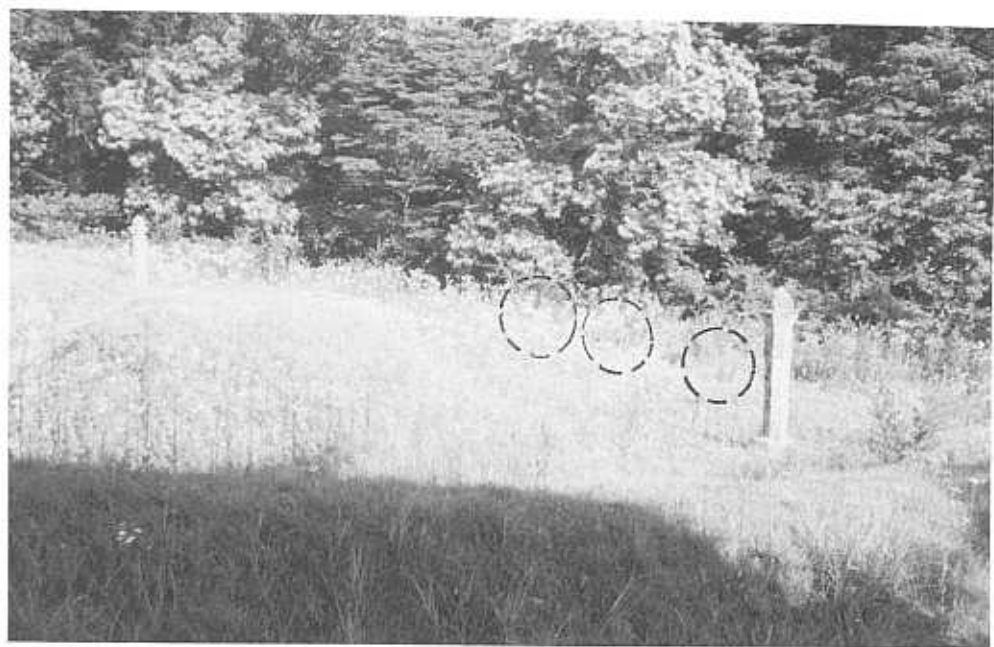
△ [사진 4] 蟾江 건너편에서 바라본 陶川書院址. 오른쪽 중간의 民家가 보이는곳
이 書院址.



△ [사진 5] 七峰書院 下馬碑(所在地:原州郡 好楮面 山峴里).



△ [사진 6] 試掘調査로 드러난 七峰書院址의 石材.



△ [사진 7] 시굴조사를 시행한 곳(표시부분).



△ [사진 8] 七峰書院址의 石材.



△ [사진 9] 七峰書院址 주변 民家에 있는 書院石材.



△ [사진 10]



△ [사진 11]



[사진 12]



△ [사진 13]

■ 七峰書院址 주변 民家에 散在해 있는 書院石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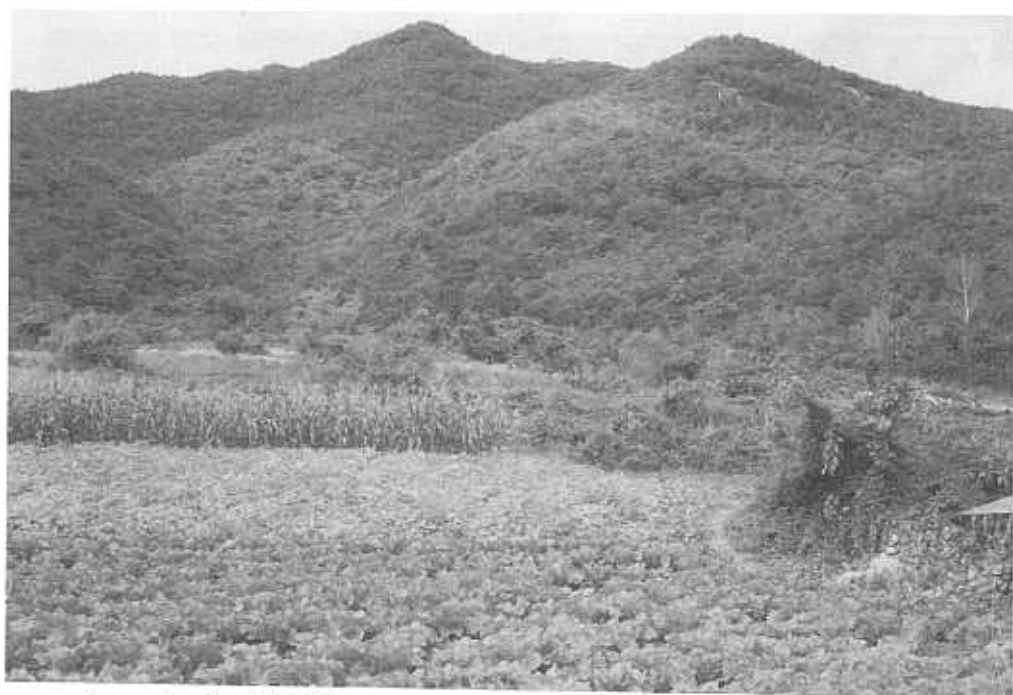


△ [사진 14]



△ [사진 15]

▣ 七峰書院址 앞 民家の 장독대 받침석으로 쓰여진 書院石材.



△ [사진 16] 陶川書院址.



△ [사진 17] 陶川書院址에서 섬강쪽으로 바라 본 전경. 사진의 탑은 興法寺址
塔이며, 가운데 보이는 제방 사이가 섬강이다.

目次

發刊辭

I. 調查概要

1. 調查 目的	19
2. 施行機關	20
3. 調查期間	20
4. 調查團 構成	20
5. 調查日誌	20

II. 總 說

1. 朝鮮時代の 書院	25
2. 江原地方의 書院	27
3. 書院의 人事組織과 建物構造	30
4. 書院의 機能	33
1) 祭享의 機能	33
2) 教育機能	37
5. 書院의 撤廢와 財産	40
1) 書院의 撤廢	40
2) 財産處理	41

Ⅲ. 原州地方의 書院

1. 七峰書院의 概要

1) 序 言	43
2) 位置와 環境	44
3) 七峰書院의 設置와 建物構成	47
4) 七峰書院의 題詠	57
5) 七峰書院의 遺物	60
6) 七峰書院의 財産	62
7) 七峰書院의 祭享日	65
8) 祭享節次	66

2. 七峰書院의 配享人物

1) 耘谷 元天錫	72
(1) 耘谷의 生涯	72
(2) 耘谷의 學問과 思想	76
(3) 耘谷의 現實認識	80
(4) 耘谷과 華海師全	89
2) 八溪君 鄭宗榮	99
(1) 緒 言	99
(2) 家 系	101
(3) 華麗한 官歷	106
(4) 稟 性	111
(5) 思 想	119
(6) 結 語	123

3) 觀瀾 元昊	128
(1) 역사의 변동과 저항적인 삶	128
(2) 集賢殿 直提學 벼슬을 버렸다	129
(3) 端宗의 流配地에 觀瀾亭을 짓다	129
(4) 節義를 끝까지 지킨 생활	130
(5) 月計圖를 만든 애민사상	135
(6) 元生夢遊錄의 주인공이 되다	136
(7) 충절을 읊은 2편의 시조	138
(8) 생육신 원호의 遺狀	142
4) 久菴 韓百謙	150
(1) 머리말	150
(2) 생애	150
(3) 학문과 사상	156
(4) 東國地理誌	159
① 내용과 저술동기	159
② 後代에 미친 영향	163
(5) 맺음말	165

3. 七峰書院의 教育

1) 概 要	168
2) 龍山書堂學規(原文)	169
3) 용산서당학규(번역)	172
4) 龍山書院의 生徒	175
5) 龍山書院의 運營	179

4. 陶川書院

1) 位置와 環境	183
2) 陶川書院址 實態調査	184
3) 配享人物 觀雪 許厚	186
(1) 觀雪 許厚의 世系	186
(2) 觀雪 許厚의 生涯	187
(3) 觀雪 許厚의 思想	189

5. 맺 는 말	193
----------------	-----

附 錄

寫眞目次

- [사진 1] 七峰書院址.(原州郡 好楮面 山峴里 525-533番地, 山52番地 일대).
- [사진 2] 七峰書院址.
- [사진 3] 陶川書院址.(原州郡 地正面 安昌里 517-2番地 일대).
- [사진 4] 蟾江 건너편에서 바라본 陶川書院址.
- [사진 5] 七峰書院 下馬碑(所在地:原州郡 好楮面 山峴里).
- [사진 6] 試掘調査로 드러난 七峰書院址의 石材.
- [사진 7] 시굴조사를 시행한 곳(표시부분).
- [사진 8] 七峰書院址의 石材.
- [사진 9] 七峰書院址 주변 民家에 있는 書院石材.
- [사진 10] 七峰書院址 주변의 書院石材.
- [사진 11] 七峰書院址 주변의 書院石材.
- [사진 12] 七峰書院址 주변의 書院石材.
- [사진 13] 七峰書院址 주변의 書院石材.
- [사진 14] 七峰書院址 앞 민가의 장독대 받침석으로 쓰여진 書院石材.
- [사진 15] 七峰書院址 앞 민가의 장독대 받침석으로 쓰여진 書院石材.
- [사진 16] 陶川書院址.
- [사진 17] 陶川書院址에서 섬강쪽으로 바라 본 전경.
- [사진 18] 耘谷 元天錫의 墓(所在地:原州市 杏邱洞 山37番地).
- [사진 19] 慕耘齋(所在地:原州市 杏邱洞 山37番地)
- [사진 20] 耘谷元天錫墓碣.
- [사진 21] 元天錫墓碣文.
- [사진 22] 元天錫墓碣文 拓本(前面).
- [사진 23] 元天錫墓碣文 拓本(後面)
- [사진 24] 弁岩(雉岳山 1,200 고지)
- [사진 25] 耘谷 元天錫先生 詩碑(所在地:原州市 杏邱洞 山37番地).
- [사진 26] 耘谷詩碑文.
- [사진 27] 八溪君 鄭宗榮 影幀.
- [사진 28] 八溪君 鄭宗榮墓(所在地:橫城郡 公根面 公根里).
- [사진 29] 八溪君墓碑.
- [사진 30] 八溪君神道碑閣.
- [사진 31] 八溪君神道碑.
- [사진 32] 觀瀾 元昊墓(所在地:原州郡 板富面 瑞谷里).
- [사진 33] 觀瀾 元昊墓碑.
- [사진 34] 貞簡齋(所在地:原州郡 板富面 瑞谷里)
- [사진 35] 貞簡齋重建獻誠碑.
- [사진 36] 觀瀾亭(所在地:忠北 堤川郡 松鶴面 長谷里).
- [사진 37] 旌忠閣(所在地:原州市 開運洞).
- [사진 38] 慕賢祠(所在地:寧越郡 水周面 武陵里).
- [사진 39] 觀瀾의 遺品(鐵製 향합, 옥돌 술잔, 鐵製 촛대, 서류함).
- [사진 40] 久菴 韓百謙墓(소재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 [사진 41] 久菴 韓百謙神道碑.

그림목차

- 그림 1. 書院의 一般的 配置側面圖
- 그림 2. 筆岩書院縱斷面圖
- 그림 3. 道東書院縱斷面圖
- 그림 4. 西山書院圖
- 그림 5. 松潭書院 建物配置圖
- 그림 6. 七峰書院址實測圖
- 그림 7. 七峰書院 建物配置豫想圖
- 그림 8. 七峰書院區域建物配置豫想圖

圖名	頁次
圖1 書院의 一般的 配置側面圖	1
圖2 筆岩書院縱斷面圖	2
圖3 道東書院縱斷面圖	3
圖4 西山書院圖	4
圖5 松潭書院 建物配置圖	5
圖6 七峰書院址實測圖	6
圖7 七峰書院 建物配置豫想圖	7
圖8 七峰書院區域建物配置豫想圖	8

I. 調 査 概 要

1. 調 査 目 的

우리나라의 書院은 1543년(中宗 38) 白雲洞書院이 설치된 이후 朝鮮後期까지 전국적으로 약 393개가 설치되었고, 그 가운데 강원도 지방에는 15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871년 大院君의 제2차 서원정리 때에 전국의 賜額書院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면서 강원지방의 서원은 하나도 잔존하지 못하고 모두 철폐되었다.

서원은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先賢을 奉祀하는 곳이었다. 특히 서원에 奉安되는 先賢은 대부분 그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원은 그 지방에 있어서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것이다. 서원이 비록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대부분이 철폐되고, 또 점차 서원의 교육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향토의 얼을 기림으로써 정신문화의 발전과 교육적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또 유적을 복원하여 후세에 전한다는 측면에서 서원에 대한 연구와 복원은 가치있는 사업이다.

1945년 해방이후에는 전국 곳곳에 서원이 복원되었고 江原道에도 溟州(江陵)의 五峰書院과 松潭書院, 襄陽의 東溟書院, 東海市(三陟)의 龍山書院 등 영동지방에는 4개의 서원이 복원되었으나 500년간 江原道の 首府였던 原州地方에서는 오히려 단하나의 서원도 복원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원주지역의 서원에 대한 본 학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주지역 서원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전통문화와 향토사를 연구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施行機關

發注機關：原州郡

受注機關：社團法人 江原郷土史研究會

3. 調査期間

1992년 4월 22일부터 1992년 12월 20일까지

1992년 4월 22일부터 1992년 12월 20일까지

4. 調査團 構成

○ 責任研究員：元永煥(江原郷土史研究會 會長：江原大 史學科 教授)

○ 研 究 員：崔承洵(前江原大學校 教授)

金永琪(江原日報 論說委員)

全石萬(江原郷土史研究會 研究員, 江原大學校 講師)

孫承喆(日本 東京大 客員研究員)

曹昇鎬(江原郷土史研究會 研究員, 江原大學校 講師)

鄭然雨(江原道郷土博物館 學藝研究士)

柳在春(江原郷土史研究會 研究員, 江原大學校 講師)

○ 研究補助員：崔鍾一(江原大學校 史學科 大學院生)

金世民(江原大學校 史學科 大學院生)

朴晟喜(江原大學校 史學科 大學院生)

5. 調査日誌

○ 1992년 4월 22일 ~ 10월 16일 : 史書 및 各種 文獻調査

○ 1992년 5월 20일

◇ 조사대상

칠봉서원지(원주군 호저면 산현리), 취병서원지(원주군 문막면 문막리)

◇ 조사내용

① 칠봉서원지는 현재 본래의 모습은 전연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서원 지 및 주변에 서원 건축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石材 및 기와가 흩어져 있다. 현재 본래의 서원지에는 3기의 묘가 있음.

② 서원지에는 약 300여년 된 느티나무 거목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원주 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산현국민학교 교정에는 칠봉서원 앞에 세워졌었던 것으로 보이는 下馬碑가 있음.

③ 섬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 취병서원지에는 경주 김씨 집안의 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장하였다고 하며, 서원지라고 하는 곳에는 현재 산재한 기와 조각외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는 실정.

○ 1992년 5월 27일

◇ 조사대상 : 칠봉서원지, 하마비

◇ 조사내용

서원의 본 건물은 현재의 묘가 있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하마비는 본래 현재의 칠봉서원지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서원지 앞의 논두렁에 있던 것을 현재 산현국민학교 교정으로 옮겼다고 함. 앞면에 “下馬碑”라고 새겨진 것 외에 특별한 刻字는 보이지 않으며 약간 마모된 상태.

○ 1992년 6월 11일

◇ 조사대상

淸州 韓氏 世居地(원주군 부론면 노림리), 韓百謙 墓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 조사내용

청주 한씨 족보 및 기타 家傳 文書, 口傳 이야기. 묘소 및 신도비 사진 촬영, 위치 확인.

○ 1992년 6월 15일

◇ 조사대상 : 八溪君 鄭宗榮 墓, 祠堂, 神道碑(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 조사내용 : 위치 확인 및 宗家傳承 文書 有無, 사진 촬영

○ 1992년 6월 20일

◇ 조사대상 : 칠봉서원지

◇ 조사내용 : 서원지 주변 지표조사, 사진촬영

○ 1992년 6월 21일

리서부
부서

◇조사대상 : 칠봉서원지

◇조사내용

간이 시굴조사. 서원의 본건물이 위치하였던 현재의 묘소 주변에는 서원건축 石材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돌이 많이 널려 있으며, 지하에도 다량 묻혀 있는 상태이다. 경사면에 있는 석재의 주변을 시굴하여 본 결과 묘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원건축 석재를 경사지에 쌓기도 하고, 또 본래 계단이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음.

○ 1992년 6월 27일

◇조사대상 : 칠봉서원지

◇조사내용

①지표조사, 간이 시굴조사. 탐침봉 조사에 의하면 묘소가 있는 곳은 지하 30~50cm 사이에 석재가 감지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본 서원지는 지하 30~50cm 아래인 것으로 추정됨.

②묘소 경사지 아래의 평탄면 밑은 서원 존재 당시부터 계단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계단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축대가 쌓여 있고, 많은 석재가 흩어져 있음.

③본 서원지 아래의 고목 밑은 현재 田作地인데 이곳에는 서원 부속건물이 있던 곳이라 하며 근자까지도 건물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헐려져 이곳 주민이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였다고 함.

④서원지 주변의 민가에는 서원건축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石材가 많이 널려 있고, 대부분의 민가에서 집안의 주춧돌이나 뿔뿔, 혹은 뿔마루 支柱石・축대석・장독대 밑돌 등으로 사용된 상태이며, 어떤 것은 당시 기둥을 놓았던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흔적으로 보아 기둥의 지름은 30~40cm 정도였던 것으로 보임.

⑤주민이 이곳에서 발견한 기와 조각에 연대가 「만력 45년」이라고 새겨진 것이 있었다고 하는 바, 만력 45년은 1617년(광해군 9)인데 『輿地圖書』에 의하면 칠봉서원의 건립연대는 1612년(광해 4:만력 40)이며, 개건 연대는 1673년(현종 14년)이므로 연대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와는 칠봉서원 창건 이후 부속건물을 지을 때 사용했던 기와이거나 아니면 창건과 개건 중간에 다른 改修工事が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1992년 7월 1일

◇조사대상 : 도천서원지 추정지역(문막면 건동리)

◇조사내용

口傳에 도천서원이 건동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에 따라 이곳을 조사하였으나 건동산 기슭은 서원건축의 방향이 맞지 않고, 또 유물,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1992년 7월 3일

◇조사대상 : 도천서원지 추정지역(원주군 호저면 무장리)

◇조사내용

『朝鮮寰輿勝覽』에 도천서원지로 기록되어 있는 무장리 주변을 조사하였으나 서원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음.

○ 1992년 7월 6일

◇조사대상 : 도천서원지 추정지역(원주군 지정면 안창리)

◇조사내용

① 흥법사지에 도천서원을 건립하였다는 吳慶錫의 『三韓金石錄』의 기록에 따라 안창리의 寺址를 조사. 靈鳳山 아래에 있는 興法寺址는 안창리 505, 506, 506-1, 508, 517-2, 517-5, 518, 519-1번지 일대(塔이 있는 곳은 517-2번지)로 현재는 眞空大師塔碑龜趺 및 螭首와 三層石塔, 石造物, 瓦片 등이 남아 있고, 절터 전체는 밭과 民家를 이루고 있음.

② 이곳에서는 石材 및 瓦片이 다량 발견되나 그것이 흥법사의 것인지 도천서원 건축에 쓰여진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현재의 506번지 일대를 “서운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書院臺”가 訛傳되어 불리어진 것으로 보임.

○ 1992년 7월 10일

◇조사대상 : 耘谷 元天錫 墓, 觀瀾 元昊 墓.

◇조사내용 : 위치 확인 및 사진 촬영

○ 1992년 7월 20일

◇조사대상 : 칠봉서원지

•

100

2



三

II. 總 說

1. 朝鮮時代의 書院

朝鮮時代 敎育機關으로는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國營敎育機關과 지방의 儒林이나 개인이 관리, 운영하는 私設敎育機關이 있었다. 國營敎育기관은 중앙(서울)에는 최고 敎育기관인 成均館과 중등敎育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四學이 있었고, 지방에는 각 府・郡・縣마다 鄉校가 있었다. 사설敎育기관으로는 중등敎育기관에 해당되는 書院이 있었고 초등敎育기관에 해당되는 書堂이 있었다.

鄉校는 入學生의 연령을 16세로 제한한 규정이 있고, 府・郡・縣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先賢을 尊崇하고 아동을 敎育하는 제도화된 중등敎育기관이었으나, 書院은 입학생의 資格을 제한하는 곳도 있었으나 대체로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府・郡・縣마다 1개소씩 설치된 것이 아니었고 필요에 의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하여 선현을 존송하고 아동을 敎育하는 사설敎育기관이었다. 1543년 白雲洞 書院이 설치된 이후 계속 설치되어 그 수는 鄉校를 훨씬 능가하는 390여개나 되었고 祠, 祠宇, 影堂, 鄉賢祠 등을 포함하면 690여개나 되었다.

이와 같은 書院은 1871년 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額書와 田畓, 奴婢를 하사받은 중요한 賜額書院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으나, 그후 지방의 儒林이나 書院에 배향되었던 人物들의 후손들에 의하여 상당수가 다시 복원되었다. 강원지방에는 原州의 七峰書院과 陶川書院, 春川의 文岩書院, 江陵의 松潭書院 등 4개의 賜額書院을 비롯하여 비사액서원 11개 등 모두 15개의 서원이 설치되었으나, 1871년 모두 철폐되었다. 그후 강릉지방에는 五峰書院과 松潭書院, 三陟에는 龍山書院, 襄陽에는 東溟書院을 각각 복원하고 그 지방의 精神的

인 支柱로 삼고 있다.

본 報告書에서는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여년간 江原道の 首府였던 傳統의 都市, 文化의 都市인 原州地方의 教育機關일 뿐만 아니라 鄉校와 아울러 精神의 支柱였던 書院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資料의 부족, 現地의 여러가지 문제점(서원지에 분묘가 있고, 주택이 있어 발굴조사가 불가능)이 많아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우나 筆者가 몇년전에 江原道 일대의 書院을 조사하였던 것을 기초로 하여 살펴 보겠다.

朝鮮時代 書院이란 記錄은 이미 世宗 卽位年(1418) 부터 있었다. 世宗大王은 즉위년에 書院을 설립하고 生徒들을 가르치는 儒生이 있으면 보고하고 포상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世宗 때 咸宗縣의 生員 姜友諒은 書院을 私設하고 生徒들을 교육하여 平安道觀察使가 그를 근방에 있는 州縣學의 訓導로 임명하여 포상할 것을 國王에게 주청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세종 때부터 書院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世宗 때의 서원이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朝鮮時代 書院은 中宗 37년(1542)에 周世鵬이 安珦의 舊基에 安珦을 配享하는 祠宇를 건립하고, 이듬해인 中宗 38년(1543) 私學機關인 白雲洞書院을 세운 것이 그 효시가 되는 것이다. 당시 豐基郡守로 있던 周世鵬은 쇠퇴한 學風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師表가 될만한 先賢들을 존송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高麗時代의 儒學者로서 元나라에서 최초로 朱子學을 전래한 安珦을 奉祀하고 다음해인 中宗 38년(1543)에는 祠宇의 左・右에 學堂을 건립하여 白雲洞書院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550년(明宗 5)에는 豐基郡守로 부임한 退溪 李滉이 興學을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奴婢와 田結, 그리고 額書를 임금으로부터 下賜받아 賜額書院으로 하였다. 따라서 白雲洞書院은 國家의 지원을 받아 선현을 존송하고 學風을 진흥시키며 학문을 강론하고, 學童을 교육하는 私設教育機關이 되었다. 이후 각 지방에서는 國家로 부터 額書・書籍・奴婢・田結 등을 下賜받아 운영하는 賜額書院이 建立되었고, 또는 國家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儒林이나 門中에 의해서 設立・運營되는 非賜額書院이 건립되었다.

朝鮮時代 書院의 설립은 먼저 祠廟를 건립하여 先賢이나 先師를 봉안하고 奉祀

하다가 學堂을 건립하여 生徒를 교육하고 齋를 건립하여 宿食케 하는 것이 있고, 먼저 書堂을 건립하여 교육하다가 나중에 祠宇를 건립하여 先賢・先師를 봉안하고 祭享하는 경우가 있으며, 祠廟와 學堂을 동시에 짓고 先賢・先師를 봉안함과 동시에 敎育을 한 書院도 있다.

2. 江原地方의 書院

江原道 地方에는 1556년(明宗 11) 江原道 溟州郡 城山面 邱山里에 최초로 五峰書院을 설립하였다.

五峰書院이 건립된 이후 原州・春川・江陵 등 강원도 각 지방에도 祠堂과 學堂을 건립하여 先賢을 봉안하고 儒生의 講論과 學童의 敎育을 담당한 書院과 祠宇만을 건립하여 先賢・先師・烈士・義士 등을 모시고 祭享만 올리는 鄉祠들이 건립되었다. 1924년에 발행한 『典故大方』 書院鄉祠錄條에 의하면, 江陵에 栗谷 李珣을 모신 松潭書院, 孔子・朱子・宋時烈을 祠廟에 모시고 別祠에 七峰 咸軒을 모신 五峰書院, 鄭經世를 모신 退谷書院, 南九萬을 모신 申石書院, 南九萬을 모신 鄉賢祠, 金昌翁을 모신 湖海亭影堂, 朱子를 모신 楡川影堂, 崔致雲・崔應賢・崔洙・朴公達・朴遂良・崔壽城・李成茂・金潤身・朴億秋・金說・金譚・崔雲遇를 모신 鄉祠宇 등의 8個所.

原州에는 元天錫・元昊・鄭宗榮・韓百謙을 모신 七峰書院, 許厚를 모신 陶川書院, 元忠甲・金梯甲・元豪를 모신 忠烈祠, 丁時翰을 모신 廣岩祠宇, 益安大君 芳毅를 모신 影堂 등 5個所, 春川에는 金澍・李滉・李廷馨・趙綱을 모신 文岩書院, 申崇謙・申欽・金敬直을 모신 道浦書院, 諸葛亮・金時習・金壽增・金昌翁을 모신 春睡影堂의 3個所, 鐵原에는 金應河를 모신 褒忠祠의 1個所, 寧越에는 朴彭年・成三問・李塏・柳誠源・河緯池・俞應孚・金時習・南孝溫・嚴興道・金城大君 璿・和義君 璵을 모신 彰節祠와 寧越府의 殉節人을 모신 愍忠祠 등 2個所.

襄陽에는 趙仁璧을 모신 東溟書院의 1個所, 三陟에는 金孝元을 모신 景行書院의 1個所, 平海에는 黃應清・黃汝一을 모신 明溪書院, 鄭潭을 모신 鄉祠宇, 金譚・張孝宇・張蘊을 모신 明阜里社의 3個所, 通川에는 鄭述을 모신 景德祠宇, 崔潤德을 모신 尙烈祠宇의 2個所, 平昌에는 郭世翼을 모신 遯溪祠宇의 1個所, 高城에는 趙持謙을 모신 孤山書院, 金時習을 모신 龜岩書院, 南師古・朱景顔을 모신 鄉祠宇, 尹時衡을 모신 蒙良精舍, 田九畹을 모신 龜城精舍, 宋時烈을 모신 草坪影堂 등의 7個所, 金化에는 洪命耆를 모신 忠烈祠, 元豪를 모신 忠壯祠 등 2個所, 平康에는 吳允謙・李喜朝를 모신 山仰齋影堂의 1個所, 伊川에는 朴泰輔를 모신 花山書院의 1個所 등 모두 39個所이다. 이중 書院의 名稱으로 되어 있는것이 14개이며 25개는 祠・祠宇・影堂・精舍 등으로 되어 있다.

14개 書院중에 行政區域의 變경으로 平海의 明溪書院, 蔚珍의 孤山書院과 龜岩書院의 3개 書院은 현재 慶尙北道의 소속으로 되었으며, 伊川의 花山書院은 休戰線 이북에 위치하여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한편 溟州의 申石書院과 退谷書院은 『典故大方』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設立年代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臨瀛誌』에는 申石書院이 藥泉祠로 나와 있고 그 設立年代는 肅宗 16년(1690)으로 되어 있으며, 退谷書院은 愚伏祠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 지방에는 五峰書院・松潭書院・七峰書院・陶川書院・文岩書院・道浦書院・東溟書院・景行書院의 8개 서원과 史書에는 記錄이 없으나 書院誌가 있어 그 설립연대나 운영상황, 그리고 생도들의 명단까지 알 수 있는 龍山書院을 합쳐 9개의 書院이 있었다. 이상의 9개 書院이외에 儒林들과 후손들이 祭享을 받드는 溟州의 華東書院, 平昌의 逢山書院, 洪川의 魯東書院, 寧越의 彰節書院이 있으나 史書에 記錄이 없을 뿐만 아니라 書院誌나 기타 記錄이라도 朝鮮時代 書院으로서 機能을 다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史料가 없으므로 진정한 서원으로 볼 수가 없다.

江原地方 書院의 設立年代, 所在地・配享人物・賜額年度 등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江原道 書院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書院은 五峰書院으로, 우리나라 書院의 嚆矢인 白雲洞書院 보다 14년 후인 1556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일찍 設立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각 지방에 書院이 설립되었는데 설립된 시기를 王代別로 보면

〈표 1〉 江原地方의 書院

書院名	設立年代	所 在 地	配 享 人 物	賜額年度
五峰書院	1556(明宗11)	溟州郡 城山面 五峰里	孔子·朱子·宋時烈· 成軒	
松潭書院	1624(仁祖 2)	溟州郡 江東面 彦別里	李珥	1660
七峰書院	1612(光海君4)	原州郡 好楮面 山峴里	元天錫·元昊·鄭宗榮· 韓百謙	1673
陶川書院	1693(肅宗 19)	原州郡 地正面 安昌里	許厚	1693
文岩書院	1610(光海君2)	春川郡 新北面 龍山里	金澍·李滉·趙綱· 李廷馨	1648
道浦書院	1650(孝宗 1)	春川郡 西面 新梅里	申崇謙·申欽·金敬直	
東溟書院	1628(仁祖 6)	襄陽面 襄陽邑 造山里	趙仁璧	
景行書院	1639(仁祖17)	東海市 松亭洞	金孝元·許穆	
龍山書院	1705(肅宗31)	東海市 灑雲洞	李世弼	

※ 典故大方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明宗代에 1, 光海君代에 2, 仁祖代에 3, 孝宗代 1, 肅宗代 2개로 되어 있다.

朝鮮時代 書院設立에 관한 시기를 크게 3期로 구분하여 제1기는 창설기로서 中宗代에서 明宗代까지, 제2기는 발전기로서 宣祖代에서 肅宗代까지, 제3기는 정리기로 景宗代에서 高宗代로 본다면 江原道の 書院은 창설기에 1個所, 발전기에 8個所로서 거의가 발전기에 설립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보면

溟州郡에 2, 原州郡에 2, 春川郡에 2, 襄陽郡에 1, 東海市(三陟)에 2個所로 되어 있고, 賜額書院은 溟州의 松潭書院, 原州의 七峰書院과 陶川書院, 春川의 文岩書院 등 4개 였다.

이상에서 江原道 書院의 狀況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것을 전국적인 書院狀況과 비교하여 보면 강원도의 서원은 全國書院數의 약 3.6% 밖에 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祠·影堂·精舍·壇 등이 25개로 이것은 약 8.3%를 차지하고 書院

과 이들을 합하면 39개인데, 이것은 전국 書院・祠數 695개의 약 5.6%를 차지한다. 『典故大方』에 의하면 全國의 書院數는 다음의 <표 2> 와 같다.

<표 2> 全國의 書院 狀況

區 道 分 別	書院數	道別比率	祠數	道別比率	書院・祠數	道別比率	備 考
京 畿 道	41	10.5%	22	7.3%	63	9.1%	
忠 清 道	57	14.5%	37	12.2%	94	13.5%	
全 羅 道	68	17.3%	77	25.4%	145	20.9%	
慶 尙 道	164	41.8%	88	29.0%	252	36.2%	
江 原 道	14	3.6%	25	8.3%	39	5.6%	
黃 海 道	20	5.1%	11	3.6%	31	4.5%	
咸 鏡 道	12	3.1%	17	5.6%	29	4.2%	
平 安 道	16	4.1%	26	8.6%	42	6.0%	
合 計	392	100 %	303	100 %	695	100 %	

※ 典故大方에 依하여 작성하였음.

3. 書院의 人事組織과 建物構造

書院의 任員은 書院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院長・院貳長・講長・訓長・齋長・都有司・副有司・執綱・直月・直日・掌議・色掌 등을 두었다. 院長은 德望이 높은 年長者로 院中에서 儒林이 選定하여 院務를 총괄하였고, 院貳長은 副院長으로서 院長을 補佐하여 院長 有故時에는 그 職을 대리하였다. 講長은 經學과 禮節에 대한 講問을 담당하고, 訓長은 生徒들의 學問과 生活에 대하여 訓導하였다. 都有司는 院中の 크고 작은 일들을 총괄하고, 副有司는 都有司를 보좌하며, 齋長은 齋内の 일체의 일을 총괄하였다. 執綱은 院中の 士氣 장려를 맡았으

며, 直月은 儒會時에 사무집행을 맡았고, 直日은 直月을 보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掌議는 院中 大小事에 대한 評議를 맡았고, 色掌은 院中の 제반사무를 담당하였다.

그 人員은 院長・院貳長은 각기 1人이고, 그 외는 大體로 2人이었으며, 그 임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년이었다.

書院의 構成은 書院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체로 같은 것이다. 우선 建物은 先賢先師를 봉사하는 祠廟가 있고 生徒들이 공부하는 講堂이 있으며, 그 前面에는 生徒들이 起居・宿食하는 東・西兩齋, 書庫가 있는 것이 기본이었다.

書院의 일반적인 建物 構成과 그 機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祠 堂

先賢의 位牌를 모시고 春秋로 祭享儀式을 行하는 建物이다. 書院에 따라 影幀도 함께 奉安하기도 한다. 이는 院生들이 흠모하는 先賢들의 모습을 직접 拜謁할 수 있어 尊賢崇拜의 마음이 더욱 고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配享人은 보통 1人을 主享으로 하여 시작하나 후에 다시 尊崇하는 人物이 생기면 추가로 配享한다.

전반적으로 配享人의 數는 書院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5人 정도였다. 位牌는 보통 15×20×50Cm 크기의 상자에 넣어 壁側에 배열하고 그 앞에는 祭需陳設을 위한 보통 110×80×75Cm 크기의 탁자가 놓여진다.

祠堂의 명칭은 「~祠」, 「~書院」, 「~廟」 등의 어미를 붙여 호칭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祠」로 불려지고 있다.

(2) 講 堂

講學의 中心建物이다. 書院內에서 제일 규모가 크며 기능적으로 넓은 대청, 그리고 운동방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鄉校의 明倫堂에 해당하는 건물이며, 건물 중앙의 처마 밑에 「~堂」, 「~書院」이란 명칭으로 懸板이 걸려 있다.

(3) 齋

院生들이 寄宿하는 곳으로 보통 講堂 前面에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어 講堂과 함께 敎育空間의 核心을 이룬다. 講堂의 坐向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講堂을 向하여 오른쪽의 齋를 東齋라 하고 왼쪽의 건물을 西齋로 부른다. 東齋에 寄居하는 院生이 西齋의 院生보다 先任이 된다. 東・西齋 역시 各 書院마다 고유 명칭을 붙여 懸板을 건다.

(4) 書 庫

書籍의 刊行, 蒐集, 保管 및 管理 등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한국 최초의 書院인 紹修書院의 경우를 보면 書院을 세우면서 땅에서 캐어낸 銅 300餘斤으로 書籍을 구입하여 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壬辰倭亂 이후에는 많은 書院에서 冊을 刊行하였다고 하는데 徐有槩의 『鏤板考』라는 冊에 의하면 正祖 20년까지 책을 刊行한 書院이 78個所에 달하며, 종류도 167種에 이른 것으로 나와 있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힘들던 시대에 있어 藏書의 기능을 담당했던 중요한 건물이다. 藏板庫, 書庫, 經藏閣 등으로 불려진다.

(5) 祭 器 庫

祭享時에 必要한 祭需를 마련하고 器物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祭享空間 가까이 위치한다. 典祀廳 등으로도 불리운다.

(6) 內 三 門

祭享區域의 正門으로 대부분의 書院에서 건립하였다. 사당과 같은 軸線上의 前面에 위치하며 그 좌우로 담장을 설치한다.

(7) 外 三 門

書院의 正門으로 건립된다. 書院 맨 前面에 위치하며 보통 솟을삼문 내지 평삼문으로 건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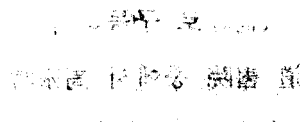
(8) 樓閣

院生들의 휴식, 餘暇를 위해 지은 건물이다. 많은 書院에서 建築된 것은 아니며, 곳에 따라서는 書院의 正門을 겸하는 곳도 있다.

(9) 校直舍

書院의 管理 및 식사준비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노비들도 居處한다. 구조는 일반 살림집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건물은 모든 書院에서 다 갖추어 진 것이 아니고 書院의 設立時期, 動機, 경제능력 등에 의해서 다르게 시설되었다. 특히 書院의 濫・疊設 시기 및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祠堂과 講堂만으로 書院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4. 書院의 機能

書院에는 先賢先師를 奉祀하는 祭享의 機能과 學童을 學習시키는 敎育의 機能이 있다.

1) 祭享의 機能

書院에서 祭享하는 儀禮와 절차는 모든 書院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書院에서는 봄과 가을에 날을 택하여 1년에 2회씩 祭享하는데 書院에 따라서 仲春(음력 2월)과 仲秋(음력 8월)의 中丁日에 行하기도 하고 季春(음력 3

월)과 季秋(음력 9월)의 上丁日에 祭享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祭享日이 國忌日과
상치되면 그 다음 丁日로 하였고 國喪이 나서 季春季秋에 因山이 끝나지 않으면
神位에 告由만 하고 享祀하지 않는다.

祭享時에는 크게 獻官과 諸執事로 나누어서 맡은 행사를 시행하는데, 獻官에는
初獻官・亞獻官・終獻官이 있으며, 諸執事에는 祝・贊者・謁者・贊引・司贊・奉
香・奉爐・奉爵・奠爵 등이 있다.

獻官은 대체로 나이가 많고 德望이 높은 그 지방 儒林 중에서 선임하는데 初獻
官은 일반적으로 그 지방의 地方官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헌관들은 각기 初獻
禮・亞獻禮・終獻禮를 봉행한다. 諸執事들은 유림과 원생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祭官으로 선임된 사람들에게는 望帖을 보내어 被任을 告하게 하며, 이들은 享
祀 3일전 부터 齋戒를 해야 한다. 祭日이 결정되고 祭官이 선임된 다음에는 祭需
를 장만하여 祭享을 한다. 祭需의 내용은 어느 서원이나 대체로 같으나 현재는
옛날의 祭需대로 구득하기가 곤란하면 유사한 것으로 대응한다.

江原道 書院 중에서 高宗時代에 철폐되었다가 다시 복설되어 祭享을 하는 書院
은 五峰書院・松潭書院・東溟書院・龍山書院 등이 있다. 이들 書院들은 대체로 1
년에 1회씩 祭享을 하고 있는데 孔子・朱子・宋時烈・咸軒을 配享한 溟州(江陵)
의 五峰書院은 陰曆 9월 上丁日에, 李珣을 配享하고 있는 溟州(江陵)의 松潭書院
은 陰曆 2월 中丁日에, 李世弼을 配享한 東海市(三陟)의 龍山書院은 陰曆 2월 中
丁日에 각각 祭享하고 있다.

書院의 祠廟에 配享되는 人物은 그 지방의 歴史的・社會的 特性에 따라서 각
書院마다 다르다. 대체로 通用人物과 特殊人物로 구분할 수 있으며, 通用人物로
는 中國의 孔子나 朱子같은 聖賢으로서 어느 지방에서나 보편적으로 배향될 수
있는 인물이며, 特殊人物은 氏族・學統・地緣・色目 등에 따라 특정한 書院에만
配享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配享된 인물은 대체로 學德이 높고 興學의 공이 큰
사람, 節義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憂國衷情으로 순국
한 사람들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江原地方의 各 書院에 배향된 인물을 보면, 溟州(江陵)의 五峰書院은 五峰 咸軒

先生이 燕京에 사신으로 갔다가 吳道子가 그린 孔子의 眞像을 구하여 돌아와서 邱山(五峰里)이라는 地名이 孔子가 태어난 丘山과 합치한다는 연유로 1556년(明宗 11)에 祠廟를 세우고 孔子의 影幀을 봉안하였고, 朱子의 影幀은 1662년(顯宗 3)에 봉안하였으며, 宋時烈은 1693년(肅宗 19)에 追配하였다. 그리고 中國에 書狀官으로 갔다가 吳道子가 그린 孔子의 眞像을 구득하여 書院을 창립한 咸軒先生의 공을 찬양하기 위하여 儒林에서 1675년(肅宗元年)에 聖廟 西牆 밖에 別祠를 창건하고 七峰 咸軒을 配享하였다.

松潭書院은 栗谷 李珥를 봉안하였는데 江陵은 栗谷의 출생지로서 그의 學統은 江陵地方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朝鮮朝를 代表하는 大學者의 한 분이였으므로 그분을 봉안하고 존송하면서 興學을 장려하려 하였던 것이다.

原州 七峰書院에 봉안된 耘谷 元天錫은 高麗末의 儒學者로서 李成桂가 朝鮮王朝을 건국하자 李崇仁・高天祥 등 이른바 杜門洞 72人和 함께 杜門洞에 은거하였다가 原州 雉岳山에 숨어서 草根木皮로 일생을 보냈다. 朝鮮王朝의 3代王인 太宗의 어린시절에 가르친 바 있어, 그가 王位에 오르자 수차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太宗이 직접 치악산까지 찾아 갔으나 만나지 않고 숨어서 살았던 高麗王朝에 충성을 바친 節義之士였으므로 그를 존송하여 祠廟에 봉안하였으며, 觀瀾 元昊는 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首陽大君이 실권을 장악하여 나이 어린 端宗을 위협하고 國事가 날로 어지러워지자 集賢殿 直提學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原州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端宗이 영월로 유배되자 영월로 따라가서 淸冷浦로 부터 30리 떨어진 上流邊에 움을 파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항상 端宗을 사모하였고 端宗이 돌아가시자 寧越郡 水周面 武陵里에 가서 토굴을 파고 기거하면서 端宗을 侍墓하다가 3년 후에 다시 고향인 原州로 돌아왔다. 이러한 충절을 존송하여 봉안하였다. 八溪君 鄭宗榮은 江原道・慶尙道・平安道 등의 觀察使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本貫은 草溪이지만 後孫들이 原州에 集盛하였고, 久菴 韓百謙은 淸州가 本貫이지만 江原道 按撫使를 지냈고 官職에서 물러난 이후 學問을 하면서 餘生을 原州에서 보냈다. 그러므로 그의 後孫들이 原州에 同族村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七峰書院에 奉安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原州에 陶川書院의 觀雪 許厚는 本貫이 陽川이나 光海君 때에 原州에 피신하여

學業을 닦았고 1627년 丁卯胡亂 때에는 義兵將 金昌一과 더불어 軍事を 論議하였으며, 仁祖死後에는 原州에 기거하면서 孝宗이 여러번 官職을 주었으나 나가지 아니한 분이므로 그를 존송하여 배향하였다.

春川 文岩書院의 籠岩 金澍는 高麗末의 守節之臣으로서 일찌기 禮儀判書를 지냈고 明나라에 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李成桂가 王位를 물려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明나라로 되돌아 갔다는 節義之士이고 또한 杜門洞 72人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退溪 李滉은 性理學의 大學者로서 많은 士林의 師表가 될 뿐만 아니라 春川이 그의 外貫이라는 연고가 있다. 知退堂 李廷馨은 本貫이 慶州이나 退溪의 學統을 이어받은 秀才로서 1568년(宣祖 1)에 別試文科에 合格하고 吏曹正郎・校理・左丞旨 등을 역임하다가 壬辰倭亂時에는 義兵을 일으켜 倭寇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후 吏曹參判・大司成・大司憲・三陟府使 등을 역임하였고 특히 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星曆・卜筮・斷數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였다. 특히 後孫들이 春川에 많이 거주하면서 그를 존송하여 봉안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龍洲 趙綱은 本貫이 漢陽이고 氏族關係를 春川에서 찾아보기 힘들으나 文岩書院에 봉안된 退溪와는 學問的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退溪에게서 직접 수학한 바는 없으나 退溪의 門人이 尹根壽이고 尹根壽를 師事한 사람이 趙綱이다. 그는 그 行蹟이 清白하여 『清白錄』에 올랐던 당대의 清白吏로서 士林의 崇仰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退溪・知退堂과 함께 文岩書院에 배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道浦書院의 壯節公 申崇謙은 高麗의 開國功臣으로서 春川에 그의 墓所가 있고, 象村 申欽은 1586년(宣祖 19) 文科에 급제하여 禮曹判書・左右議政을 거쳐서 1627년에는 領議政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當代에 學問의 泰斗로서 盛譽를 받았다. 光海君 5년(1613) 永昌大君의 獄事가 일어났을 때 宣祖의 遺敎七臣 중의 한 사람으로서 관직에서 쫓겨나서 春川에서 流配生活을 하면서 이곳 士林들에게 끼친 영향이 컸던 것이다. 憂亭 金敬直은 朝鮮中期의 學者로서 文行이 높아 李爾瞻에게 미움을 사고 申欽과는 매우 가까웠던 사람으로 『春川邑誌』 人物條에 기록된 春川과는 연고가 깊은 사람이다.

襄陽 東溟書院의 趙仁璧은 江陵都元帥를 지낼 때 이곳 士林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趙仁璧은 李成桂의 妹夫로 威化島에서 回軍할 때 李成桂를 도와 회군에 공헌한 바 있으나 李成桂의 혁명이 임박했을 때 이에 호응하지 않고 襄陽郡 襄陽邑 造山里에 은거하여 學問을 연구하고 후생들을 계도하여 社會敎化와 興學에 크게 기여하였다.

三陟 景行書院의 省庵 金孝元은 三陟府使로서 이곳 士林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東人의 거두로서 士林의 숭앙을 받았다. 眉叟 許穆은 三陟府使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學德은 이 지방 士林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한 南人은 東人에서 파생하였으므로 東人인 金孝元을 봉안한 景行書院에 南人인 許穆이 후에 追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海市(三陟) 龍山書院의 龜川 李世弼은 1703년 三陟府使로 부임하여 이 지방을 살펴보고 三陟地方은 海邊에 면하여 있고 大嶺이 가로놓여 있어서 王都에서 멀기 때문에 듣는 것이 적고 배움이 없으며 농사일만 하므로 예의를 가르치고 익힘이 없으니 제일 먼저 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강조하여 祿俸을 내어 學資金으로 하고 參奉 崔世亮을 訓長으로 정하여 교육하게 하고 學規 21條를 지어 벽에 걸고 學童들이 실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龜川先生의 在任中 威德과 治民敎導의 공적에 감동하여 門人들과 士林들이 그가 퇴임한 후 1705년에 그의 眞像을 봉안하고 享祀하게 되었다.

2) 敎育機能

書院의 敎育目標은 「法聖賢」과 「養吏」의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書院이 現世를 멀리하고 鄉村에 隱居하여 探究에만 노력했던 性理學者들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점에서 보거나 書院敎育의 주요 내용이었던 性理學 본래의 성격에서 볼 때 자신을 道德的으로 完成시키고자 하는 「法聖賢」은 書院敎育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政界進出의 關門인 科擧敎育 또한 소홀히 취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官吏養成 즉 「養吏」도 중요한 敎育목표

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書院은 倫理的 目的으로서의 道德的 敎養人의 養成과 現實的 目的으로서의 官吏養成을 그 敎育目標로 내세웠던 것이다.

敎科目에 대하여 알아보면 書院敎育의 궁극적 목적은 聖賢・君子를 養成함에 있고, 現實的인 目的은 科擧準備에 있었으므로 이들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書院의 敎育內容은 經學과 詞章이 중심이 되었다. 敎科內容으로는 小學을 비롯하여 四書와 五經, 그리고 心經, 近思錄 등 性理學 위주의 敎科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예로 각 書院에서 정한 敎科目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3> 과 같다.

<표 3>

書院의 敎科目

書 院 名	敎 科 目
龍 山 書 院	小學·四書·五經 朱子大全·近思錄·心經·家禮 等
西 岳 書 院	小學·四書·五經 家禮·諸史集·詞章
石 岡 書 院	小學·四書·五經 諸性理之書·史學·子集
仁 賢 書 院	小學·四書·五經 家禮·諸史集·詞章
知 川 書 院	小學·四書·五經 擊蒙要訣·先賢性理之書·史記·詞章
伊 山 書 院	小學·四書·五經 家禮·諸史·子集·文章
德 陽 書 院	小學·四書·五經 心經·近思錄·程朱之書
考 巖 書 院	小學·四書·五經 心經·近思錄·程朱之書

한편 書院生徒의 入學資格을 보면, 書院에 入學하는 資格은 각 서원의 실정에 따라서 달랐다. 白雲洞書院은 生員이나 進士에게 우선권을 주어 成均館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은 등록 수속을 밟게 하였고, 그 다음 司馬試(生員・進士試)에 初試 合格者를 입학시키되 不合格者라고 하더라도 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방정한 자는 有司가 儒林의 허락을 받아서 入學을 허락하였으며, 入學한 學生은 반드시 入院錄에 自筆로 서명하고 入學한 年・月・日을 記載케 하였다.

이와 같이 白雲洞書院의 입학자격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그러나, 『龍山書院誌』에 의하여 江原道 書院의 入學資格을 보면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三陟府使로 부임한 李世弼은 三陟地方은 해변에 면해있고 王都 사이에 태산준령이 가

로 놓여 들음이 적고 배움이 없으며, 농사일만 하므로 예의를 가르치고 익힘이 없으니 제일 먼저 배워야 한다고 하고 그의 녹봉을 내어 龍山書堂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白雲洞書院과 같이 진사나 생원이 있어 書院에 입학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배우도록 하였을 것이다. 즉, 龍山書堂 學規・入學規定에 門閥의 高下나 연령의 長幼를 논하지 않고 인품이 단정하고 준수한 자로서 배우고자 하는 자는 入學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또한 생도들의 생활을 보면 龍山書堂 學規 21條 중에 학생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중요한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보면 학생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① 학생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침구를 정돈한 후 세수하고 衣冠을 바르게 하고 讀書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서 정신통일을 한 후에 一字一句를 정독하여 그것의 음과 뜻이 완전히 통할 때까지 숙독한다.

② 제일 먼저 小學을 읽고 그 다음에는 大學・論語・孟子・中庸・詩經・易經・春秋의 순서로 반복하여 읽어야 하며 近思錄・心經・家禮・朱子大全 등의 책을 읽고 또한 性理諸說에 관한 책도 틈나는 대로 읽으며 史書도 널리 읽어 識見을 넓히도록 한다.

③ 글을 읽지 않을 때도 衣冠을 항상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앉을 때도 똑바로 앉으며 걸을 때는 걸음을 삼가하고 항상 九容 九思를 잊지 말고 모든 言語와 行動이 禮儀凡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식사할 때는 반드시 나이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서 질서정연하게 해야 하며 음식을 가려 먹어서는 안되고 또한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도 안된다.

⑤ 同居同學하는 情分을 더욱 돈독히 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충고하며 善道를 찾도록 하고,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애석해 해야 한다.

⑥ 독서할 때 의문이 생기면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여 의심남이 없도록 하며 書冊筆硯과 책상 등을 잘 정돈하여 두고 글씨를 쓸때나 글을 지을때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써야 한다.

⑦ 아침부터 저녁까지 經書와 史書를 읽고 箴文을 외우며 義理를 講論하고, 글씨를 쓰며 글을 짓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부지런히 해야하고 게을러서는 아니 되며 저녁까지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공부하다가 밤이 깊은 다음에 취침해야 한다.

⑧ 입학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學規를 읽고 지켜야 되며 이름만 걸어 놓고 志行을 닦지 않고 經史를 읽지 않으며 제마음대로 하는 자는 書院의 任員과 學生들이 논의하여 퇴학시킨다.

⑨ 堂中에서 文學이 뛰어난 자를 한사람 뽑아서 掌議로 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 중에서 2人을 뽑아서 色掌으로 하여 업무를 담당케 한다.

이상의 學規 중에서 龍山書堂의 생도들의 생활과 공부하는 방법을 대략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書院의 生徒들의 생활도 大同小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5. 書院의 撤廢와 財産

1) 書院의 撤廢

中宗 37년(1542)에 白雲洞書院으로 비롯된 朝鮮의 書院은 宣祖 때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50여개가 설치되었다. 이때까지는 地方의 士林들이나 國家와 地方官들도 書院의 育成・保護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書院은 先賢先師를 奉祀하고 儒生이 藏修하는 神聖한 敎育機關으로서의 구실을 充分히 다 하였고, 社會的으로도 서원에 대한 기대와 신망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고 나서는 亂中에 희생된 忠臣・義士들의 奉祀와 朋黨의 격한 대립 등으로 書院이 난립되어 肅宗 때에는 370여개의 서원이 난립하였다. 이와 같이 서원이 난립되자 서원의 폐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여 國家에서는 書院創設의

금지, 書院 유생수의 제한, 書院田의 제한, 奴婢數의 제한 등 각종 통제가 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는 관계없이 서원수는 날로 늘어났고 生徒와 노비수, 서원토지 등은 점점 증가되어 가서 書院의 설립목적인 興學敎化와는 달리 書院을 근거로 하는 儒生들이 당쟁에 가담하는 당쟁의 근원지가 되는가 하면 무위도식하는 유생들의 집합처가 되었고 院生과 奴婢의 증가로 인한 國役의 감소, 書院田의 확대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 등의 폐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英祖 때에는 300여개의 祠・院을 정리하였고, 正祖・純祖 때에는 書院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큰 成果를 보지 못하였다.

高宗 때 大院君이 政權을 잡고 강력한 改革政治를 시행하면서 全國의 書院을 철폐하였다. 大院君은 1864년(高宗 元年) 書院과 鄉祠의 存廢問題를 朝廷에서 의논하도록 하였고, 1868년(高宗 5)에는 大院君의 命에 의하여 禮曹에서 非賜額書院을 철폐하였으며, 1870년(高宗 7)에는 사액서원이라고 하더라도 朋黨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폐가 된다고 인정되는 書院은 모두 철폐하도록 하여 1871년(高宗 8)에는 690여개의 書院과 鄉祠 중에서 전국적으로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江原道 書院 중에는 溟州郡의 松潭書院, 原州郡의 陶川書院・七峰書院, 春川郡의 文岩書院 등 4개만 國家로 부터 인정을 받은 사액서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非賜額書院인데, 사액서원이나 비사액서원을 막론하고 江原道에 건립되었던 書院은 모두 철폐되었다.

2) 財産處理

書院의 財産은 일반적으로 書院田・奴婢・現物・書籍 등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書院田은 書院財産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國家에서 下賜한 賜田, 地方儒林들이 기부한 願入田, 書院을 배경으로 役力の 免除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친 免役田, 書院에서 직접 매입한 買得田, 官의 조치에 의하여 서원으로 移屬된 屬公田 등이 있었다. 이러한 書院財産은 1868년과 187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원이 철폐될 때 대체로 鄉校로 이관되었다.

江原道 書院의 財産關係는 資料未備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만 溟州(江陵)의 五峰書院과 松潭書院에 관한 기록에 의하여 그 단편적인 것이나마 알 수 있다.

溟州(江陵)의 五峰書院은 七峰 咸軒先生이 中國에 書狀官으로 갔다가 私財로 吳道子가 그린 孔子의 眞像을 購得하여 돌아와서 道伯 尹仁恕, 府使 洪春年 등과 상의하여 書院을 건립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창건 당시부터 咸軒을 비롯한 지방 유림들의 성금과 江原道와 江陵府의 支援으로 재정의 기반을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81년(肅宗 7) 國家에서 敎旨를 내리기를 “五峰書院은 朝廷에서 비록 賜額하지는 못했으나 孔子의 眞像을 봉안한 것으로 東方諸賢을 모신 다른 서원과는 다른 것이므로 書院의 規則은 賜額書院의 例에 따른다”고 하고 田 3結과 募入人 20명을 하사하였다. 이후 書院이 철폐된 1868년까지 五峰書院의 財産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江陵鄉校로 移管되었고 이때에 五峰書院이 所有하고 있던 書冊도 44종 467권이 江陵鄉校로 이관되었다. 현재 五峰書院은 田 약 7,000坪, 畓 약 1,500坪, 林野 2,951m²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松潭書院도 1624년(仁祖 2)에 江原監司 尹安性, 江陵府使 姜因, 江陵人 工曹參判 金夢虎, 地方人 李尙秘 등 30명에 의해서 起工되었고 6년의 세월이 지난 후인 1630년(仁祖 8)에 完工하였던 것으로 보아 地方官과 地方의 儒林에 의하여 초창기의 書院運營資金이 확보되었을 것이며, 1659년(孝宗 10)에는 國家로 부터 賜額을 받으면서 位土 3結과 募入人 22名을 下賜받아 賜額書院이 되었다. 따라서 1659년 이후에는 國家에서 하사한 것이 基本財産이 되어 書院을 운영하였을 것이다.

이 賜額書院인 松潭書院도 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폐지될 때 다른 書院과 같이 江陵鄉校로 모든 財産이 이관되었다. 그리고 이때 松潭書院에서 所有하고 있던 書冊도 34개 종목 148卷이 江陵鄉校로 이관되었다.

原州地方의 七峰書院이나 陶川書院에 대하여 전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다른 書院과 같이 財産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서원철폐시 모든 재산이 鄉校로 移管되었을 것이다.

Ⅲ. 原州地方의 書院

1. 七峰書院의 概要

1) 序 言

朝鮮時代 江原地方의 書院은 총 15개였고, 原州地方에는 七峰書院과 陶川書院의 2개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七峰書院이나 陶川書院에 관한 記錄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 遺址에 남아 있는 遺物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七峰書院이나 陶川書院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안김씨 가문의 3기의 분묘와 10여채의 民家가 밀집되어 있는 七峰書院址를 완전히 發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完全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그 전모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中間報告書를 쓸 수 밖에 없다.

本 報告書는 七峰書院址와 陶川書院址의 地表調査와 『輿地圖書』와 『典故大方』, 『關東誌』 등에 散在해 있는 부분적인 資料에 의하여 기초적인 것을 살펴보고 비슷한 時期에 비슷한 規模로 설치되었고, 國家로 부터 賜額된 같은 賜額書院이었던 溟州(江陵)의 松潭書院의 전모를 밝혀 七峰書院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陶川書院도 七峰書院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慶州金氏 門中에 의하면 四寒 金昌一先生을 奉安하였던 翠屏書院이 原州郡 文幕面 文幕里에 있었다고 하여 수차에 걸쳐서 本 調査團이 現地를 踏査하고 調査하였으나 翠屏亭이나 翠屏祠 등의 資料만 있을 뿐 奉祀와 教育의 機能을 다했던 書院으로 확정할 만한 확실한 資料가 없으므로 本 調査報告書에서는 제외하였으나 확실한 資料가 수집되면 추후 조사·연구할 것이다.

2) 位置와 環境

원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山川은 말할것도 없이 雉岳山과 蟾江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동국여지승람』을 보더라도 “동쪽으로는 雉岳이 서리고, 서쪽으로는 蟾江이 달린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주 치악산은 예부터 수려한 山水를 찾아 心身을 수련하는 이들과 山林에 은거하는 이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으며, 또 蟾江을 끼고 있는 주변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서원은 일반적으로 邑地域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한적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였고, 또 위치를 택하는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風水地理에 의한 擇地法으로 건립지를 택하였기 때문에 寺刹・宅地 등의 건축지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背山臨水」지형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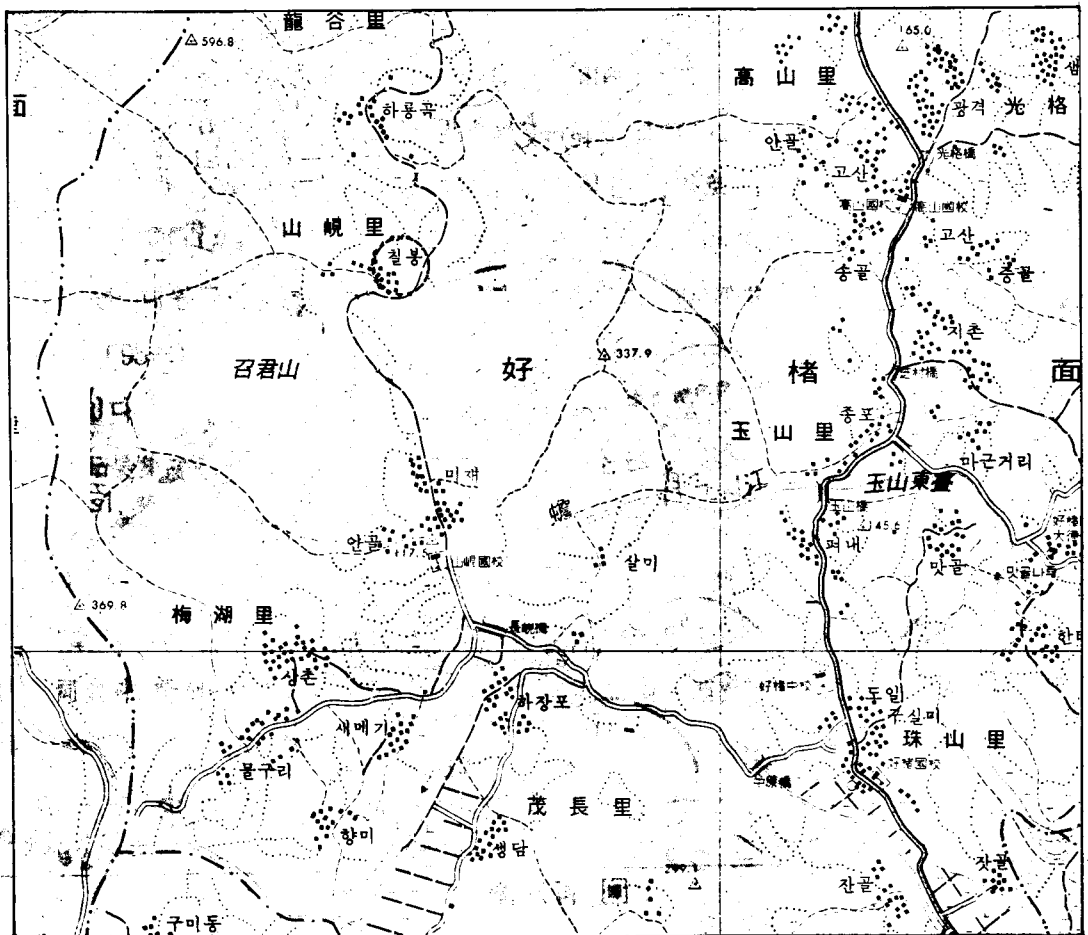
섬강은 강원도의 남서부지역을 남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강으로 횡성군 둔내면과 평창군 봉평면의 경계에 솟은 泰岐山(해발 1,261m)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이 강은 횡성군 갑천면 경계에서 동쪽으로부터 흘러오는 大官川과 합류하고 남동쪽으로 흘러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에서 서북쪽에서 흘러오는 錦溪川과 합류하며 횡성읍에서 北川이 되어 동쪽에서 오는 前川과 합류한다. 원주시에 이르러 원주천과 합류하고 서원천, 옥계천, 이천, 사제천과 합류하여 원주군 문막면에 이르면 문막평야를 이루고 원주군 지정면을 지나 남서쪽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경기・강원・충북의 3道가 접하는 지점 가까이에서 남한강에 유입한다. 섬강은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통과함으로 심한 감입곡류를 하여 협곡에는 수려한 경관을 많이 만들어 놓아 서원을 설립하기에 알맞은 곳이 많았다. 원주지역에 세워진 두개의 서원이 모두 蟾江을 끼고 창건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칠봉서원은 원주시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서원 일반적 위치인 背山臨水 지형을 취하여 뒷쪽으로는 橫城郡 書院面과 경계가 되는 해발 400m 이상의 산으로 둘러져 있으면서 前面 오른쪽으로는 해발 480m의 召君山이 자리잡고 있다. 또 정면으로는 현재의 長峴橋 부근에

서 섬강에 합류되는 한 支流를 끼고 그림같이 어우러져 있는 일곱개의 산봉우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서원의 명칭도 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또 칠봉서원은 뒷쪽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산줄기가 멈추는 곳의 丘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과 좌우로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더욱 또렷이 한눈에 볼 수 있다.

원주시로부터 횡성·홍천·춘천으로 이어지는 5번 국도에서 가현동을 거쳐 주산리, 무장리, 매호리를 거쳐 서원에 이르는 길은 서원 앞의 支流를 따라 올라가 용곡리를 거쳐 큰고개를 넘어 횡성군 서원면의 鴨谷里로 이어진다.

칠봉서원이 위치한 곳은 조선시대 말까지는 原州牧(古毛谷面)에 속하였으나 1895년 지방행정개혁 때에 횡성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83년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原州郡(당시는 原城郡)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원주군 호저면 산현리 산 52번지이다. 七峰書院의 위치를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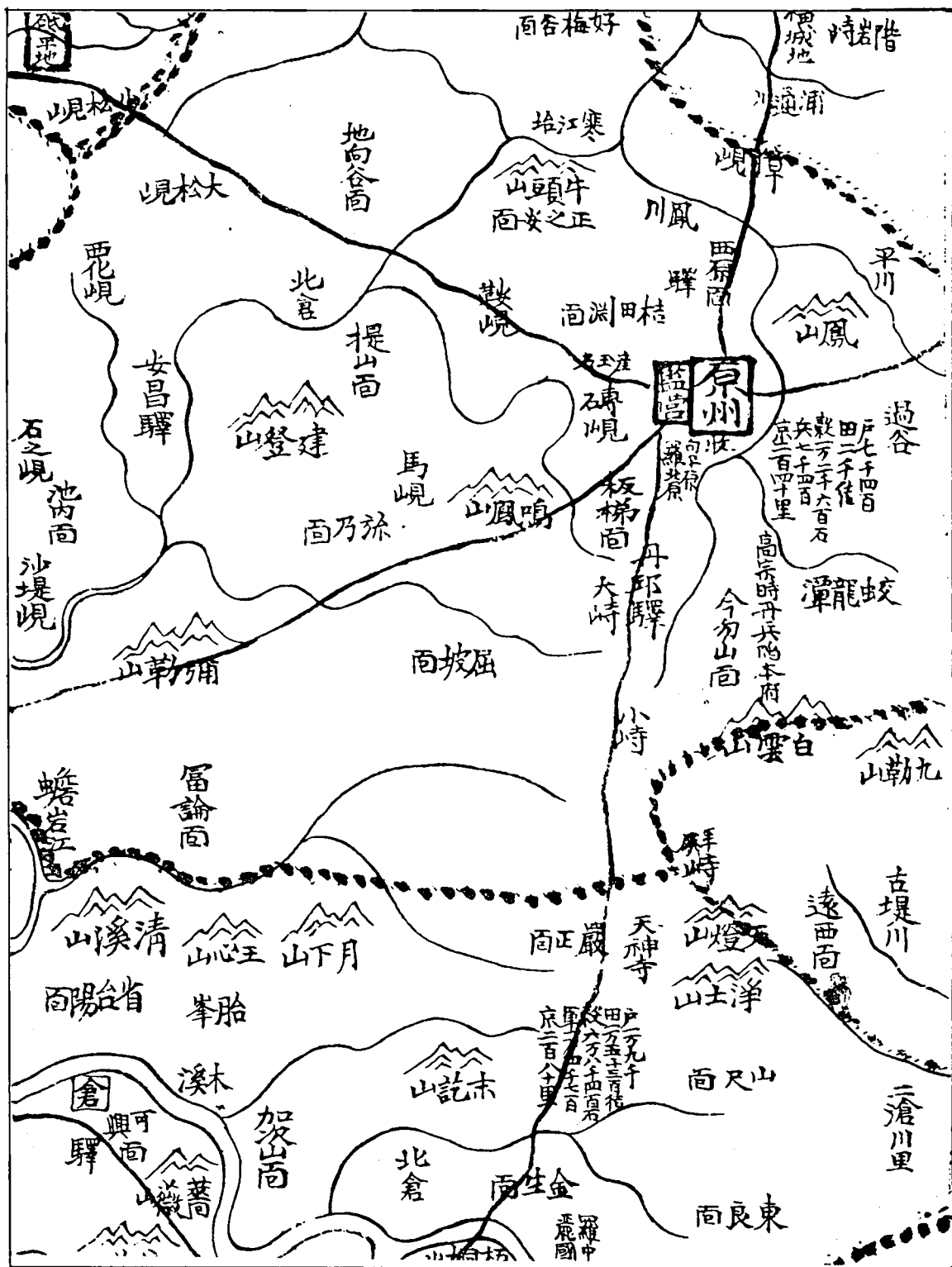


圖 青邱圖

3) 七峰書院의 設置와 建物構成

七峰書院은 1612년(光海君 4)에 原州郡 好楮面 山峴里 山 52번지 일대에 건립하였다. 건립 당시에는 書堂을 건립하고 生徒들을 교육하다가 그로부터 12년 후인 1624년(仁祖 2)에 祠廟를 건립하고 高麗末에 절의를 지킨 耘谷先生(元天錫)을 봉안하고 七峰書院이라 하였다.

七峰書院이라고 이름한 것은 書院이 위치하였던 남쪽으로 그림같이 어우러져 있는 일곱개의 山 봉우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耘谷先生을 봉안한지 14년 후인 1638년(仁祖 16)에 八溪君(鄭宗榮)과 久菴先生(韓百謙)을 봉안하였으며, 그후 觀瀾先生(元昊)도 봉안하였다. 『書院謄錄』에 의하면 江原道儒生 韓用明 등이 상소한 것에 의해서 禮曹가 임금에게 건의하여 1663년(顯宗 4) 국가로부터 額書를 하사받아 賜額書院이 되었다. 七峰書院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명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일반적으로 賜額書院은 國家로부터 田畓 3結(약 2만 평)과 奴婢 20명, 약간의 書籍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七峰書院도 일반 통례에 따라 田畓 3結과 노비 20명 그리고 약간의 서적을 국가로부터 하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전국의 393개의 서원중(祠宇・影堂을 합하면 695개) 47개만 남기고 모든 서원을 철폐할 때에 七峰書院도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은 1910년까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生六臣 觀瀾 元昊集』에 의하면 韓日合併後에 철거되었다고 하였고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의하면 수십년전까지는 부속건물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이 그것을 헐어서 재목을 이용하여 새로 집을 지었다가 滅門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완전한 발굴을 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先賢・先師를 봉안하였던 祠堂과 학생들이 공부하던 講堂과 기숙하던 東・西齋 그리고 書庫・門・門樓 건물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터에는 연안김씨 가문의 분묘 3기가 있고, 기타 書院의 부속 건물이 있던 곳으로 짐작되는 곳에는 民間人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현재 書院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 두 그루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만이 그 옛날 이곳에 書院이 있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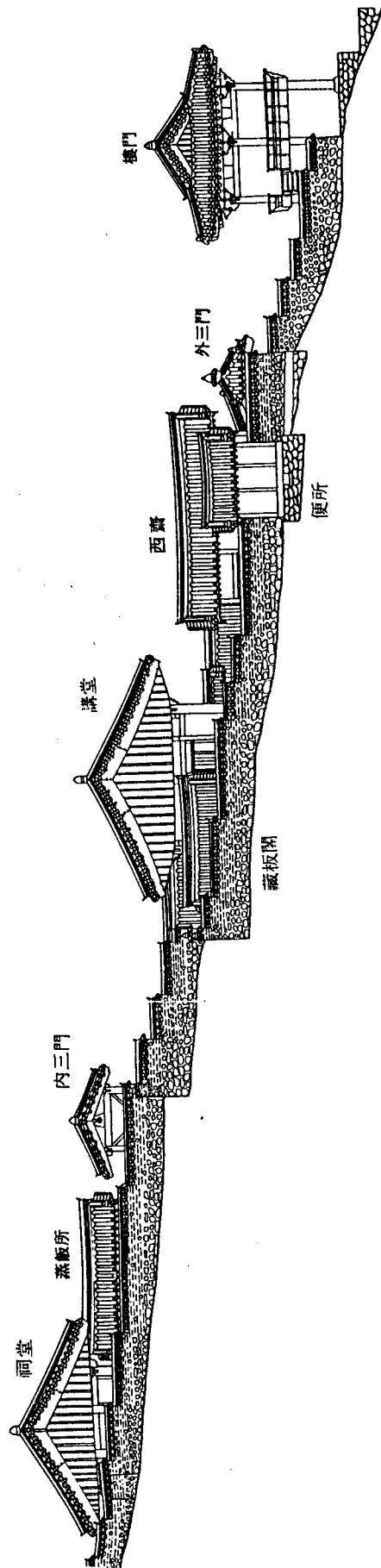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로서 七峰書院의 건물 구성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오는 祠堂 건립 사실과 澤堂 李植의 七峰書院에 관한 詩 가운데 「一宿西齋」라는 귀절에서 西齋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정확한 규모와 건물 구성은 알 수 없다. 『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에 의하면 七峰書院보다 12년 후에 건립된 溟州(江陵)의 松潭書院이 28間이었으며 七峰書院은 26間이었다는 기록과 당시 國家로 부터 인정받은 賜額書院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松潭書院과 七峰書院은 그 規模나 先賢・先師를 배향하는 사당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講堂과 기숙하는 齋, 그리고 부속 건물들의 配置도 대략 같을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칠봉서원의 규모와 건물 구성, 배치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일반적인 서원의 건물배치와 다른 서원의 예를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서원건물 구성의 일반적인 예를 전개도로 보면 대개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지형에 따른 형태로 筆岩書院과 道東書院의 縱斷面圖를 보면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또 현재 복원되어 있는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본래 西山書院의 건물배치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특히 溟州(江陵)의 松潭書院은 칠봉서원과 비슷한 시기(칠봉서원 건립후 12년 뒤)에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28間으로 칠봉서원의 26間과 유사하다. 또 두 서원이 모두 國家로 부터 인정받은 賜額書院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松潭書院과 七峰書院은 그 규모나 先賢・先師를 배향하는 사당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講堂과 기숙하는 齋, 그리고 부속 건물의 構成도 대략 같을 것으로 思料된다. 물론 현재 복원되어 있는 송담서원은 <그림 5>와 같이 祠堂과 東・西齋, 內三門, 外三門, 그리고 廟庭碑閣, 담장으로 되어 있어 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江原道鄉校書院寺刹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講堂과 樓門 등과 기타 부속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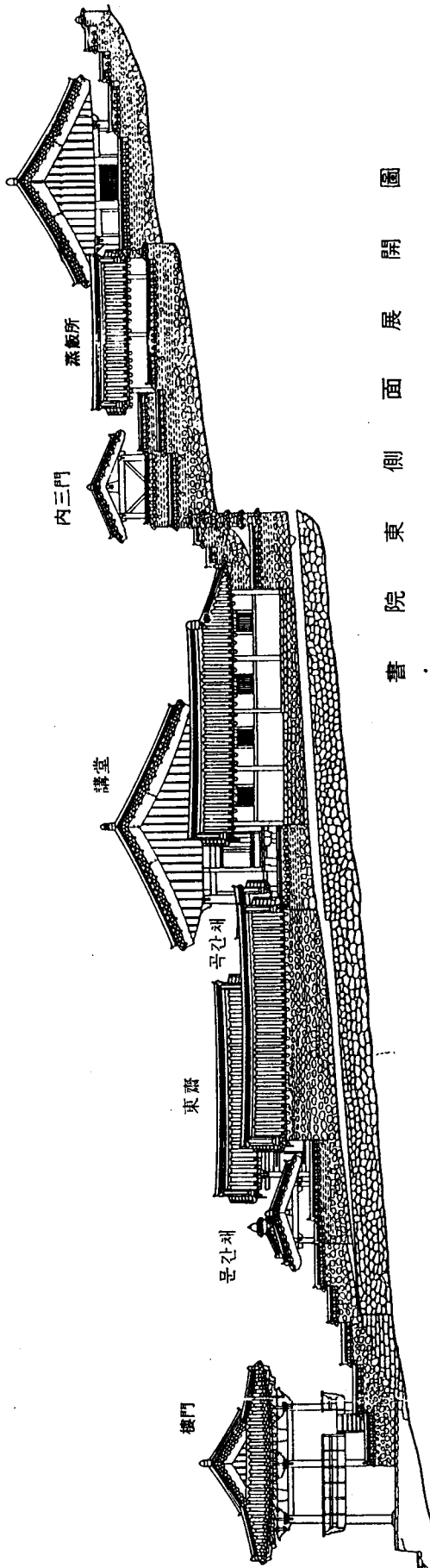
따라서 칠봉서원지를 實測한 <그림 6>과 지형관찰을 바탕으로 칠봉서원의 건물배치를 추정하여 보면 <그림 7>, <그림 8>과 같다.

■ 書院의 一般的 配置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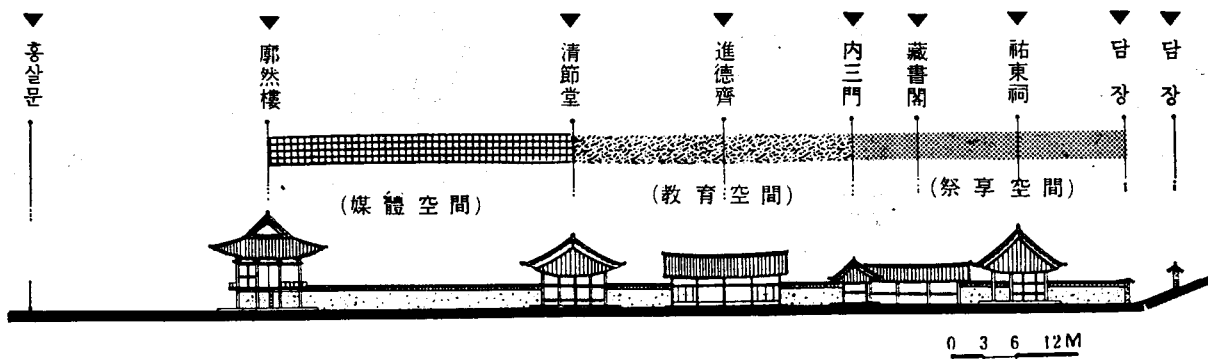
書院西側面展開圖

講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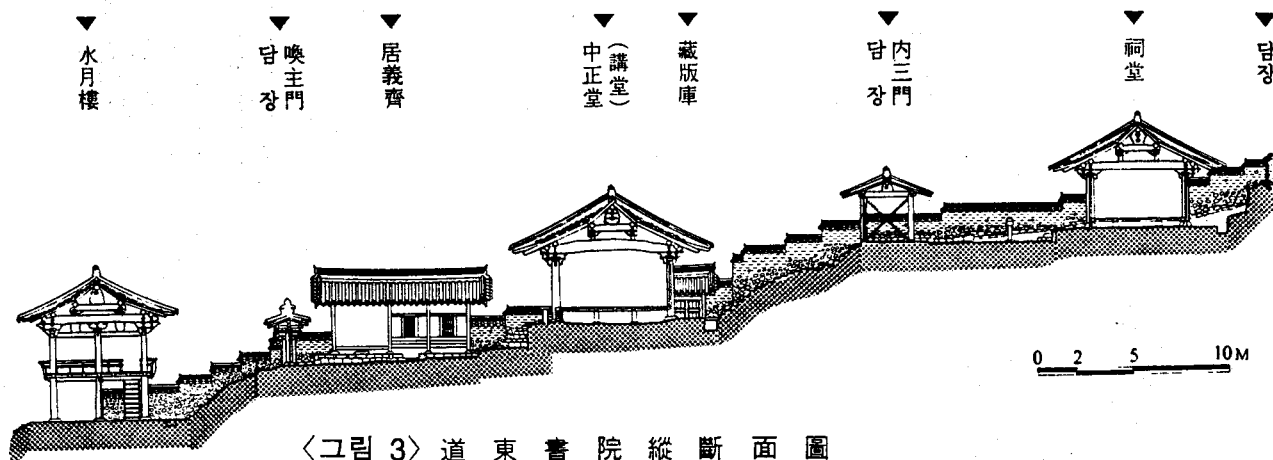
書院東側面展開圖

● 평지 배치의 예



〈그림 2〉 筆 岩 書 院 縱 斷 面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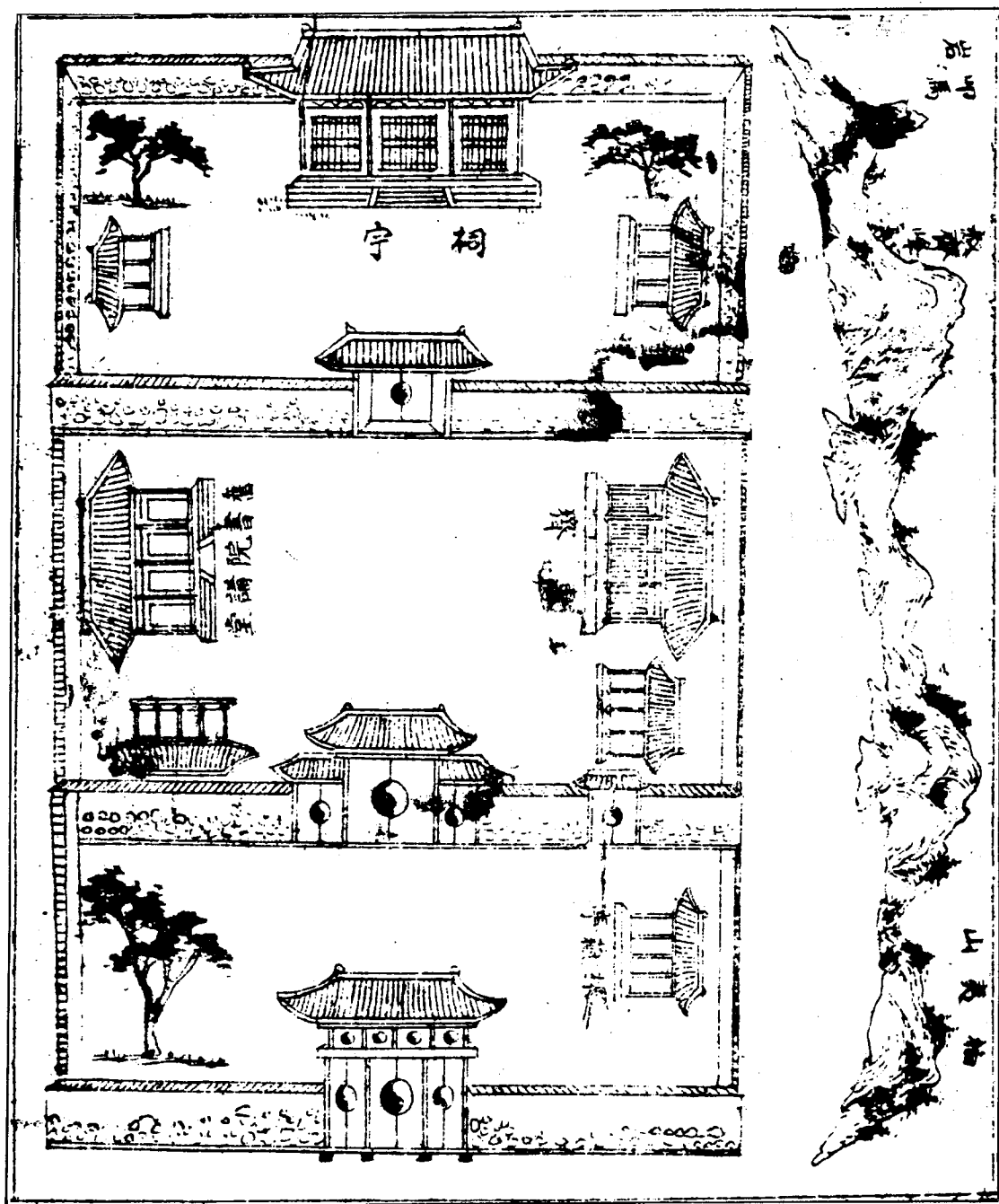
● 경사지 배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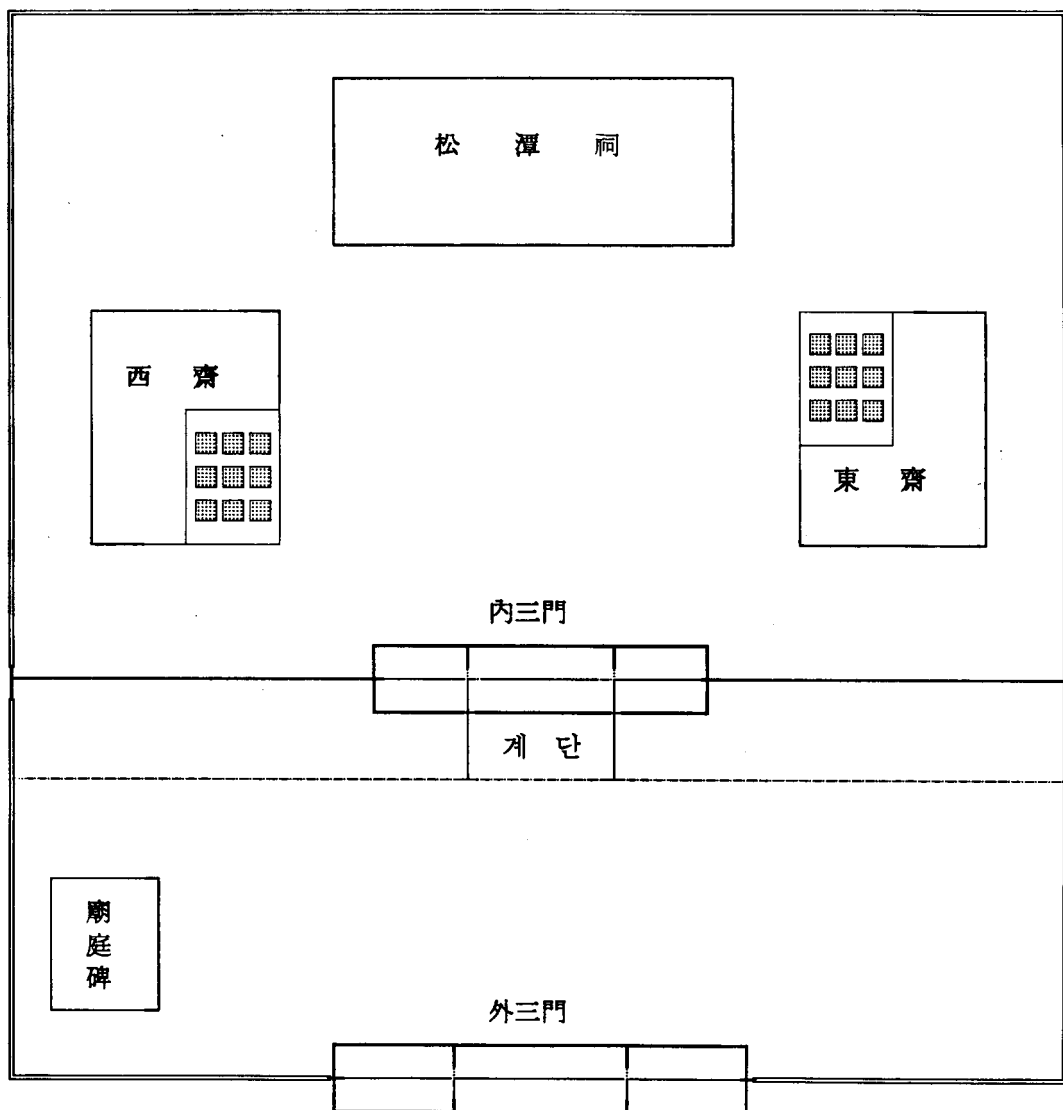


〈그림 3〉 道 東 書 院 縱 斷 面 圖

<그림 4>

■ 西山書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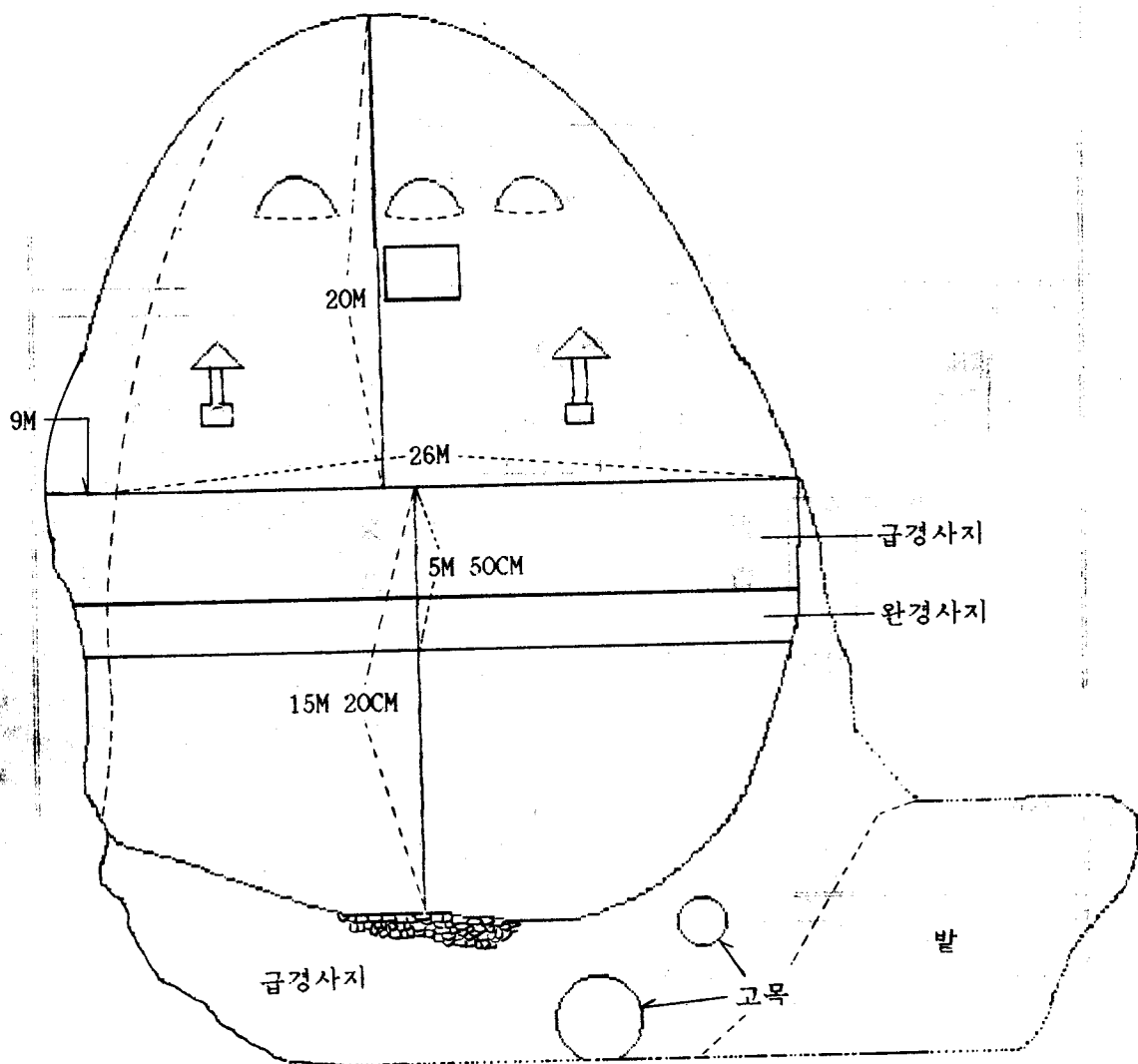
○송담서원 구역은 좌우가 약 2,750cm, 건물길이는 祠堂이 672cm×458cm, 東・西齋가 492cm×819cm, 內三門 가로 491cm, 外三門은 가로가 610cm.

○ 䉌표시는 마루

○ 東齋, 西齋는 좌우동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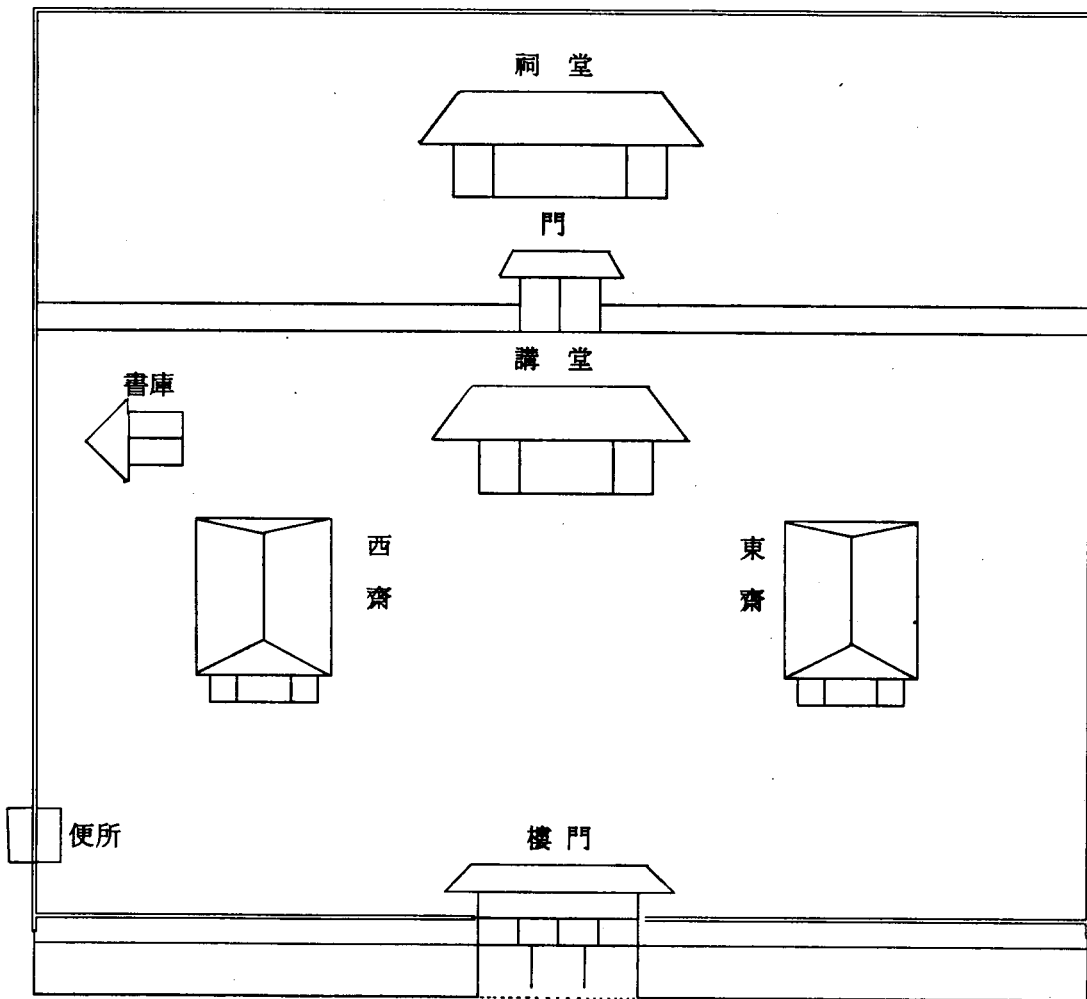
■ 七峰書院址實測圖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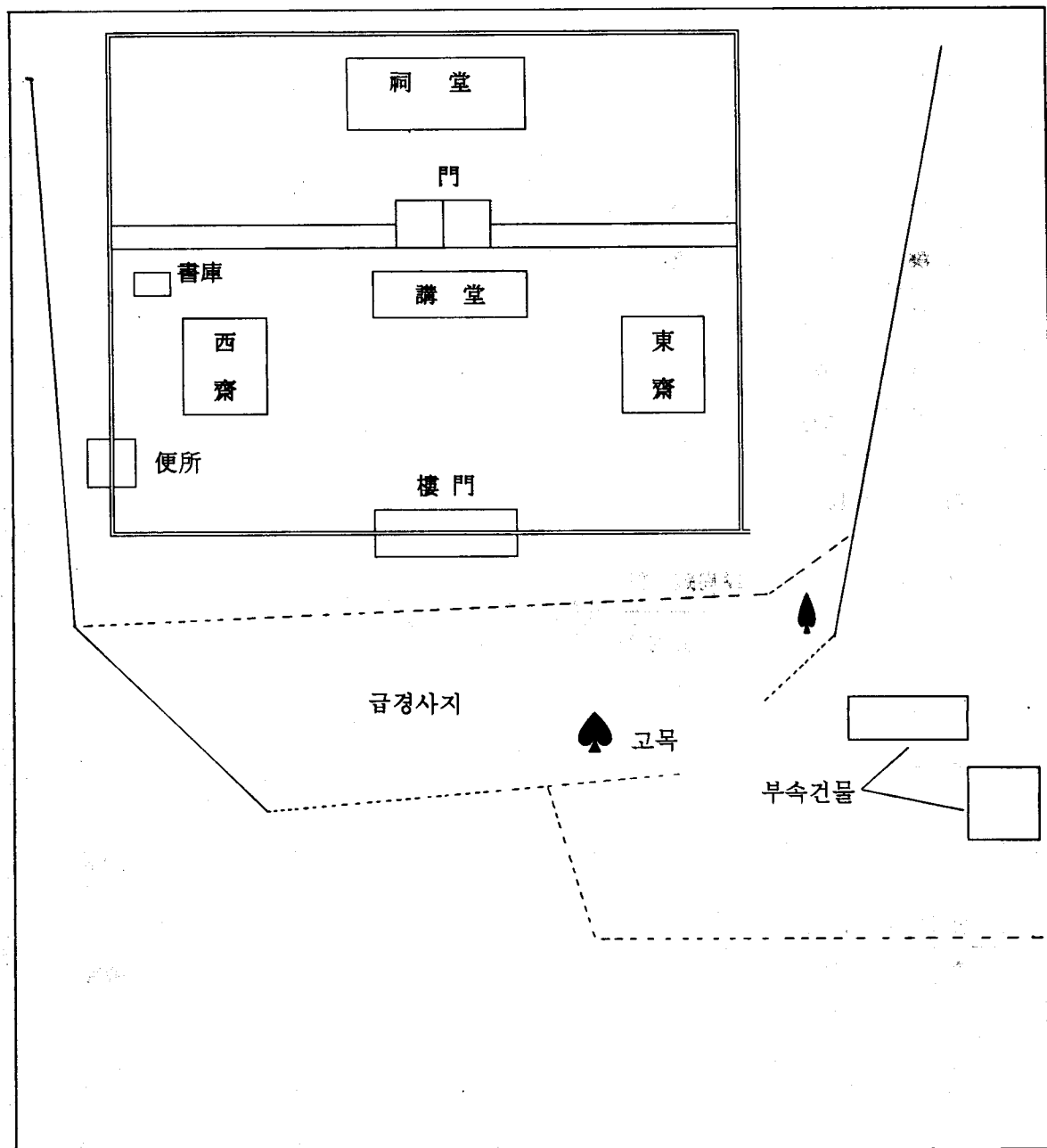
■ 七峰書院 建物 配置豫想圖

〈그림 7〉



■ 七峰書院區域建物配置豫想圖

<그림 8>



현재 전국의 수많은 書院中 大院君의 書院毀撤令에서 제외되고 또한 본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建築史 研究의 대상이 되고 있는 16개 書院의 建物構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主要 書院의 建物 構成

書院名	創建年度	所 在 地	建 物 構 成
紹 修	1543	慶尙道 榮州	祠堂, 講堂, 齋室 3棟, 藏板閣, 典祀廳, 影幀閣, 校直舍
濫 溪	1552	慶尙道 咸陽	祠堂, 講堂, 東齋, 西齋, 藏板閣, 典祀廳, 樓閣(正門), 內三門, 校直舍
西 岳	1561	慶尙道 慶州	祠堂, 講堂, 東齋, 西齋, 典祀廳, 樓閣, 內三門, 外三門, 校直舍
金 烏	1570	慶尙道 善山	祠堂, 講堂, 東齋, 西齋, 樓閣, 校直舍
玉 山	1572	慶尙道 月城	祠堂, 講堂, 東齋, 西齋, 典祀廳, 藏板閣, 經閣, 碑閣, 內三門, 外三門, 校直舍
陶 山	1574	慶尙道 安東	祠堂, 講堂, 東齋, 西齋, 藏板閣, 東祭器庫, 內三門, 西祭器庫, 東·西光明室, 隴雲精舍, 校直舍 2棟
道 東	1568 1605(移建)	慶尙道 達城	祠堂, 講堂, 東齋, 西齋, 藏板庫, 祭器庫, 內三門, 樓閣(正門), 校直舍
屏 山	1614	慶尙道 安東	祠堂, 講堂, 東齋, 西齋, 藏板閣, 典祀廳, 內三門, 樓閣, 外三門, 校直舍
武 城	1615	全羅道 井邑	祠堂, 講堂, 東齋, 典祀廳, 內三門, 樓閣(正門), 校直舍, 碑閣 4棟
遯 岩	1634	忠清道 論山	祠堂, 講堂, 藏板閣, 靜會堂, 養性堂, 外三門, 校直舍
深 谷	1650	京畿道 龍仁	祠堂, 講堂, 藏書閣, 內三門, 外三門, 校直舍
筆 岩	1590 1672(移建)	全羅道 長城	祠堂, 講堂, 東齋, 西齋, 藏板閣, 藏書閣, 典祀廳, 經藏閣, 內三門, 樓閣(正門), 校直舍
魯 岡	1672	忠清道 論山	祠堂, 講堂, 東齋, 西齋, 外三門, 校直舍
德 峰	1695	京畿道 安城	祠堂, 講堂, 東齋, 西齋, 內三門, 外三門, 碑閣
龍 淵	1691	京畿道 抱川	祠堂, 講堂, 內三門, 外三門
興 岩	1702	慶尙道 尙州	祠堂, 講堂, 東齋, 西齋, 內三門, 外三門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원의 건물 구성은 규모나 명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先賢·先師를 모시는 祠堂과 學童을 敎育하는 講堂, 學童이

기거하는 東・西齋를 주건물로 한 것이 공통이며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藏板閣, 典祀閣, 影幀閣 등 많은 부속건물들이 있다. 七峰書院도 1612년에 설립되어 朝鮮時代 書院中 가장 일찍 설치된 서원중의 하나이고 강원도에서는 가장 일찍이 국가로 부터 賜額書院으로 지정되었으며, 江原道觀察府가 있는 原州地方에 위치해 있어 江原道 書院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그 규모나 書院勢는 他道의 서원 규모에 손색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4) 七峰書院과 題詠

이 칠봉서원에는 吳翹, 尹之復, 黃敬中, 李植, 李元鎮, 鄭熙夔, 鄭弘益 등 당대의 高官 文人들의 詩가 전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麗朝冠冕搃煙空
耘谷餘風振海東
宇宙棟樑成廟貌
春秋香火走村翁
川流一派淵源迥
壁立千層氣象雄
暇日壺觴爭醉德
亂峯微雨詠歸中

여조의 벼슬아치들 모두 다 사라지고
운곡의 끼친 풍화만이 바다 동쪽에 떨치도다.
우주의栋梁이라 사당 모습 이룩하니
봄 가을 향화 때엔 촌 늙은이도 달려가네.
한 갈래 흐르는 냇물은 그 근원이 멀고
천층으로 우뚝선 벽은 그 기상이 웅장하여라.
한가한 날에 술병 들고 서로가 덕에 취하니
어지러운 봉우리 부슬비에 읊으면서 돌아오는 중이네.

--- 吳 翹

耘谷祠堂架半空
從知高躅冠吾東
已將屹屹探書奧
更喚惺惺警主翁
講熟君臣義敦烈
志輕軒冕是豪雄
門前特立千尋壁
宛爾儀形俯仰中

운곡의 사당이 반 허공에 솟았으니
그 높은 자취 우리 해동에 으뜸임을 알겠네.
책속의 깊은 뜻을 이미 부지런히 탐구했고
다시 맑은 정성으로 나라 주인을 깨우쳤으니
군신의 도리에 익숙한 그것이 곧 의열이고
고관대작을 업신여기는 그것이 바로 豪雄이라.
문 앞에 우뚝 선 천길의 벽을
우리러 보는 가운데 威儀가 완연하네.

--- 尹之復

碩士胸襟水月空
回瀾能使百川東
龍潛早卜棲身地
豹隱甘爲遯世翁
溪護廟庭流不溢
出扶棟宇勢多雄
千尋鐵壁凝然立
來自先生氣槩中

碩士의 가슴은 水月처럼 텅 비었지만
모든 냇물을 돌리어 동으로 흐르게 하나니
임금 수레가 일찍 몸 깃들이는 곳에 굽혔지만
은사의 질개는 끝내 세상 피하는 늙은이가 되었네.
시내는 廟庭을 보호해 흘러도 넘치지 않고
산은 기둥을 부축해 그 형세가 웅장해라.
천 길의 철벽이 끄덕 않고 서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생의 氣槩와 같구나.

--- 黃敬中

綱常萬古日麗空
扶植方知此道東
廟貌卽今追白鹿
儒風何必待文翁
晴雲滿壑溪聲遠
列岵排簷石勢雄
一宿西齋清澹骨
依然九曲武夷中

만고에 빛나는 하늘의 해와 같은 그 綱常을
붙들어 심은 그것이 곧 海東의 道임을 알겠네.
사당의 모습은 바로 옛 백록동이거늘
儒風은 어찌 꼭 文翁을 기다려야 하랴.
골에 가득한 맑은 구름에 시냇물 소리가 멀고
처마에 늘어선 못 봉우리는 바위 형세가 웅장해라.
西齋에 하룻밤 나그네는 때 속까지 맑아지니
여기가 곧 武夷山의 구곡인가 하네.

--- 李 植

高懸日月照晴空
獨秉彝倫道已東
洪範九疇歌麥子
清風百世採薇翁
川雷轉壑聲俱遠
石劔攢雲氣併雄
二樂卽今猶可想
誰分燥濕素琴中

높이 달린 해와 달이 맑은 하늘을 비추듯
홀로 彝倫을 잡았으니 도가 동에 있었네.
홍범의 구주라 麥秀를 노래할 사람이고
청풍이 百世라 고사리 켜 늙은이로세.
냇물 우뢰가 골짜기에 굴러 소리가 함께 멀고
바위 같이 구름을 뚫어 기운이 모두 웅장해라.
두 가지 즐거움이야 지금에도 상상할 수 있지만
흰 거문고 가운데 마르고 젖음을 그 누가 분별하랴.

--- 李元鎮

山 棚 巖(산 봉 암)

化工非劇俳
玄機或巧發
棚巖是俗名
鬼神豈手作
七峯類削成

化工이 연극 배우가 아닌데도
玄機는 가끔 묘하게 나타내네.
봉암이란 바로 俗名이거늘
귀신이 어찌 손수 만든 것이라.
일곱 봉우리가 마치 깎아서 된 듯

千尋立突兀
龍門擺砥柱
鰲岵留霜骨
或卓史臣筆
或舉卿士笏
特以比高節
萬古誰擬抗
此有耘老祠
馨香常對越
斯人樹綱常
有言垂日月
焉得翰苑筆
鑣作先生碣

우뚝 선 모습이 천 길이나 되네.
용문은 기둥을 뽑아 솟았고
오수는 서리 뼈를 남겨 두었다.
혹은 史官의 붓을 휘두르고
혹은 卿士의 홀을 들었지만
특히 높은 절개로 전주려 한다면
만고에 그 아무도 비길 이 없으리.
여기에 운곡 늙은이 사당 있어
향기 속에 언제나 뉘는 듯하네.
이 분이 일찌기 綱常을 심어
그 하신 말씀이 일월과 함께 영원하거니
어쩌면 저 翰苑의 붓을 얻어
선생의 비석을 새길 수 있을까.

--- 李 植

甘盤舊學伯夷操
駐蹕山臨舒嘯阜
瞻彼七峯千丈率
翼然祠屋兩相高

감반의 옛 학문이고 백이의 지조이기에
임금의 발굽이 산에 다달아 한숨 쉬었다.
천길의 우뚝한 칠봉을 우러러 보면
날을 듯한 사당이 서로 마주해 다 높네.

--- 鄭熙夔

海東樂詞(해동악사)

白衣來自草萊
紫袍坐開王座
但見故舊恩
不見千乘尊
此何竟何事
應對惟一言
君不見櫝中之書
成灰塵
子孫生聖人
當時著述空勞神

흰 옷으로 초야로 부터 와서
자색 도포로 앉아 왕의 자리를 뒀지만
다만 고구의 은혜를 볼 뿐이고
천승의 높음을 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침내 무슨 일인가 하면
그 웅대가 한 마디 말씀 뿐이네.
그대는 못 보았는가 껍 속의 책이
모두 재가 되고 티끌이 된 것을.
자손에 성인이 태어났으니
그 당시의 저술 정신만을 괴롭히었네.

--- 鄭弘益

5) 七峰書院의 遺物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七峰書院에 다른 서원과 같은 書院誌나 書院錄・淸衿錄 등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유물이나 재산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존하는 七峰書院의 遺物은 下馬碑가 있고(산헌국민학교 보관) 書院址에 무수히 산재해 있는 주춧돌을 비롯한 石材들 뿐이다. 傳說에는 廟庭碑도 있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연안김씨 가문의 분묘와 10여채의 民家를 포함한 七峰書院址를 완전히 발굴・조사하여야 유물의 有無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七峰書院과 같은 賜額書院으로서 그 규모나 성격이 비슷하였던 松潭書院의 遺物을 살펴 봄으로써 七峰書院의 遺物을 추정하여 보겠다.

松潭書院에는 1726년(英祖 2)에 건립한 廟庭碑가 있다. 이 묘정비는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鄭滌가 撰하고 大匡輔國 崇祿大夫 行中樞府事 致仕奉朝賀 閔鎮遠이 書하였다. 이 비문에는 대체로 송담서원의 위치와 비문을 쓰게 된 이유와 廟宇를 건립한 本末을 기록하였다. 송담서원의 廟庭碑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松潭書院廟庭碑文

江陵大都護府之南二十里 有松潭書院 卽栗谷李文成公先生妥侑之所也 記昔遊宦隣郡取道祗謁 退與諸生 揖升講堂 坐語移日 聽其道先生事行 歷歷可徵殆始如及門而親炙之者余蓋心異之 未嘗忘于懷也 歲乙巳 余自海上蒙恩北歸 前日士數輩千里遠來 託以廟庭牲繫之文 余既屢辭不敢 繼而諗之曰 吾先生道德學問之懿 經綸事業之盛 文集具馬國史記之 環東土之人 固將家傳而戶誦諒無待於片石之記載而況尤菴宋先生嘗於紫雲之碑 發揮引重 無復餘蘊 於斯考焉則幾矣 又誰敢爲架疊之說哉 僉曰 子言則誠然 惟是弊邑 卽先生外氏家而申夫人夢龍之室 至今巍然 且先生嘗爲省覲往來頻仍 遺風餘韻尙有存者 卽吾院事體 容有與他 自別而廟宇之建置本末亦有委折 俱不可不略記 以視後今既伐石 多士須矣 余遂敬應曰諾 夫以孔子之聖 天下後世 莫不尊奉 內自國都 外及州縣 皆有學校 然人之慕尙愛護 尤在於闕里昌平者 特以其舊宅之遺墟也 則今於大賢降生之鄉 思有以表揭而垂永 亦其宜也 第竊嘗聞程夫子顏樂亭 銘曰 水不忍廢 地不忍荒 嗚呼 正學其何可忘 如或正學而可忘政使水不廢而地不荒 顧何益之有哉 苟欲知

先生之正學者 先讀紫雲之碑 因以求之於文集之全 則宋廟之美 百官之富 庶乎可見 吾黨君子 盍相與勉焉 本院之創 實在府南十里地 經始于 崇禎甲子奉安于 庚午二月 揭號石川 前後相其役者 監司尹公安性 府使李公命俊也 其後壬辰金公益熙 巡按嶺東瞻禮廟下 慨棟宇之將傾 相土地之修宜函與章甫 叶謀移建 卽今之松潭是也 顯宗大王庚子 宜賜恩額 今年丙午距庚子六十七年云

後學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鄭濬撰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致仕奉朝賀 閔鎮遠書

송담서원묘정비문(번역)

江陵大都護府에서 남쪽으로 20리에 松潭書院이 있으니 곧 栗谷 李文成公을 모신 곳이다. 記錄에는 옛날에 이웃 고을에서 벼슬할 적에는 道를 취할 것을 빌고 고하였으며, 물러나서는 諸生과 더불어 講堂에 나아가 앉아 이야기하며 날을 보냈다. 그 道를 들으면 先生의 일과 행적을 낱낱이 알 수 있어 그 門下에 나가서 직접 듣는 것과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특별히 생각하여 항상 잊지 못하였으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乙巳年에 강릉에서 서울로 떠났다.

그런데 전일에 선비 몇 사람이 천리나 되는 먼 길을 와서 廟庭碑文을 부탁하거늘 나는 여러번 사양을 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의 위대한 도덕과 학문, 그리고 그 크신 經綸과 事業은 이미 文集에 다 갖추어져 있고 또한 國史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전해져서 다 알고 있으니 한 조각의 돌에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더군다나 尤菴 宋先生이 일찌기 紫雲書院의 碑에서 거듭 發揮하여 다시 남은 뜻이 없으니 여기서 살펴보면 다 될것인데 무엇때문에 군더더기 말을 하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진실로 옳으나 다만 이 고을은 선생의 外家이며 申夫人의 夢龍室이 지금까지 우뚝하게 서있고 또한 先生이 일찌기 살펴보시기 위하여 往來를 자주하시어 遺風餘韻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書院이 다른 서원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겠지만 廟宇를 건립하려는 本末에 자세한 곡절이 있으니 不可不 그 사실을 대략 적어서 後人에게 보이려고 이미 돌을 깎아 놓고 많은 선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나는 할 수 없이 비문을 써주기로 하였다.

대체로 孔子같은 聖人은 天下後世에 높이 받들지 않음이 없다. 안으로는 國都로 부터 밖으로는 州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學校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흠모하고 애호하는 마음이 闕里昌平에서 더한것은 特히 그 舊宅의 遺墟

때문이다. 이제 大賢께서 탄생하신 고을에서 그분을 계시하여 永遠토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일찌기 듣건대 程夫子의 安樂亭銘에 曰 물은 차마 없앨 수 없고 땅은 차마 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正學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만일 正學을 잊는다면 설령 물이 없어지지 않고 땅이 황폐하지 않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진실로 선생의 正學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紫雲書院의 碑文을 읽고 선생의 全文集에 의하여 求한다면 宗廟之美와 百官之富를 거의 다 볼 수 있을 것이니 우리 군자들은 어찌 서로 더불어 힘쓰지 않겠는가? 本 書院은 崇禎甲子年에 府의 남쪽 10리되는 곳에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庚午年 2월에 完成하여 神位를 봉안하고 그 이름을 石川이라고 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이 일을 살핀 이는 監司 尹安性公과 府使 李命俊公이다. 그후 壬辰年에 金益熙公이 嶺東을 순찰하다가 廟下에서 참배를 하고 그 건물이 기우는 것을 개탄하여 새로운 書院地를 찾아서 급히 여러 선비들과 상의하여 移建하였으니 이것이 현재의 松潭書院이다.

顯宗大王 庚子年에 賜額을 내리시니 금년 丙午年에서 庚子年은 67년이 된다. 後學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鄭滌가 글을 짓고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致仕奉朝賀 閔鎮遠이 글씨를 썼다.

이상에서 살펴본 松潭書院과 같이 七峰書院에도 書院의 기본건물인 祠堂, 講堂, 東・西齋를 비롯하여 그 附屬建物과 下馬碑를 비롯한 廟庭碑 등의 遺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七峰書院의 財産

宋楊燮 教授의 「江原道 書院 現況調査」江原道 書院의 財産 항에 관한 서술에 의하면 書院의 財産은 다음과 같다.

朝鮮時代 書院의 財産은 書院田, 奴婢, 現物, 書籍 등으로 大別된다. 서원전은 서원재산의 기본으로서, 지방의 유림들로 부터 寄附된 願入田, 서원을 배경으로 役力の 면제를 원하는 자들이 바친 免役田, 서원의 재산으로 買得한 買得田, 官의 조치에 의하여 서원에 移屬된 公屬田 등이 있었다.

그리고 賜額書院의 경우에는 國王으로 부터 賜額時 토지와 노비, 서적이 하사되었다. 地方官들은 서원 유생들의 供饋過程에 所用되는 日用雜物・漁獲物・食鹽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서원의 재산은 대부분 書院毀撤時에 鄉校로 이속되었다.

강원도 서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기록의 미비와 조사상의 제약으로 상세한 내용은 제시할 수는 없으나 단편적이거나 江陵의 五峰書院과 松潭書院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溟州(江陵)의 五峰書院은 七峰 咸軒이 중국에 書狀官으로 갔다가 사재를 들여 吳道子가 그린 孔子의 眞像을 求得하여 돌아와 道伯 尹仁恕, 府使 洪春年 등과 의논하여 서원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창건 당시부터 咸軒을 비롯한 지방유림의 성금과 官의 지원으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81년(肅宗 7)에 “傳敎하기를 五峰書院은 孔子의 眞像을 奉安한 곳으로 다른 東方諸賢을 모신 서원과는 다른 바 있다. 朝廷에서 감히 賜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원의 규칙은 사액서원의 例로 遵行하여 田 3結과 募入人 20名을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액서원과 동등하게 중요시 되어, 田 3結과 募入人 20名을 받았

<표 5>

五峰書院에서 鄉校로 移管된 書冊目録

書 名	數量	書 名	數量	書 名	數量	書 名	數量
列聖御	7卷	心經	4卷	中庸俱解	2卷	朱子語類	47卷
續綱目	27卷	禮記	1卷	詩傳	14卷	書正文	2卷
楚辭	1卷	大學衍義	8卷	后山集	1卷	論語大全	4卷
易解	10卷	近思錄	7卷	李先生集	1卷	益齋集	4卷
宋鑑	21卷	栗谷集	11卷	林忠敏公實記	1匣	春秋傳	9卷
佔畢齋集	8卷	藕文	2卷	庸解	1卷	詩解	14卷
麗史提綱	6卷	簡齋集	4卷	通鑑	7卷	李白	10卷
遇伏集	10卷	漢書	27卷	玉纂	8卷	通鑑纂要	20卷
論語	7卷	退溪集	6卷	事物類聚	70卷	宋名臣錄	11卷
翻譯小學	7卷	朱子書	7卷	大谷集	1卷	八大家	26卷
文章辨體	12卷	白涉集	10卷	雙明齋集	2卷	海偏心經	10卷

음을 알 수 있다.

五峰書院의 재산도 대부분 書院毀撤時 鄉校로 이속되었다. 五峰書院의 藏書中에서 江陵鄉校로 移管된 書冊의 목록을 보면 앞 페이지의 〈표 5〉와 같다.

溟州(江陵)의 松潭書院도 “1624년(仁祖 2)에 江原監司 尹安性, 江陵府使 姜因과 江陵人인 工曹參議 金夢虎, 院長 李尙馥 등 地方人士 30여명에 의하여 起工되고, 6년의 공사 끝에 1630년(仁祖 8)에 완공을 보았다”는 기록에서, 지방관과 지방의 유림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松潭書院은 1659년(孝宗 10)에 賜額을 받았으며 位土 3結과 募入人 22名이 下賜되었다. 1871년의 書院毀撤時 많은 재산과 書冊이 江陵鄉校로 이관되었다.

松潭書院에서 江陵鄉校로 이관된 書冊의 목록을 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향교로 이관된 書冊은 모두 34種 148卷이다.

〈표 6〉 松潭書院에서 鄉校로 移管된 書冊目錄

書 名	數量	書 名	數量	書 名	數量	書 名	數量
西涯樂府	2卷	御製綸音	1卷	古文眞寶	3卷	國誌記	1卷
書傳	10卷	春秋胡傳	7卷	四書釋義	1卷	朱子考異	1卷
大家文會	4卷	樂靜齋集	5卷	新編類對	1卷	竹溪誌	3卷
孟子	7卷	君文	1卷	東京雜記	2卷	讀書法	1卷
頤齋集	1卷	孟解	1卷	南華經	5卷	選文綴英	1卷
李先生集	1卷	類苑叢寶	19卷	彙語	24卷	冲菴集	2卷
晴峰集	2卷	周易	15卷	東史纂要	1卷	漢雋	8卷
昌黎集	4卷	韻會	1卷	詩傳	8卷		
近思錄	3卷	東坡詩	1卷	三經釋義	1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七峰書院의 재산도 松潭書院이나 五峰書院과 비슷하였을 것이며 五峰書院이나 松潭書院의 재산이 1871년 書院撤廢時 江陵鄉校로 移管된 것과 같이 七峰書院이나 陶川書院의 재산도 原州鄉校로 移管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위의 두 서원이나 原州鄉校 어느 곳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없다.

7) 七峰書院의 祭享日

조선시대 서원 설립의 목적중의 하나가 尊賢崇德이었으므로 서원에서 祭享은 대단히 존엄시 되었다. 朝鮮朝 後期로 내려 올수록 서원의 존엄의의도 講學보다도 鄉祠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원이 大院君에 의하여 毀撤된 뒤에도 祭享만은 각 지방의 儒林과 門中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속되어온 곳이 많으며, 학교교육의 근대화 이후에는 서원은 오로지 祭享을 통하여 문화적 전통성과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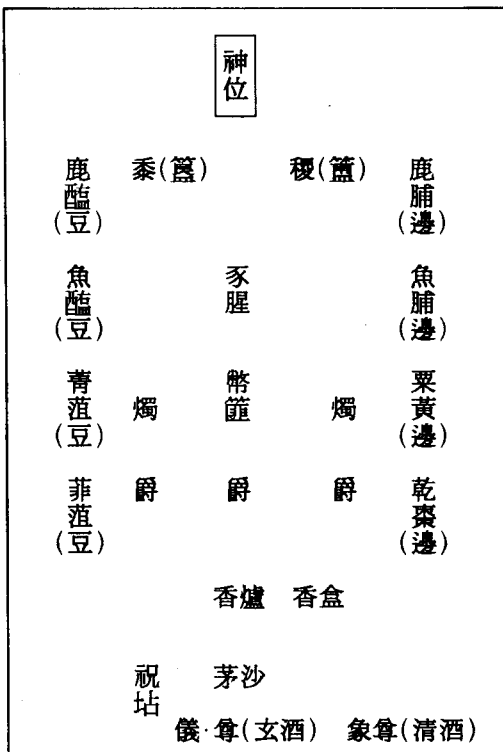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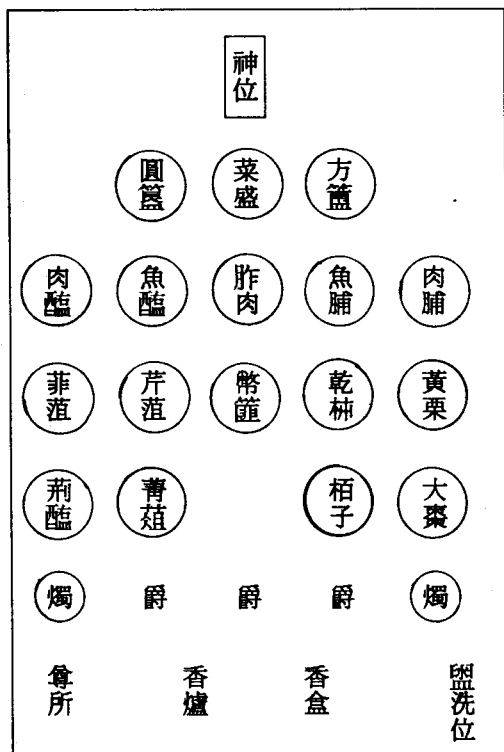
서원에서의 祭享을 위한 儀禮와 節次는 모든 서원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大同小異하였다. 따라서 七峰書院의 祭享도 일반적인 서원의 祭享을 살펴봄으로서 대체로 알 수 있다.

서원의 祭享일은 봄과 가을에 날짜를 택하여 1년에 2회씩 祭享하는데, 서원에 따라서 仲春(음력 2월)과 仲秋(음력 8월)의 中丁日에 祭享하는 곳도 있고 季春(음력 3월)과 季秋(음력 9월)의 上丁日에 祭享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祭享일이 國忌日과 상치하면 그 다음 丁日로 하였으며 國喪이 나서 季春・季秋에 因山이 끝나지 않으면 神位에 告由만 하고 享祀는 하지 않았다. 祭享은 序禮에 이어 奠幣禮・初獻禮・亞獻禮・終獻禮・飲福禮・望燎禮・辭神禮의 순서로 祭享하는데 이때 神位를 모시고 그 神位 앞에 祭需를 陳設한다. 陳設하는 祭需와 陳設 위치는 지방에 따라서 또는 서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大同小異한데 그 陳設圖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7>의 陳設圖와 같다.

書院 祭享時 祭官은 獻官과 諸執事로 大別된다. 獻官으로는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이 있고, 諸執事는 祝, 贊者, 謁者, 引贊, 司尊, 奉香, 奉爵, 奉爐, 奠爵으로 分定된다.

祭官들의 자격과 역할을 보면, 獻官의 자격은 나이 많고 德望이 높은 儒士중에서 선임하였다. 일반적으로 初獻官은 그 지방의 지방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獻官들은 각기 初獻禮, 亞獻禮, 終獻禮를 奉行한다. 諸執事들은 儒林과 院生 가운데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諸執事들의 역할을 보면, 祝은 祝文을 담당하여 祭



享時 祝文을 읽는다. 贊者는 祭儀節次가 상세하게 기록된 笏記를 맡아 큰 소리로 읽어 祭享節次를 진행한다. 謁者는 獻官들을 인도하며 祭禮의 奉行을 보좌하며 한 절차가 끝날 때마다 贊者의 口令을 復唱한다. 贊引은 祭官 및 參祀者들을 절하는 자리 즉 拜位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司尊은 祭酒를 담당한다. 奉香은 香을, 奉爐는 香爐를 담당한다. 奉爵은 술잔을 담당하고, 尊爵은 獻官의 술잔을 받아 神位前에 드리는 일을 맡는다.

8) 祭享節次

모든 祭享의 절차는 笏記에 의하여 시행하는데 松潭書院의 笏記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松潭書院笏記(原文)

○獻官以下諸執事及諸生俱就外位 ○贊引引執禮大祝及諸執事 入就階間拜位
再拜詣盥洗位 盥手 帨手 各復位 ○贊引引獻官及諸生入就拜位 ○謁者進初獻
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獻官及諸生皆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搢笏 ○盥手 ○帨手 ○執笏 ○引詣神位前 ○北
向立 ○跪 ○搢笏 ○奉香奉爐升 ○三上香 ○奉香奉爐降復位 ○獻幣奠幣升
○獻幣 ○奠幣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尊所 ○西向位 ○奉爵奠爵升 ○司尊舉罍酌酒 ○初獻官詣
神位前北向立 ○跪 ○搢笏 ○執爵 ○奠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少
退 ○跪 ○搢笏 ○大祝升 ○祝進初獻官之左東向跪讀祝 ○執笏 ○俯伏 ○興
○平身 ○因降復位

○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立 ○北向立 ○搢笏 ○盥水 ○帨手 ○執笏 ○引詣尊
所 ○西向立 ○奉酌奠爵升 ○酌酒 ○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 ○跪 ○搢笏 ○
執酌 ○奠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詣盥洗立 ○北向立 ○搢笏 ○盥手 ○帨手 ○執笏 ○引詣尊
所 ○西向立 ○奉爵奠爵升 ○酌酒 ○終獻官詣神位前北向立 ○跪 ○搢笏 ○
執爵 ○奠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獻官皆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 行飲福禮

○贊引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立 ○跪 ○搢笏 ○大祝酌福酒 ○以俎進減
神位前胙肉 ○降自東階出 ○進初獻官之左北向跪 ○以爵授初獻官 ○初獻官受
爵 ○飲啐爵 ○還授大祝 ○大祝以胙授初獻官 ○初獻官受胙 ○還授大祝 ○大
祝受胙復位尊所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望燎禮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北向立 ○搢笏 ○大祝以籠取祝及幣降自西階置於坎 ○可燎 ○執笏 ○引降復位

○ 行辭神禮

○大祝入撤籩豆各少移於故處 ○東階出 ○獻官及諸生皆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大祝及諸執事皆再拜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獻官及諸生以次出 ○執禮贊引謁者俱就拜位 ○再拜 ○撤饌 ○闔門而退

송담서원 홀기(번역)

○헌관이하 모든 執事와 諸生들이 모두 外位로 나간다. ○찬인이 執禮大祝과 모든 執事를 인도해서 階間의 拜位로 나가서 재배를 한다. 그리고 손을 씻는 곳으로 가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각기 자기 위치로 돌아 간다. ○찬인이 헌관과 제생들을 인도해서 배위로 나간다. ○알자는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有司에게 공손하게 행사를 시작할 것을 청한다. ○헌관의 제유생이 모두 재배를 한다. ○몸을 굽힌다. ○절을 한다. ○일어난다. ○절을 한다. ○일어난다. ○경건한 자세로 바로 선다.

○ 奠幣禮를 시행한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씻는 곳으로 나아가간다. ○笏을 꺾는다. ○손을 씻는다. ○수건으로 닦는다. ○笏을 잡는다. ○곧 神位前에 나아가간다. ○북쪽을 향하여 선다. ○꿇어 앉는다. ○笏을 꺾는다. ○奉香과 奉爐가 오른다. ○향을 세번 피운다. ○奉香과 奉爐가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獻幣와 奠幣가 오른다. ○獻幣를 한다. ○奠幣를 한다. ○笏을 잡는다. ○부복한다. ○일어난다. ○몸을 편다. ○곧 제자리로 복귀한다.

○ 初獻禮를 시행한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尊所로 나아가간다. ○서쪽을 향하여 선다. ○奉爵과 奠爵이 오른다. ○司尊이 덩개를 들고 술을 붓는다. ○초헌관은 神位前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꿇어 앉는다. ○笏을 꺾는다. ○爵을 잡는다. ○爵을 드린다. ○笏을 잡는다. ○부복한다. ○일어난다. ○경건한 자세로 바로선다. ○약간 물러난다. ○꿇어 앉는다. ○笏을 꺾는다. ○大祝이 오른다. ○祝이 초헌관의 왼쪽에 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서 祝을 읽는다. ○笏을 잡는다. ○엎드린다. ○일어난다. ○몸을 편다. ○곧 원위치로 돌

아간다.

○ 亞獻禮를 시행한다.

○알자가 亞獻官을 인도하여 손씻는 곳으로 나아간다. ○북쪽을 향해서 선다. ○笏을 쏜다. ○손을 씻는다.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笏을 잡는다. ○인도하여 尊所로 나아간다. ○서쪽을 향하여 선다. ○奉爵과 奠爵이 오른다. ○술을 붓는다. ○아헌관이 神位前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끓어 앉는다. ○笏을 쏜다. ○잔을 잡는다. ○잔을 드린다. ○笏을 잡는다. ○엎드린다. ○일어난다. ○몸을 편다. ○곧 원위치로 돌아간다.

○ 終獻禮를 시행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손씻는 곳으로 나아간다. ○북쪽을 향하여 선다. ○笏을 쏜다. ○손을 씻는다. ○손을 닦는다. ○笏을 잡는다. ○인도하여 尊所로 나아간다. ○서쪽을 향하여 선다. ○奉爵과 奠爵이 오른다. ○술을 붓는다. ○종헌관이 神位前에 나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끓어 앉는다. ○笏을 쏜다. ○잔을 잡는다. ○잔을 드린다. ○笏을 잡는다. ○부복한다. ○일어난다. ○몸을 편다. ○곧 원위치로 돌아간다. ○헌관이 모두 재배를 한다. ○몸을 굽힌다. ○절을 한다. ○일어난다. ○절을 한다. ○일어난다. ○몸을 편다.

○ 飲福禮를 행한다.

○찬인이 음복하는 곳으로 초헌관을 인도한다. ○서쪽을 향하여 선다. ○끓어 앉는다. ○笏을 쏜다. ○大祝이 복주를 붓는다. ○神位前에 나가서 그릇에 胙肉을 덜어서 나온다. ○동쪽 계단으로 부터 나온다.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가서 북쪽을 향하여 끓어 앉는다. ○잔을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은 잔을 받는다. ○술을 마신다. ○잔을 大祝에게 돌려준다. ○大祝이 胙(안주)를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은 胙를 받았다가 大祝에게 돌려준다. ○大祝은 胙를 받아서 다시 尊所에 놓는다. ○초헌관은笏을 잡고 ○엎드렸다. ○몸을 편다. ○경건한 자세로 바로선다. ○곧 원위치로 돌아간다.

○ 望燎禮를 시행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望燎位로 간다. ○북쪽을 향하여 선다. ○笏을 쏜다. ○大祝이 광우리에 祝板과 幣를 담아 가지고 서쪽계단으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불태운다. ○笏을 잡는다. ○곧 원위치로 돌아간다.

○ 辭神禮를 시행한다.

○大祝이 들어와서 饗豆를 철거하여 약간 故處로 옮긴다. ○동쪽 계단으로 나간다. ○헌관과 諸生이 모두 再拜를 한다. ○몸을 굽힌다. ○절을 한다. ○

일어난다. ①절을 한다. ①일어난다. ①몸을 편다. ①알자는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가서 행사가 끝났음을 고한다. ①大祝과 제집사가 모두 재배를 한다. ①몸을 굽힌다. ①절을 한다. ①일어난다. ①절을 한다. ①일어난다. ①몸을 편다. ①헌관과 제생이 순서대로 나간다. ①執禮와 贊引, 謁者が 모두 拜位로 나간다. ①再拜를 한다. ①饌을 철거한다. ①闔門하고 나간다.

또한 祭享時 祝文을 읽는데 다행히 七峰書院의 春秋祭享祝文과 賜額 祭文이 『耘谷詩史』에 전하고 있다. 그 原文과 翻譯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春秋祭享祝文

伏以 學傳洙泗	삼가 아뢰옵노니, 학문은 수사를 전해 받고
道屯首陽	도는 수양에 자리를 두었었습니다.
一部詩史 萬古綱常	일부 시가가 만고의 강상이니
斯文之享永世無疆	사문의 제향은 영원히 끝이 없으리라.
謹以牲幣粢盛	삼가 생폐와 자성 등
庶品式陳明薦	여러 제물을 갖추어 이에 정성껏 받드나이다.

賜額祭文(原文)

國王遣臣禮曹正郎宋挺濂 諭祭于原襄道原州牧 高麗國子進士元天錫之靈 民厭麗德 天啓聖祖 一掃昏穢 萬物咸覩展 如之人獨行 不顧隱居雉嶽 永矢考槃 恭惟 獻廟念切甘盤 旣勤駟召 亦屈和鑾 志堅踰坦 匹夫難奪能以禮下俾 遂高節採薇 西山何損周德垂 釣桐江實扶漢俗 究厥所就 豈無預養 少也好學 長益勉強 優遊涵泳 深諡義理 遭時濁亂 蘊而莫試 暫遊國子 非爲筮仕 遷世無悶 高尚其事 風聲所及 異代興起 茲遣禮官 敬奠洞酌 數字華額 萬古矜式 。

사액제문(번역문)

국왕은 신하 예조 정랑 송정렴을 보내어 원양도 원주목 고려 국자진사 원천석의 영전에 제사 받드노라.

백성들이 고려의 덕을 싫어하므로 하느님이 성조에게 계시하사 어두움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매, 만물이 다 그것을 함께 보았다. 그러나 특수한 사

람은 홀로 가면서 돌아보지 않고 치악산에 숨어 영원히 고반을 맹세하였다.

삼가 생각하면 현묘계선 그 생각이 감반에 간절하셨으므로, 이미 역마를 보내 부르셨고, 또 화란을 굽히었으나 굳은 그 뜻은 마침내 몸을 피한지라, 필부의 뜻을 빼앗기 어렵기에 예를 갖추 겸손하사 높은 절개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서산에서 고사리 캔 것이 주나라 덕에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동강에 낚시를 드리운 것은 실로 한 나라 풍속을 붙든 것이니, 그 성취한 것을 살펴 보건대 어찌 미리 수양한 것이 없었으랴. 젊어서 학문을 좋아했는데 장성해선 더욱 힘써 닦고 연구를 거듭하여 의리를 깊이 깨달았다. 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자 쌓아 둔 포부를 시험하지 못했고, 잠깐 국자에 놀았지만 그것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을 피해 살면서도 고민이 없었으니 그 일을 높이 평가할 만하고 풍성이 미치는 곳에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흥기하게 하였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삼가 맑은 술잔을 올리노니 이 몇 글자의 빛나는 액자는 만고의 자랑스런 법이 될 것이다.

참고로 松潭書院과 五峰書院, 七峰祠의 祝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松潭書院의 祝文

維歲次 年月日 後學某官姓名敢昭告于
先師栗谷李先生

伏以 發揮道妙 承繼正統
功崇德隆 百世欽奉
謹以腥幣 清酌庶品
式陳明薦 尙

饗

② 五峰書院의 祝文

維歲次 年月日 後學某官姓名敢昭告于
先聖大成至聖文宣王

伏以 道冠百王 萬世師表
茲值上丁 精禋是宜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
以先師徽國朱文公宋文
正公從祀 尙

饗

③ 七峰祠의 祝文

維歲次某年某月某日 某敢昭告于
禮賓寺正威公

伏以 經始聖廟 啓佑後學
功存士林 永祀無斁
謹以洞酌 式陳菲薦尙

饗

2. 七峰書院의 配享人物

1) 耘谷 元天錫

(1) 耘谷의 生涯

운곡 원천석은 고구려 佐命功臣 金紫光祿大夫 門下侍中 平章事를 역임한 원주 元氏의 始祖 元鏡의 19세손이며, 고려 충숙왕 때에 宗簿寺監을 지낸 允迪의 둘째 아들로 1330년(忠肅王 17) 7월 8일에 태어났다. 자는 子正이요 호는 운곡이며, 簡齋 申用義의 문인으로 九齋 출신이고 原州 元氏의 中始祖이다.(原州元氏宗史 第1編 源流分派圖)

高祖인 寶齡과 曾祖父인 時俊은 倉正을 지냈으며, 祖父 悅은 精勇別將을 지냈다. 따라서 그 祖父代까지는 가문의 활동영역이 원주지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의 부친 允迪에 이르러서 비로소 從三品職인 宗簿寺監으로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운곡의 형 天常과 아우 天祐도 모두 松京에서 출생하여서 각각 進士, 縣令을 지낸것으로 보인다.

운곡은 3형제중 둘째로 태어나 어릴적부터 秀才로 이름이 났었는데 점차 성장하면서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世間에 알려졌다. 그러나 고려 말엽의 정치의 어지러움을 보고 마침내 原州 雉岳山에 은거하여 才智와 학문을 감추고 몸소 山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며 아버이를 봉양하였다.

이때에 邑宰가 公이 어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운곡은 사양하고 가지 아니하였더니 邑宰가 역겨운 마음으로 公의 이름을 軍籍에 올렸는데도 운곡은 개의치 아니하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단지 세월의 어지러움을 탄식하였다. 운곡의 慈堂께서는 항상 집이 가난하여 세금을 직물로 바치기가 어려워서 운곡에게 진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운곡은 부득이 開京으로 올라가 九齋籍을 갖고 國子監試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서 진사가 되었다. 이때가 운곡의 나이 26세

되던 해로 공민왕 4년(1355년)이다.

운곡이 그것을 계기로 官路에 진출하려고 하였다면 누구 못지 않은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었겠으나 운곡은 이 길을 단념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왔다. 물론 운곡은 官界에 진출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나 복잡한 시대적 환경이 그로 하여금 官界를 단념하고 草野에 돌아와서 은거케 하였고 조선왕조 건국후에는 不事二君의 충절로 일관하였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왕이 된 태종은 일찌기 운곡에게 글을 배운 일이 있었으므로 그가 왕이 된 후에 운곡을 불러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그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태종은 원주 치악산까지 찾아 왔으나 운곡은 태종이 찾아 오는 것을 미리 알고는 노상의 강변에서 老嫗가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탁하기를 이 뒤에 사람이 찾아 오거든 나는 왼쪽의 弁岩으로 가겠으니 그대는 내가 바른쪽의 치악산중으로 가더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과연 잠시후에 왕의 행렬이 당도하여 운곡의 행방을 묻자 老구는 놀라면서 운곡에 대한 신의를 지켜 그가 부탁한대로 말하였으니 결국 임금에 대해 거짓을 진술한 죄과를 범한 것이었다. 老嫗는 임금을 속인 죄를 생각하고 곧 깊은 강물에 투신하여 죽음으로 사죄하였으니 바로 그곳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嫗淵, 또는 老嫗沼라 이름지어 충절을 상징하는 곳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해방시까지만 해도 그 옆에는 祭幕으로 사용하는 자그마한 草屋이 있어 뜻있는 동리의 유지들이 그 충성심을 가늠하게 여겨 제례를 지내고 있었으나 오늘에는 그것마저 헐어져서 빈터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老嫗가 향방을 잘못 가리킨 곳이라고 하여 橫指岩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태종은 운곡의 뜻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한 바위위에 앉아 쉬었는데 그곳이 바로 太宗臺라고 하는 곳이다. 이곳은 위를 바라보면 험준한 치악의 높은 산줄기가 펼쳐있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 물길에 嫗淵을 에워싸고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후에 樓閣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駐蹕臺」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고, 아울러 태종대에 대한 사적이 적혀있는 현판이 걸려 있다. 또 태종이 그곳에서 3일간 머물렀는데 끝내 운곡을 만나지 못하고 치악산을 넘어 還行할 때에 뒤를 돌아보며 절을 하였다는 拜向山이 있다.

운곡은 태종을 피하여 치악산 고지(1,288m)의 비로봉 동편에 자리잡고 있는 弁嶺으로 향하였다. 변암은 형상이 마치 고깔을 얹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의 처마밑 같기도 한데 수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운곡은 이곳의 굴에서 기거하였는데 그곳에는 지금은 마멸되어 거의 알아 볼 수 없으나 「암반에 우물을 파서 갈증을 면하시고 산채를 건어 시장기를 달렸다(開穿石井常澆渴收拾山蔬具慰貧)」라는 글이 새겨져 내려오고 있다.

그 후 태종이 上王이 되어 특명으로 운곡을 부르니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흰옷을 입고 入闕拜謁하였는데 이때에 태종은 어린 손자들을 불러 운곡에게 보이면서 묻기를 “내 子孫들이 어떠하오” 하였더니 운곡이 首陽(후에 世祖)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는 祖父(太宗)를 몹시 닮았으니 모름지기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海東樂府) 이는 태종의 不義로 왕위에 오른 태종에 대한 운곡의 有感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뜻에서 祖父인 태종을 많이 닮은 首陽도 不義를 할 것이라고 豫言警戒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운곡은 才學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高麗朝에서는 일개 進士에 불과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仕宦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기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말의 충절로 三隱을 꼽고 있으나 운곡의 高節은 三隱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圃隱과 牧隱, 治隱의 충절도 높이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포은과 목은은 고려조의 大官을 지냈으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治隱 吉再도 門下省의 注書로 칠품직을 지냈으니 不事二君의 처신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운곡은 진사시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지만 고려조에서 벼슬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 개창이후에 신왕조에 出仕하여 부귀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흠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운곡은 出仕하기는 커녕 태종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고, 직접 치악산 그의 은거지에 찾아온 태종을 피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淸節로 伯夷叔齊를 꼽는데 그들이 以臣伐君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자 首陽山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餓死하였으니 당연히 그 절개는 추앙하여야 하겠지만 엄연히 그들은 孤竹君의 왕자로서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측면에서는 當然之事로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운곡의 경우는 일개 布衣寒士로서 도무지 고려조에 의리를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처지도 아니었으므로 그런 면에서는 운곡의 충절은 백이숙제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운곡은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의감을 발휘하였다. 고려말기에 이성계를 비롯한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왕을 옹립하고 우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실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바로 우왕・창왕을 요승 辛旽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권력에 아부하는 고려조의 관리는 물론이고 오랜동안 국록을 먹어온 史官들도 曲筆阿世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당시의 상황에서 공공연히 그러한 사실을 일일이 비판하고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不義의 현세를 탄식하며 누구도 적기를 꺼리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역사의 진실을 전한 것은 운곡의 정의감이 아니면 불가하였을 것이다.

운곡은 그 절의나 정의감으로서만 고매한 인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순후하고 인자하여 일찌기 36세 되던 해에 부인을 사별하였는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續絃을 하지 않았다. 후취가 들어오면 가정의 평화에 금이 갈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二十四孝의 한사람으로 유명한 閔子騫이 후모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는데 그에 분개한 아버지가 후모를 축출까지 하려고 했던 故事를 운곡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희생한 고귀한 부성애와 순수한 인간미는 다른데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고도의 용광로로도 녹일 수 없었던 그의 기백에 또한 이렇듯 절실한 인간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學行의 일치, 완전무결한 인간상을 우리는 운곡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金鍾武, 「耘谷先生 -그의 人物과 文學-」 參照, 『耘谷元天錫詩史』, 原州元氏譜所, 1984 參照)

또한 운곡은 金若時, 李養中, 范世東, 李千善, 金三近 등 삼십여인과 더불어 해마다 春秋로 치악산 마루의 바위에 祭壇을 만들고 列聖祖와 우왕, 창왕, 공양왕 등과 道德으로 추앙되거나 절의를 지킨 선비들을 배향하여 제사하였다.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杜門洞 72賢들로서 새로 개창된 조선왕조

에서 臣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절개를 지키며 무너져 가는 天地의 綱常을 바로 세우고 뒤흔든 人倫을 밝히기로 뜻을 같이 한 선비들이었다. 이 雉岳壇에서의 春秋祭享은 약 30여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윤곡이 死去한 후에는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윤곡의 歿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조선 태종이 上王이 되어 재차 특명을 받고 가서 만나 보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90여세를 壽한 것으로 보인다.

(2) 耘谷의 學問과 思想

윤곡은 당대의 신진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 도입된 성리학을 수용한 유학자로서 「程朱와 말고삐를 나란히 한다」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대유학자였다. 그러나 윤곡은 유학자일 뿐만 아니라 불교학과 도학에도 정통한 폭넓은 학자였다. 그는 당시 李穡, 鄭道傳, 李崇仁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색과는 나이가 불과 두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같은 연배로서 친밀한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고, 정도전과는 동년의 관계로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왕래하는 등 친교가 있었다. 이승인 또한 윤곡과는 동년으로 친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 유학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후에 정도전과 이색은 정치적 입장에서 그 의견을 달리하여 정도전은 조선왕조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급진개혁파의 선봉으로서 역성혁명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색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전제로 하는 守成의 논리를 펼치면서 고려조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

윤곡은 고려시대의 유학자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던 것처럼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승려들과의 교분도 두터워서 道境大禪師・白雲淵長老・曹溪參學 允珠禪師 등 여러 禪師 들과 시와 서신을 주고 받았다.

그가 스스로 평하여 “한편으로는 유교의 六門에 익숙하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三界를 왕래하여 유교와 불교에 대해 알은 지식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

지만 유학에 대한 것은 물론 佛學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耘谷詩史』에 수록된 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불교와 관계된 것이라는 점과 그의 은거생활이 居士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운곡의 불교관은 당대의 다른 신진사대부들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三敎一理라는 논리에서 잘 나타난다. 즉 운곡이 우왕 13년(1387)에 지은 시를 보면 “유교의 가르침은 窮理盡性이요, 불교의 가르침은 明心見性이요, 도교의 가르침은 修真鍊性”이라고 하여 “齊家治身 致君澤民은 유교의 餘事요, 齋精養神 飛仙上昇은 도교의 祖跡이요, 越死超生 自利利人은 불교의 筌蹄”라고 하고, 결국 그 極處에 이르면 같지 않은 것이 없다는 如如居士의 三敎一理論을 인용하고는 儒·佛·道 모두 治性하라는 가르침인데 다만 盡之, 見之, 鍊之하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그 귀일하는 곳은 동일한 하나의 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운곡의 주장은 당대 신진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배불론적인 태도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柳桂姬, 「元天錫研究」, 『수춘 박영석교수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參照)

또한 운곡은 문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을 그가 남긴 1144首의 詩文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운곡의 이 시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많은 사람들에게 膾炙되고 있는 바이지만 운곡의 고려조에 대한 悲嘆에 찬 마음이 실려 있는 대표적인 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耘谷詩史』는 운곡이 22세이던 충정왕 3년(1351)부터 65세되는 태조 3년(1394)까지 장장 44년간 지은 시 1,144수를 연대순으로 엮어 1603년에 江原觀察使 朴東亮이 序文을 써서 3권 2책으로 만든 것이다. 비록 이 詩史에는 고려말 조선초의 많은 史實과 관련된 시가 실려 있지만 운곡의 행적으로 볼 때, 이성계의

역성혁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趙英珪의 鄭圃隱 椎殺, 李芳遠이 형제들을 살륙하고 왕위에 오른 것과 친분이 있던 鄭道傳의 득세와 慘死 등 여말선초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과 처참한 장면에 대해 운곡이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즉 다시 말해서 『耘谷詩史』에 실려 있는 시는 운곡이 지은 시의 전부가 아니라 상당부분은 산실되었을 것이고, 특히 후손들이 우곡 저술의 野史를 소각할 때 詩 가운데에서도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타격을 줄만한 것은 가려서 함께 소각해 버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耘谷詩史』의 권두에 朴東亮(강원도 관찰사)이 서문에서 우왕 부자의 伸冤에 관한 것만을 대서 특필하고, 鄭莊敬이 文集序에서 伯夷의 노래가 周邦에서 忌諱되지 않았든 즉 선생의 시가 조선에서 기휘될 것이 무엇이나 하였고, 丁範祖(형조판서)의 서문에 선생의 시가 “완전히 麥秀의 採薇의 유음이 있다”하고, 또 원씨의 跋文에 盧水鼓琴과 西山採薇를 말하였고, 또 務光의 곡과 백이의 노래가 殷周대에 忌諱를 당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한 것은 모두 의미가 있어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박동량이 운곡의 ‘野史’ 중에 설사 조선왕조에 忌諱될 만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론하거나 아는체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정장경과 정범조의 서문에서 이르는 것은 어쩌면 이미 없앨 것은 없어진 상태에서 편집한 것이니 이 정도야 伯夷의 採薇歌나 무광·기자의 麥秀之嘆의 예도 있으니 허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씨의 발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만곡의 구슬알이 어찌 흩어져 없어진 것이 없겠으며 石室에 보관하였으나 종이는 떨어지고 책벌레가 먹은 것이 때로 퍼 불적마다 눈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耘谷詩史』에 실려있는 것은 운곡 작품의 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운곡은 作詩에 있어서 唐의 杜甫의 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운곡이 타인의 시문집을 읽은 감상을 적은 것으로 陶淵明의 歸去來辭와 柳宗元文集외에는 讀杜集이 있을 뿐인데 특별히 두보에 대하여 「재조는 비할데 없고 성화는 아직도 파다하다」고 극찬하고, 이어 자신이 엉터리로 시 짓는 꼴이 우습다고 한 것이며, 「次金教授口號詩」에 「일생동안 의미조차 분명치 않은 시를 짓노라 너무나

도 수척했다」고 한 것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근심하는 시를 적은 것이나 편년체로 적어 내려간 것, 또 운율에 무척이나 노력한 흔적이라든가 시를 짓는데 온 정력을 다 기울인 점도 두보와 서로 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두보의에도 도연명의 초연한 태도와 그의 문장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운곡의 시는 우국충정 뿐만 아니라 사물을 묘사하는데도 뛰어난 수법을 보였으니 가히 러말선초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에는 政局에 관한 시는 겨우 「朝鮮」이라는 국호에 유래가 있다는 것과 태조 3년에 가서 「新國」이라는 시가 있을 뿐 거의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말년에 그의 작품이 거의 없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耘谷은 일찌기 당시의 정세로 보아 후대에 알려지지 않을 고려말기의 여러 사실을 直書한 野史 6卷(혹은 臧書 7卷이라 하기도 함)을 저술하여 비장하였다고 한다. 운곡은 그 책을 櫃속에 넣고 자물쇠로 꼭 봉해 두었다가 임종시에 유언하기를 “家廟에 감추어 두되 조심해서 지켜라” 하고 당부하고 상자 곁에다가 「내 자손들이 만일 나와 같지 않으면 열어보지 말라」고 글을 써서 붙였다.(어떤 기록에는 聖人이 아니면 열어 보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아들과 손자대까지는 열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후손들이 열어 보니 조선왕조의 忌諱에 저촉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은 우리 종족을 멸망시킬 물건” 이라고 하여 그 史書를 불살라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 사서에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는 전하지 않는 러말선초의 혼란과 격동기에 벌어진 많은 사연과 史實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나 제 세상을 만나지 못하여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비록 그 사서가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서가 운곡에 의하여 저술되었다는 사실은 당대의 양식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운곡의 학문적 태도와 인품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운곡은 세상의 名利를 사양하고 隱遁의 길을 택하였지만 미수 허목이 그의 詩史를 보고는 “군자는 숨어 살아도 세상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선생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은 분이 아니었다. 변함없이

道를 지켜 그 몸을 깨끗이 하였다”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윤곡은 늘 세상이 바로 다스려져서 국가가 융성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융성과 왕권의 안정은 임금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로지 현명한 신하들의 忠良한 보필없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윤곡은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德行으로서 “義・智・勇・忠”을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淸廉” “正直” “公平” “謹” “勤”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윤곡은 民心을 수습하고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政事를 펴 나가야 나라의 기틀이 견고해지고 盛業이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항상 赤子처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낄것을 강조하였다.

(3) 耘谷의 現實認識

고려왕조와 元과의 오랜 전쟁은 백성들의 유망, 농토의 황폐화 및 典籍 소실 등을 가져왔고, 그 이후의 계속된 정치적, 사회・경제적 혼란은 권세가들에게 토지점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공되었다. 당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附元輩들을 중심으로 한 權門勢族들로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私的인 大土地兼併을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토지점령에 따른 農莊의 확대, 인구집중에 의한 토지지배질서의 문란과 사회적 혼란은 경제개혁에서 최대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적 대토지점령의 진행에 따른 농장제의 성행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혼란은 고려왕조의 몰락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원천석은 공민왕 3년에 楊口郡에 이르러서는, 권문세족들이 백성의 田土를 占奪하여 人民을 소란케 하고 조세는 과중하여 송곳 하나 꽃을 만한 땅이라도 空閑地가 없고, 또 겨울이 되면 조세를 징수하는 무리들이 들이닥쳐 능히 조세를 내지 못하면 몸을 묶어 매달아 놓고는 笞刑을 가해 肌骨이 벗겨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결국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流離하는 실정을 직접 목도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어 대토지점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生業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을 탄식했다.

破屋에는 새들만 지저귀고	백성은 도망가고 吏 역시 없네
매년 폐단만 더하니	어느날에 즐거움을 누릴꼬
논밭은 權豪들에게 귀속되고 말았는데	문에는 포악한 이들이 연달으네
자식을 버림은 특히 애석하나	辛苦로 인한 것이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이러한 인식은 원천석 개인만의 우려는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공민왕 5년에 이루어지는 개혁도 부원배를 중심으로 하는 권문세족들의 반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백성들은 여전히 대토지점병에 따른 고통에서 헤어날 못하고 있었다.

공민왕대에 백성의 삶은 권문세족의 횡포에 의해서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통치력이 무력해진 데서 파생된 흥건적의 잦은 약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紅巾賊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여서 공민왕 10년에는 고려의 수도인 開城에 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흥건적의 침입은 공민왕 즉위 이래 적극 추진되어 오던 개혁정치를 크게 퇴색케 하는 등 고려의 대내외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데에서 원천석은 공민왕 3년에 흥건적의 세력이 강성해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흥건적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고려에 대한 약탈·침략이 일어날 것과 그에 따른 民生의 파탄 및 공민왕대에 추진되는 개혁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예기한 것이다.

공민왕 14년부터는 재차 개혁이 시도되는데, 이 시기에 있는 원천석의 求官意慾은 원천석의 생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그의 求官詩 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비추어 원천석 자신도 정치일선에 나가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자 했던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들은 대체로 공민왕 즉위를 전후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고 그후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出仕한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의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공민왕대에 이루어지는 개혁정치도 실패로 돌아가고 공민왕이 암살당한 후, 고려의 정국은 우왕의 즉위에 공을 세운 李仁任・林堅味・廉興邦 일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으로 대토지점병을 자행하였는데, 『高麗史』에서는 이들의 횡포에 대해 물푸레 채찍을 휘두르며 남의 땅을 마구 빼앗아 당시 이것을 가르켜 ‘水精木公文’이라고 까지 일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곧 우왕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賦額을 충당할 걱정을 하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하였다. 즉 그 당시 백성들은 조세와 부역에 시달리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원천석은 이인임 일파에 의해 자행되는 田民兼併을 비난하는 시를 읊고는, 이러한 토지 지배질서의 붕괴가 고려왕조의 멸망을 초래하리라고 예견하였다. 곧 자리(席) 말아가듯 토지 점병을 일삼고, 주머니속을 훔듯 良人을 奴婢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이러한 이인임 일파에 의해 자행되는 횡포를 ‘닭이 벌레잡듯 한다’고 비유하였다. 그리고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고려 멸망을 예견하고 있다.

산천을 奮占함은 자리 말아가듯 하고	노비를 窮搜함은 주머니속을 훔듯 하네
닭이 벌레잡듯 하는 것은 언제나 없어질까	하늘가를 바라보니 이미 석양일세.

이때는 우왕 13년(1387)으로 아직 고려왕조의 국운이 쇠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았으며, 고려의 멸망이 확실해지는 때는 우왕 14년 위화도 회군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때 원천석은 그의 학문적 안목에 의해서 고려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왕 14년 李仁任 일파의 제거 이후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崔瑩을 대표로 하는(권문세족을 포함한) 온건개선파와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급진개혁파였다. 온건개선파는 급진개혁파보다는 대체로 정치적 연륜이 오래고 따라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현실대응 논리를 펼쳤다. 이와 달리 급진개

혁파는 고려말기에 빚어진 사회 경제적모순을 武臣亂 이후의 제도문란으로만 보지 않았다. 즉, 이들은 고려왕조의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수립하자는 易姓革命의 논리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원천석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가 대토지사유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음은 앞의 글들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당시 급진개혁파에 의해 주장되고 있던 사전·농장의 전면적인 혁파안에 대해 찬성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급진개혁파의 견해에 동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시에서 고려왕조의 안정을 회구하고 고려왕조의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 즉 그는 왕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려왕실을 인정하고 왕실의 온존을 통해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온건개선파와 그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 멸망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우왕 14년에 일어난 위화도 회군이다. 곧 고려의 왕실 및 지배세력이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온 元의 쇠퇴와 明의 새로운 등장이라는 대륙의 정세변화와 그에 따라 利害와 政見을 달리하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두 정치세력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 할 수 있다. 우왕 14년 이인임 등의 일당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우고 정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성계와 최영은 그 정치적 입지·성향 등의 차이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崔瑩은 권문세족 혹은 온건개선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이성계는 급진개혁파들과 힘을 합친 新興武人勢力이었다. 이때에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가하여 고려를 자극하던 명나라가 다시 鐵嶺 以北의 땅을 회수하겠다는 鐵嶺衛 설치요구를 들고 나왔다.

원천석은 일찌기 崔瑩에 대해서 그의 명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지극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는 崔瑩이 비록 권문세족가문 출신으로서 이인임 정권에서 최고 실력자중 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청렴강직하고 오직 나라에 충성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고려왕조의 국가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토지점병을 자행하던 이인임 일파를 제거한 데에서 원천석은 崔瑩을 나라의 주춧돌로서 사직을 안정케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긴것 같다.

崔瑩과 李成桂가 우왕 14년 명의 첩령위 설치요구를 놓고 의견대립을 벌이다가 마침내 위화도에 까지 진군한 이성계가 회군을 단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원천석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어 崔瑩의 遼東征伐論과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한 그의 입장 및 최영에 대한 그의 인식태도를 보여준다.

용감한 군대 십여만이
바야흐로 요해의 길에 있는데
武威를 中原에 떨치면
웅당 개선하는 날
임금의 수명은 무강하여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어찌 강은 건너지 않고
가련한 都統公은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압록강을 건너려 하여
썩썩한 기운이 깃발 위에 떠 있네.
누가 감히 畏伏치 않으리오.
四夷가 모두 附屬하리라.
周武王의 발꿈치를 이어 밟으리.
더불어 태평곡을 부르리라.
분연히 말고뺨을 돌리는가.
홀로 원함을 사고 있네.
장차 큰 짐을 어찌 지탱할까.

위의 시에서 원천석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비난하고 崔瑩의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천석의 태도는 당시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 특히 온건개선파들과도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鄭夢周・李穡 등의 요동정벌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당대 지식인들의 역사관은 性理學的 歷史觀인 正統思想과 華夷思想을 받아 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異民族인 元의 중국지배는 정통이 될 수 없으며 漢民族인 明의 국가건국은 곧 당연한 역사적 순리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對明征伐인 요동정벌은 곧 정통사상이나 화이사상에 그릇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려의 운명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정벌은 곧 고려의 멸망을 초래하리라는 데까지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원천석이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대 지식인들의 정통사상이나 화이사상과는 달리, 원천석이 요동정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마도 그의 애국적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崔瑩과 마찬가지로 원천석은 明이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의 야욕을 민족의 자존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으며, 이에 崔瑩의 요동정

별 계획에 찬성의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위화도 회군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고려왕조의 몰락을 예견하였다. 즉 자신이 나라의 주춧돌로 여겼던 崔瑩이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빼앗기고는 유배를 당하자, “주춧돌이 위태로우니 장차 큰 집을 어떻게 지탱할까”하며 그가 없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천석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혁파들의 역성혁명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崔瑩을 개인의 인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서라기 보다는 고려왕실을 지탱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당시 최영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세력간의 다툼에서 최영의 입장에 찬성하고 그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최영은 바로 권문세족 및 온건개선파들과 그 입장을 같이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고려왕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려왕실의 온존하에 국가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영의 몰락으로서 이들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에게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주도권의 상실은 곧 온건개선파들이 추구하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원천석이 역성혁명을 예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뒤이어 이성계를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에 의해서 추진된 일련의 움직임 즉, 우왕의 廢位 및 창왕의 즉위, 최영의 죽음, 우왕과 창왕의 廢出 및 공양왕의 즉위, 우왕과 창왕에 대한 賜死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反高麗王室的 행위를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울분을 느끼고 비통해 하고 있다. 이에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즉위시킨데 대해서는 어찌 신하가 국왕을 存廢시킬 수 있는가 반문하면서 언젠가는 명명한 거울 앞에 그 罪過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후 최영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는 이성계를 ‘얼굴이 두겹다’고 극력 비난하고 당시 부세축리하여 이성계를 추종하던 무리들도 더불어 비난하고 있다. 그는 고려왕조에 절의를 맹세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당시 시류에 편승하여 날뛰던 무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성계가 다시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창왕을 廢出시키고 왕으로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듣던 定昌君 瑤를 공양왕으로 즉위시켜 고려왕실의 힘을 무능력하게 만들자, 원천석은 이성계를 비롯한 역성혁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내세운 명분은 그릇되며, 만일

우왕과 창왕이 王氏의 자손이 아닌 신돈의 자손이라면 왜 일찍 假・眞을 분간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힐문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고 있다.

前王 父子의 名分이 갈라지니
한몸을 庶人으로 삼았다 해도
태조대왕의 맹세가 하늘에 옹하여
假眞의 분간이 어찌 늦었겠는가

만리의 東西에 하늘의 낭떠러지
正名은 千古에 바뀌지 않으리
餘澤에 흘러 정해진지 수백년
저 하늘의 거울은 밝게 비추이네.

그는 이성계 일파가 내세운 명분을 과감히 그릇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 당시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으며, 반이성계파 특히 당대의 巨儒인 李穡조차 그 시비를 분명히 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그러나 원천석은 푸른 하늘이 있어 언젠가는 그 枉正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계파에 의해 자행된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어서 원천석은 이성계파의 배척을 받게 되는것 같다. 즉, 李穡・李崇仁 등 반이성계파의 제거를 단행하여 이들을 유배시키면서 정계에 참여하지 않은 원천석 또한 반이성계파로 주목, 정계처분을 당한 후 공양왕 2년(1390)에 赦免令을 받고 있다. 이는 비록 원천석이 중앙의 정치와 직접적인 연계는 안가졌지만, 그의 태도가 이성계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이에 이성계파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듯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가 확고한 원천석이었지만, 우왕・창왕의 賜死 소식을 듣고 지은 시에서 그의 다른 모습이 보인다. 곧 그는 우왕과 창왕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겨 슬퍼하고, 이성계 일파에 대해서는 임금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때는 오히려 태평하며 新法으로 淸平케 하면 道는 더욱 높으리라”고 하여 그 상황을 불가피한 현실로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는 원천석 또한 당대의 역사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인식인 듯하다. 즉, 당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흐름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일어나는 고려왕조의 몰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건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二元的 갈등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로서의 갈등이며 또 한편으로는 역성혁명

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서의 갈등이었다. 원천석 또한 이러한 갈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 건국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 급진개혁파들은 정계의 중추세력으로서 조선왕조의 기초가 되는 경제·법률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갔다. 이때에 이르러 온건개선팅파에 속했던 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 이들은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고려왕조에 대한 忠節이라는 면에서의 갈등과 한편으로는 조선왕조의 개국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면에서의 이원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면은 治隱 吉再에게서도 나타나며 야은 길재의 행적은 원천석의 행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길재는 고려말 유학계의 巨匠으로서 고려가 망한 후, 이에 대한 절의를 지켜 조선에서는 仕宦하지 않음으로써 절의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또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일대 변혁기를 거치면서 원천석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왕조의 건국을 천명의식에 입각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조선왕조 성립과정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 晩年에 그의 아들에게 조선 정계로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조선왕조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 자신은 곧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義理와 名分の 실천으로서 절의를 지키고 있지만, 조선왕조에 仕宦한 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新王朝에 대해 忠과 節義로서 섬길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길재의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길재의 인식은 길재 혼자만이 아니라 당대 모든 지식인들에게 수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려의 멸망에 즈음하여 적극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점, 조선왕조 건국에 적극적인 협조 내지 간접적 지원을 보낸 점, 고려왕조 멸망 후 절의를 지켜 조선정계에 진출하지 않거나 은둔해 버린 점 등은 모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천석 또한 고려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箕子의 遺風이 다시 펼쳐질 것이라고 하여 조선건국의 이념을 칭송하고 있는 이원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또한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고수하여 조선왕조에 仕宦하지 않았지만 조선왕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후 태조 3년(1394)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海東의 天地

에 鴻基가 열렸으며 綱常을 정돈한다고 하고, 王氏의 뒤를 이어 太祖가 왕위에 오르니 三韓의 國土는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일컬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원천석이 자신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易姓革命조차도 인정한 듯하다.

천명과 인심은 덕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새 왕조의 공은 하루아침 사이에 있었네.

위의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원천석은 天命과 人心은 德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므로 혁명의 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天命과 人心(民心)의 귀결로서 역성혁명(조선왕조의 건국)을 받아 들이고 있다. 이는 君主는 천명의 대행자이지만 天命・人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군주가 인정을 베풀지 않아 민심을 잃게 되면 천명・천심이 바뀌고 천명・천심이 바뀌면 군주도 바뀔수 있다고 하는 역성혁명의 이론과 그 틀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석은 이성계 일파가 역성혁명을 도모하면서 우왕과 창왕・최영・이색・정몽주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대해서는 그 명분의 그릇됨을 들어 극력 비난하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고려왕조의 몰락을 비통해 하였지만 조선왕조 건국이 확실히 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자 그 상황에 순응하고 더 나아가 역성혁명의 이론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석은 고려말 조선초의 역성혁명기를 산 지식인로서 현실에 직면하여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 만은 없었던 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주체성만은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와 충성은 끝까지 지키자 하였으며, 이에 ‘臣不事二君’이라 하여 조선왕조에서의 仕宦을 끝까지 거절하고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耘谷詩史』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왕 이전의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國家’로, 공양왕대까지는 ‘國’으로, 그 이후 조선왕조에 들어 와서는 새로운 나라라는 뜻의 ‘新國’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조선왕조에

대한 태도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4) 耘谷과 華海師全

『華海師全』은 고려말의 학자 申賢의 학문과 언행을 모아 엮은 책으로 “華海師”란 곧 중국의 원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東海 즉 고려의 스승이라는 의미로써 “華海師全”이란 華海師라고 할 수 있는 申賢과 관계된 모든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화해사전은 고려말의 학자로 原州 雉岳山에 은거한 耘谷 元天錫이 總斷하고 역시 고려 말기의 학자로 諫議大夫를 지냈으나 고려가 망함을 보고 萬壽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다고 하는 伏匿 范世東이 편집한 책이다. 이 화해사전은 혹 流說에 의하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고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 두 종류(1920년도 목판본, 1931년도 활자본)가 있다. 화해사전은 목판본은 7권 3책으로 되어 있고, 활자본은 4권 2책으로 되어 있어 있으며, 내용상에 있어서도 목차가 다르고 먼저 간행된 목판본의 내용이 활자본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추가된 부분도 있다.

화해사전이 알려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원)에서는 조선시대 동안 秘藏되어 오다가 1931년 姜永直이 군산에서 발견하여 원본의 誤字, 落書를 바로잡아 편집하여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화해사전이 1931년도에 처음으로 간행된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아마 1920년도에 간행된 목판인쇄본을 보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해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출처 경위를 상고하여 보건대, 華海師全은 1852년(철종 3) 湖西의 孔氏家에서 『話東人物叢記』(元耘谷이 總斷하고 范伏匿가 編輯함)가 나왔는데 이 文籍내에 華海師全이 실려 있었다고 하며, 또 華海師全(활자본) 後學撰述에 의하면 고종 4년(1867년)에 湖西 槐山에 거주하는 申秉玉(字는 聖範)이 關西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 투숙하였는데 그 집이 孔氏였다. 이튿날 비가와서 하루를 더 그집에서 留宿하게 되었는데 문득 그집의 시령

위를 보니 먼지에 쌓인 책이 몇권 있어 이를 살펴보니 이것이 곧 화해사전이었다고 한다. 성범이 놀라며 주인에게 그 책을 빌려가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간청하였으나 孔氏는 “나는 이 책이 누구 집안의 기록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家門에서 累代를 내려오면서 지켜온 책이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그 후손이라고 하나 허락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성범이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서 그 댓가를 좀 준비하여 와서 필사한다면 허락하겠느냐”고 하니 그제사 주인은 그러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후 聖範이 집으로 돌아와 약간의 금전을 준비하여 다시 그곳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연이어 兩親의 喪을 당하여 집을 뜨지 못하다가 고종 9년(1872년)이 되어 서야 공씨집을 찾았으나 공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다. 그 후 성범이 유생들이 連名으로 올리는 上疏에 참여하려고 서울에 올라 왔는데 하루는 우연히 鐘路거리에 나갔다가 문득 공씨를 만나게 되었다. 성범이 지난번의 부탁을 다시하니 공씨는 가는 길도 멀고 집도 좁으니 내가 대신 필사하여 가지고 내년 오늘 이곳에서 만나 책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이에 성범이 돈 열꾸러미를 건네 주면서 추후에 조금더 답례하겠노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이듬해에 과연 공씨가 필사한 책을 성범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

성범이 이 책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와서 자손들에게 각각 한질씩 필사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선조의 위협이 아직도 거두지 못한것이 있을까 두려워서 깊이 간직하고 내놓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 수백년 후에 화해사전이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화해사전은 申必熙・李恒植이 1920년 6월에 忠南 舒川郡 庇仁面 栗里祠에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 목판인쇄본(耘谷 元天錫 總斷, 伏厓 范世東 編輯으로 되어 있음)과 1931년 발간된 활자본이 있다. 그런데 前者는 序文 작성자가 李明植, 後者는 姜永直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편제(전자는 7권 3책, 후자는 4권 2책)나 목차 등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두 종류의 화해사전은 처음에 보면 활자본이 목판본을 母本으로 하여 새로 간행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활자본 서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1920년도에 간행된 목판본을 가지고 새로 편집하

여 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활자본에서는 신현을 중심으로 그와 가까운 항목을 차례로 목차의 앞쪽에 놓고, 관련이 적은 것이나 부록은 임의로 개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판본은 간행하게 된 경위가 자세하지 않고 단지 畿湖의 諸君子들이 널리 公議를 모아 선생의 후손인 必熙, 世休에게 청해 考訂을 얻어 출판하였다고 하였고, 활자본 서문에서 姜永直은 辛未年(1931년) 봄에 자신이 군산에 갔다가 우연히 시골집 부서진 상자속에서 화해사전을 얻게 되었다고 하여 화해사전이 알려지게 된 경위는 자세하지 않고 단지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元・范氏가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孔氏家에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화해사전이 편집되기전 포은 정몽주가 여러 제자들을 시켜 화해사전의 草稿들을 모아 耘谷에게 전하도록 하였는데 그중의 한사람이었던 孔明亮이 몰래 필사하여 두었던 것이 代代로 전해져 온 것이거나, 아니면 成思齊와 元耘谷, 范伏匡 집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 轉轉하여 孔氏家에 소장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耘谷이 서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華海師全(목판본) 跋尾에 의하면 처음에 신현 선생의 본국(고려)과 元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 제자들이 수집하여 12권으로 합성・편집하여 문도들에게 전파하였는데 普雨와 遍照(辛旽)가 史官을 시켜 그 事蹟을 찾아내어 모두 소각하고, 또 명을 내려 여러 가정에 산재되어 있는 것까지 수색하여 모두 소각해 버렸는데 간혹 깊이 숨겨두어서 내놓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그 家率들을 모두 奴婢로 만드는 까닭에 신현선생의 文籍이 전할 수가 없게 되었었다. 그 후에 花山 땅에 살던 金革과 그의 아들 三近(號는 謝隱)과 醇隱 申德隣, 春谷 安魯生, 石灘 李存吾, 圓齋 鄭樞 등의 문도들이 여러가지 서적에서 확인하고, 또 얻어들은 것들을 대강 수록해 두었던 것이 발각되어 문서가 소각된 것은 물론이고 石灘 李存吾와 圓齋 鄭樞의 집안이 모두 노비로 入籍되는 등 화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신현선생이 沒한(明나라에서) 후에 圃隱 鄭夢周, 潘南 朴尙衷, 籠庵 金澍, 牧隱 李穡 등이 선생의 事蹟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하여 8권으로 수록하여 책이름을 『華海師全』이라 하고 포은 정몽주에게 考訂토록 하였었다고 한다. 일찌기 포은이 이르기를 “우리 선생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적들이 世敎에

유익함이 될만한 것들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뿐이지만 다행히 또 발견되는 대로 찾아 모아서 작은 정성이라도 나타낼까 한다” 하고 뒤에 마침내 2卷을 더 보태서 편집을 成思齋에게 맡기면서 말하기를 “잘 保全하라”고 들려 보냈다고 한다.

신현이 일찌기 史官이었던 진자성의 조부가 그 아비를 위협하여 계모를 내몰아 刑曹로 하여금 처형토록 하였고, 권근의 아비 僞는 短喪으로 3개월만 복을 입었기 때문에 臺臣으로 하여금 탄핵하도록 주청하였고, 鄭道傳(九齋出身)이 처음 벼슬에 천거될 때 禡王에게 말하기를 “그 인물 됃됨이를 살펴 보건대 고려의 국세를 그르칠 인물이니 重任을 맡겨서는 안된다”라고 고한적이 있었다. 이때로부터 대대로 원수됨이 점차 심해져서 마침내 신현의 아우 치와 장손인 백청이 올린 상소가 문제화되면서 그들에게 신현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어 일부 家族이 주살되거나, 入籍奴婢, 文書燒却 등 대대적인 보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때 포은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 사람들은 힘써 구원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장차 신현에 관한 몇가지 기록만이라도 암송하였다가 비밀리에 전할 계획을 세웠다. 그 때 마침 집권자들이 임금을 江陵으로 추방하는 등 國事가 어지러워지면서 신현에 대한 조처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신현의 큰 道蹟이 이 때문에 다 없어져 전할 수가 없게 됃으로써 그 대강만이라도 다시 엮어서 몰래 원천석에게 부탁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하고 즉시 그날 밤으로 문인들 중에 생원인 牛來麟, 孔明亮, 房海範, 吉仁迪, 方萬化 등을 원천석에게 보내어 포은의 뜻을 전하였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이 수장하고 있던 자료도 운곡에게 보내어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안되어서 정몽주가 변을 당하게 되고, 두문동이 불타는 화를 입게 되었다. 宋因과 權近은 舊義를 배반하고 新利를 쫓았으니 본래는 신현의 제자들로서 그의 학통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터라 이에 권근은 그의 아비 원한을 갚으려고 송인을 불러 계책을 내고 정도전 등과 더불어 계유년(조선 개국 2년: 1393년)부터 심산유곡에 숨겨졌던 서적들도 일일이 찾아내어 불태워 버리고, 신현의 자손들의 집은 모두 몰수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노비의 籍에 넣었고 禍가 장차 주살 당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李來, 李宗茂, 趙溫 등이 나서서 애

써 구원하려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황희, 허조, 맹사성, 성석린, 정이오, 최관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신현의 종손인 概가 벼슬에 나가도록 설득하여 겨우 滅誅의 禍를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려말 조선초기의 격변기에 耘谷은 북애 범세동과 더불어 圃隱 등이 보낸 자료와 기타 수집한 申賢의 事蹟을 편집하여 『華海師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화해사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것 그대로를 원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여러 차례 再編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목판본(1920년판)은 7권 3책으로 되어 있으나 활자본(1931년판)은 4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8권의 규모였으나 중간에 유실되어 4권으로 엮었다고 하여 화해사전이 한차례의 편집으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준다.

화해사전은 목판본의 경우 1卷에는 本朝問對, 元主問答, 明朝問對, 2卷에 備耗, 出處, 3卷에 諸子問答, 家範, 4卷 簡齋先生笏書奏對, 5권 師全繼辭, 跋尾, 諸子論贊, 諸子敘述, 6卷 家學, 歷代轉理歌, 世獻, 7卷 東方淵源錄, 元耘谷居義, 後王誥忠情辭, 後王泣變陳情文, 大提學申伯清上疏, 附言志錄으로 되어 있고, 1931년도의 활자본은 1卷 備耗, 箴家範, 簡齋笏書, 2卷은 本朝奏對, 元主問答, 明朝聘問, 3卷은 出處大略, 跋尾, 師全繼辭, 諸子贊辭, 諸子敘述, 東方斯文淵源錄, 4卷은 부록으로 後學贊辭・後學撰述로 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간략히 내용을 보면(목판본) 卷1의 「本朝問對」에서는 고려 忠惠王・忠肅王과 王道政治, 唐代的 人君評, 斥佛尊儒論 등에 관하여 문답한 것이며, 「元主問答」은 元나라의 仁宗과 華夷의 구분, 政本과 人道, 先王의 大道, 老・佛學의 문제점을 문답한 것이고, 「明朝問對」에는 맹자의 民本思想을 반대하는 明太祖에게 맹자를 極口擁護하고 태조가 신현의 先親 등에게 贈職한 것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卷2의 「備耗」는 禹易東의 부탁에 따라 신현이 六經典籍과 宋代의 群書에서 요점만을 추려서 기록한 것이며, 「出處」에서는 문인들이 신현 선생의 출처・행적 가운데 앞선 글에서 누락된 것과 기타 여러 古事에 관한 내용이다.

卷3의 「諸子問答」은 제자・문인들과 학문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이고, 「家範」은 신현의 아우인 줍과 아들 用義 등이 성리학의 여러 문제에 대한 선인의 말을 엮어 편집・교정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신현에게 질정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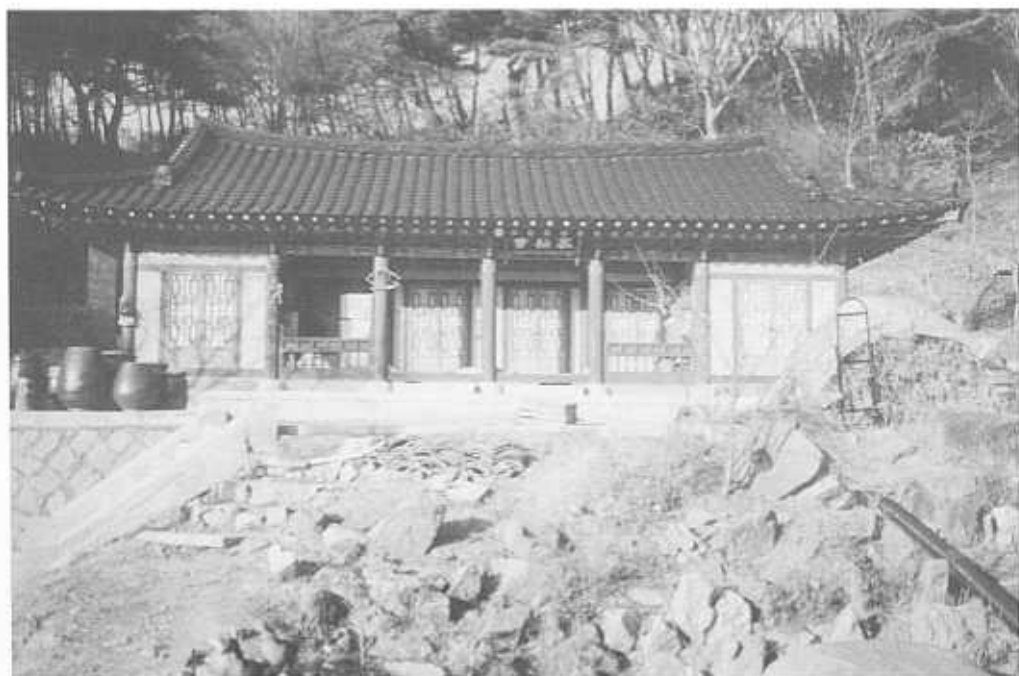
卷4의 「簡齋先生笏書奏對」는 우왕 7년(1381년) 용희가 명나라 태조와 신현이 학문 및 도학, 의리명분 등의 내용을 가지고 문답한 내용을 적은 것이며, 卷5의 「師全繼辭」는 元天錫의 생애에 관한 사실 중 누락된 것을 모아 정리한 것이며, 「跋尾」는 耘谷 元天錫이 이 책을 印刊하게 된 경위를 적은 것이다. 또 「諸子論贊」은 명나라의 대학자 宋濂을 비롯한 고려말 조선초의 여러 인사들의 신현에 대한 찬사를 모은 것이고, 「諸子敘述」은 정몽주와 원천석 등 문인 및 후학들이 스승의 학행에 대하여 추술한 글을 모은 것이다.

卷6의 「家學」, 「歷代轉理歌」, 「世獻」 簡齋 申用義를 비롯한 先祖 및 累代 후손의 간략한 행적 혹은 그와 관련되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卷7의 「東方淵源錄」에서는 유학의 道統에 속하는 薛聰, 申守忠, 崔冲, 金良鑑, 安珦, 禹倬, 申賢, 鄭夢周, 李穡, 徐顗 등 諸賢의 思想과 事蹟을 기술하였고, 「元耘谷居義」에는 元天錫의 節概와 事蹟이 기술되어 있으며, 「後王誥忠情辭」는 定昌君 瑤(후에 恭讓王)가 우왕을 폐하고 창왕이 즉위할 때 그 忠情을 적은 것이며, 「後王泣變陳情文」은 우왕과 창왕이 시해당한 변고를 定昌君이 陳情한 것으로 이 두가지 글은 이성계일파에 대한 원한에 찬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大提學申伯清上疏」는 신현의 손자인 伯清이 공양왕에게 이성계일파가 篡位하려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上疏한 것이며, 「言志錄」은 觀德齋 邊胤宗이 杜門洞 72賢에 관한 견문을 기술한 것이다.

화해사전은 고려말의 유학계통과 당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수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귀중한 문헌이 조선왕조 오백여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 또 『高麗史』나 그밖의 관련서적에서 신현이나 화해사전에 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목판본 이전에 존재하였던 화해사전의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 책이 후인의 杜撰이거나 僞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화해사전은 앞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 [사진 18] 耘谷 元天錫의 墓(所在地:原州市 杏邱洞 山37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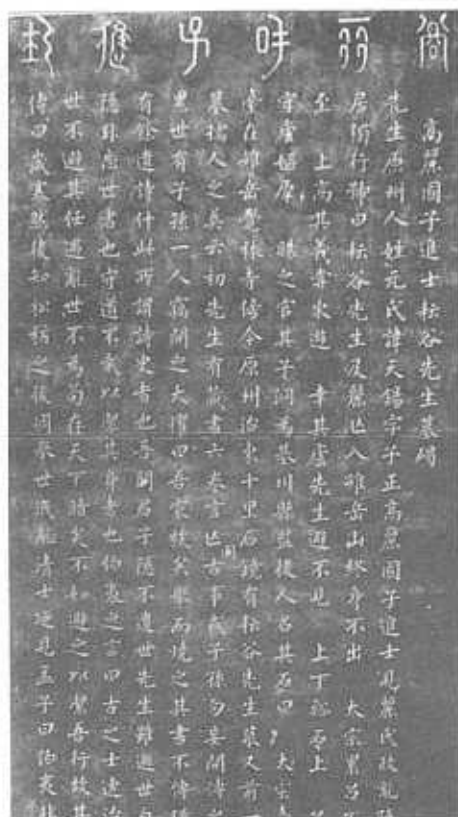
△ [사진 19] 墓耘寶(所在地:原州市 杏邱洞 山37番地)



△ [사진 20] 耘谷元天錫墓碣.



△ [사진 21] 元天錫墓碣文.



△ [사진 22] 元天錫墓碣文 拓本(前面), △ [사진 23] 元天錫墓碣文 拓本(後面)



△ [사진 24] 弁岩(雉岳山 1,200 고지)



△ [사진 25] 耘谷 元天錫先生 詩碑(所在地: 原州市 杏邱洞 山37番地).



△ [사진 26] 耘谷詩碑文.

2) 八溪君 鄭宗榮

(1) 緒 言

江原道에서 태어나 江原道가 緣故地로 된 人物 가운데 歷史的으로 알려진 人物이 여러 사람 있고, 그들이 江原道の 人物로서 대접 받는다는 그 나름대로의 相當한 緣由를 가지고 있으며, 그 活動領域이나 內容에 따라 文臣, 武臣, 學者, 節義 등 여러 領域으로 나누켜 評價되고 있다.

그런데 한 고을에서 그 고을 나름의 人物의 設定에 一定한 基準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移住할 수 있는 特性이 있어 태어난 곳, 成長地, 死沒地가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경우가 많다. 지난날 人物로 推仰을 받았던 사람치고 仕宦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드물고 仕宦길에 있었던 사람치고 生涯의 居住地가 特定 地域에 限定되었던 사람도 드물다.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라 거기서 仕宦하다 死沒한 사람이 없는 바는 아니나 서울 出身 以外の 사람으로 仕宦했던 사람의 경우는 거의가 生涯를 特定한 곳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通例이고 이리다 보니 人物의 地域性의 基準이 一定치 아니하여 本貫地 胎生地 成長地 死沒地 등에 따라 각기 그 고장 人物로 치부하려는 傾向이 있다. 本貫地, 胎生地, 成長地, 緣故地, 死沒地까지 同一할 경우에야 그가 어느 고장 人物이라는 것의 論議의 여지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同一 人物이 여러 고을에서 그 고을 人物로 등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것은 한 人物의 生涯가 特定한 地域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成長과 活動地가 다르다던가 出生과 終焉地가 다른데서 緣由했던 것으로 地方 出身의 人士로 서울서 仕宦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出生과 活動地가 다르게 마련이나 宦路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仕宦하기 위해 서울서 살았다 하여 서울 사람으로 여기는 일은 없고, 致仕하고 鄉里로 돌아 갔을 때는 그 鄉里의 人物로 여기는 것이 通例로 되어 보인다.

八溪君 鄭宗榮의 本貫은 草溪이고 草溪는 慶尙道에 있는 地名이므로 그의 本은

江原道는 아니다. 朝鮮朝時代의 人物論에서 첫머리에 그 人物이 어디 사람이라는 表現이 있다. 이를테면 ‘漢陽人’ ‘慶州人’ ‘德水人’ 등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이 그 것인데, 여기서 漢陽 慶州 德水는 地名으로 이 것은 그 人物의 本貫의 表示이지 그가 그 곳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자랐고 그 곳이 그의 死沒地라는, 生涯를 통한 直接的인 緣故地였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지난 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人物誌 가운데 반드시 記錄이 되어 있는 漢陽人, 慶州人, 德水人 등은 그 사람의 本貫地일 뿐이지 生涯와는 전혀 緣故가 없는 경우가 있다.

『朝鮮古今名賢傳』의 鄭宗榮欄에는 “字는 仁吉이요, 號는 恒齋요, 草溪人이다”라고 記錄이 되어 있다. 여기서 그를 草溪人이라고 한 것은 草溪가 그의 貫鄉이라는 말이지 草溪에서 나서 여기서 자라 草溪가 그의 生涯의 緣故地라는 뜻은 아니다. 그가 草溪에 언제 처음 갔었는지 그의 年譜에는 記錄이 없으나 그의 年譜에 의하면 明宗 18年 그의 나이 50세 때 봄에 慶尙觀察使가 되어 慶尙道에 赴任하여 管内를 巡視하다 草溪에 들렀다. 이 때의 記錄을 年譜에

巡到草溪 望拜始祖光儒侯墓 是時失墓 但記其爲玉田而已 故至洞口望拜

라고 있다. 人物誌 등에는 草溪人이라고 있기는 하나 그의 年譜에 의하면 그가 草溪에 발걸음 했던 것은 이 때 뿐인 것으로 되어 있으니 年譜에 의하더라도 草溪는 그의 本貫地일 뿐이고 그는 原州사람이다. 더욱이 그가 原州에 定着한 것이 그 當代의 일이라던가 四龕 以來의 일이고 四龕祖中の 윗대는 本貫地인 草溪에 墓所가 있었으면 省墓次라도 草溪에 더러 들렀을 터인데 八溪君 家門이 原州에 定着한 것은 年譜에 의하면 本人으로 六世가 된다 하였으니 原州에도 이미 親盡祖가 있었으므로 草溪에 省墓 길이 잦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어지지 아니 한다. 따라서 人物誌 등에 그를 草溪人이라고 表現한 것은 本貫地의 表現일 뿐 그 밖의 뜻은 생각할 수 없다.

그는 原州에서 나서 原州에서 자랐고 晩年에 致仕하고는 鄉里 原州로 물러왔으며 여기서 세상을 떠났고 墓所도 여기 原州 近郊 公根에 있고 더욱이 그는 後孫에게 한 遺言에 “原州를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그의 生涯로 보았을 때 그는 欠

格 없는 原州 사람이다.

現在 草溪 鄭氏는 우리나라의 大姓으로 發祥地인 경상도는 말 할 것도 없고 國內 各地方에 散居하고 있으며 江原道內에는 原州 橫城 江陵 襄陽 등지에 世居하고 있는 氏族으로 八溪君은 江原道에 살고 있는 草溪鄭氏 人物中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人物의 한 사람이다.

(2) 家 系

八溪君 鄭宗榮의 本貫은 草溪이고, 字는 吉仁이며, 號는 恒齋, 諡號는 靖憲公이며, 八溪君은 그의 君封으로 高麗侍中光儒侯弘文公 倍傑의 後孫이다. 弘文公 鄭倍傑은 草溪鄭氏의 始祖로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 의하면 高麗 顯宗 8년(1017)에 文科에 壯元하여 正宗 1년에 左拾遺知制誥를 지냈고 文宗 1년에 知貢舉를 겪고 禮部尙書中樞使를 지냈다. 高麗十二公徒의 하나인 私塾을 열어 後進의 教育에 힘을 썼고 그의 私塾을 弘文公徒라 불렀다. 弘文公의 아들 貞簡公도 學問으로 이름이 있고 名儒로 알려져 知貢舉에 천거되어 科舉를 主管하였으며, 그 後孫 鄭允耆, 鄭僖 등이 祖業을 이어 進賢館大提學이 되었던 學問하는 家門이었다.

八溪君의 曾祖는 武科에 及第하여 官職이 通政에 이르러 純忠補祚功臣 嘉善大夫 工曹參判에 贈職되고 草溪君으로 封君된 鄭溫으로 成宗 때에 일찍 致仕하고 原州에서 一生을 마치었던 사람이다. 祖父도 武科에 及第하여 國勳에 參靖하여 벼슬이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이르러 淸溪君으로 封君된 鄭允謙으로 資憲大夫 兵曹判書에 贈職되고 莊襄이라는 諡號를 받은 사람이다.

父親 鄭淑은 蔭仕로 벼슬이 縣監에 이르렀으며 八溪君이 貴하게 되었기에 그로 인하여 追尊되어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兼 判義禁府事로 贈職되고 草溪君에 封君되었다. 母親은 慶州金氏인 忠義衛宣略將軍 金季勳의 딸로 貞敬夫人에 贈職되었다.

八溪君의 家系 가운데 上代는 그만 두고 八溪君 中心의 直系尊屬에서 注目되는

것은 曾祖가 草溪君, 祖父가 淸溪君, 父親이 草溪君, 本人은 八溪君으로 4代가 연
이어 封君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4代 가운데 祖孫 兩代가 賜諡되어 4
代 封君에 祖孫 兩代 賜諡라는 보기도문 家系이다. 高麗時代의 先祖로는 知貢舉
進賢館大提學 등 文翰이 끊기지 아니하여 十二公徒의 私塾까지 열었던 쟁쟁한
文翰家였었으나 朝鮮朝에 와서는 曾祖와 祖父 兩代가 武科에 及第했고 八溪君에
와서 文科에 及第를 했다.

여기 八溪君의 家系 가운데 한가지 言及하고 넘어가야 할 사람에 鄭蘭貞이 있
다 鄭蘭貞은 庶出이기는 하나 八溪君과는 叔姪間이고 더욱이 鄭蘭貞이 當代의
世道家였던 尹元衡의 妾室이었기에 이러한 家系의 인척관계가 八溪君의 官歷과
交關되어진 것이 없었겠는가 하는 點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그의 家系 가운데서
鄭蘭貞은 한번은 言及하여야 할 戚親이다.

鄭蘭貞은 八溪君의 祖父인 鄭允謙의 妾室 所生이니 八溪君의 庶姑母가 된다.
그는 妾室 所生이었기에 자라 尹元衡의 妾室이 된 女人으로 20年 勢道를 부렸던
尹元衡의 뒤에 鄭蘭貞이 있고 鄭蘭貞이 八溪君의 庶姑母였던 탓으로 이러한 戚
分이 八溪君의 官歷과 交媾되는 점이 혹 있었지나 아니 할까 하는데 對하여 생각
을 머물게 할 수 있기에 尹元衡을 中心한 當時 政界의 事情을 잠간 살필 必要가
있다. 이에 앞서 尹元衡과 鄭蘭貞이 當時 政界나 社會에서 얼마나 嫉斥되었었는
나에 對하여 『朝野輯要』에

上欲誅元衡 一日臨筵 問漢文帝殺薄昭事 群臣知上意 遂論劾削出 百
姓投瓦石 至有欲射殺者 元衡潛往江陰 與妾蘭貞 日日對泣 元衡前妻金
氏告狀 蘭貞與元衡 飲藥死 罪通于天 自有陰誅

라는 記錄이 있다. 尹元衡과 鄭蘭貞의 行蹟이 이 記錄에는 詳述되어 있지는 아니
하나 妹氏인 文定王后를 등에 업은 그들의 行悖가 얼마나 甚하였던가를 짐작케
하는 글이다. 그런데 여기 八溪君과 連累될 수 있다는 假定을 할 수 있는 것이
鄭蘭貞이다. 婦女子의 社會活動이 禁忌로 되어있던 時期에 『朝野輯要』와 같은 野
史에 鄭蘭貞과 尹元衡이 함께 舉論되고 있다는 點을 注目치 아니 할 수 없다. 더
욱이 이 글에 內容은 위로는 君王으로 부터 아래로는 百姓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嫉斥 당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尹元衡과 鄭蘭貞이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鄭蘭貞이 尹元衡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事實與否는 別問題로 치더라도 이 記錄 대로라면 두사람이 함께 自殺해야 할 處地에 이르렀다 함은 鄭蘭貞의 計略이나 威勢가 어떠 했던가도 짐작이 간다. 八溪君의 庶叔이자 鄭蘭貞의 오라비인 鄭淡도 自己 누이인 鄭蘭貞을 嫉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東平見聞錄』에

鄭淡 號句齋 清溪君允謙之庶子 贊成宗榮之庶叔也 其同胞妹蘭貞 爲 尹元衡妾以文定王后命 封爲夫人 蘭貞既以正室自處 人亦畏禍不敢言 淡預知其必爲禍崇 引而自踈 未嘗有干請往來事 且淡之所居門內築牆 繞曲如羊腸狀 使不容屋橋出入 故蘭貞 亦不得往見 雖不顯加拒絕而 其所以絕之者深矣 及元衡敗 蘭貞死而 淡無所連累焉

라고 있다. 이에 의하면 鄭蘭貞은 그의 친오라비 조차 그가 장차 禍根이 될 것으로 여겨 동기간의 誼를 멀리하기 위하여 往來를 막으려고 가마가 出入하기 어렵게 길목을 좁게 꼬불려 놓고 鄭蘭貞의 出入을 妨害했고, 그 때문에 尹元衡이 敗하였을 때에도 鄭淡은 連累되지 아니하고 無事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鄭蘭貞과 鄭淡은 친남매간이고 鄭蘭貞과 八溪君은 戚誼로는 叔姪이나 嫡庶의 別이 있어 예사 叔姪과는 그 戚誼가 같지 아니하다. 지난날 우리 社會에서의 嫡庶는 社會的으로나 家庭的으로나 그 대우의 差別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 있다. 庶子였기 때문에 親父에게 아버지라는 號稱을 쓰지 못했고 嫡兄에게 呼兄을 못했던 것이다. 許筠의 洪吉童傳에 吉童이 庶子였기에 呼父 呼兄을 못했다고 있는 것이 小說속의 虛構나 假定이 아니고 現實이 그러했다. 따라서 嫡庶의 關係는 親等計寸으로 그 親疎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嫡庶라는 特殊狀況으로 헤아렸던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설사 親等計寸으로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예사 計寸의 觀念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嫡庶에 對한 社會的 通念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出衆했던 사람이 庶姑母가 當代의 權門世家의 妾室로 있다하여 거기에 緣을 대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은 推論이 可能하다. 친오라비 조차 忌하고 있는 人物에 清白錄에 錄選된 八溪君과 같은 人物이 庶姑母인 鄭蘭貞과 가까이 지냈을

리 없고 實錄을 비롯한 八溪君과 鄭蘭貞 關係의 記錄에도 두사람은 直接的으로
는 아무런 連累가 없는 家族關係로 되어 있다.

내용을 자세히 考究치 아니하고 자칫 外觀 만으로는 尹元衡이 20年 勢道を 부
렸고 그 뒤에 庶姑母인 鄭蘭貞이 있었던 것에 想到하여 40年 仕宦生活에서 六曹
判書와 四道觀察使를 지낸 華麗한 經歷의 裏面을 八溪君의 家族關係와 聯關시켜
생각해 보려고 할런지 모르나 上述한 바와 같이 八溪君과 鄭蘭貞은 家族關係로
嫡庶의 關係였을 뿐 그 밖에는 아무런 連累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다.

八溪君의 家族이나 姻戚關係에서 한사람 더 집고 넘어가야 할 사람에 尹元衡이
있고 尹元衡을 中心한 當時의 政界事情을 잠깐 살피기로 한다.

中宗 다음으로 王位를 계승한 임금이 仁宗이고 仁宗의 다음 代가 明宗이다. 仁
宗과 明宗은 代는 다르지 만은 두 임금이 다 같이 中宗의 아들로 仁宗과 明宗은
異腹兄弟간이다. 仁宗의 어머니는 章敬王后이고 明宗의 어머니는 文定王后로 그
背後에는 外戚인 尹任과 尹元衡이 있어 세상에서 前者 尹任을 大尹派라고 했고
後者 尹元衡을 小尹派라 하여 國權을 놓고 對立이 深刻하여 끝내는 乙巳土禍에
까지 번져 이 土禍로 大尹派가 去勢되고 文定王后와 그의 친정동생인 尹元衡의
20年 勢道政治가 시작되며 이러한 판국에 鄭蘭貞이 尹元衡의 妾室로 있었다.

이러한 八溪君과 當時 執權하고 있던 尹元衡과의 關係로 八溪君의 宦路에서의
出世에 혹 尹元衡의 庇護가 있지 않았냐고 推定할 수도 있으나 八溪君과 尹元衡
이 한때 같이 宦路에 있었던 것은 事實이나 當時 國秉을 휘어잡고 멋대로 行勢하
던 尹元衡과는 사이가 圓滿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친남매간에도 그들을
멀리 하였는데 嫡庶를 對하는 慣習으로 보거나 清白錄에 錄選된 八溪君의 성품
으로 보거나 尹元衡이 八溪君을 가까이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八溪君이 그를 멀
리 하여 두사람 사이에 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八溪君行狀에 의하면 吏曹佐
郎의 자리가 비었을 때 當時의 朝廷公論은 八溪君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
으나 尹元衡이 反對하여 八溪君이 吏曹佐郎에 就任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되고 八溪君 年譜 그의 50세 때의 記錄에

春授慶尙觀察使 尹元衡切屬及門客多爲守令 侍勢貪饕 元衡爲設盛餞

라는 句節이 있다. 八溪君이 慶尙觀察使로 가게 되자 慶尙道內의 守令들 가운데는 尹元衡의 門客이 많아 이들이 尹元衡을 믿고 방자한 짓을 많이 하였기에 尹元衡이 이들을 잘 보아 달라고 酒宴을 베풀어 부탁하였으나 任地에서 八溪君이 그 부탁을 들어 주지 아니하여 尹元衡의 憤을 샀던 것으로 보아 鄭蘭貞 때문에 八溪君과 尹元衡이 戚誼가 있었으나 그 戚誼 때문에 입은 恩誼는 없었고 오히려 그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하여 미움을 샀다.

八溪君의 行狀에

元衡之妾 公之庶三寸姑母也 元衡秉國舉世攀緣奔走 公獨毅然不赴終始一節 當乙巳禍作 元衡初不知公之心 而只恃姻婭之厚 初與論說 欲使參衡社之勳 公佯若不解聞者 元衡曰此 不可與議大事者 遂外之 怒其不附於己屢欲中之 禍在朝夕元衡妾母 乃莊襄之妾也 涕泣不食而責其女曰 汝欲害吾宗孫 何面目 見莊襄於地下乎 賴此得免焉

라는 句節이 있다. 이에 의하면 八溪君은 毅然하여 權勢에 아부치 아니하였으나 尹元衡이 八溪君과의 戚誼를 믿고 對하였으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怒하여 그 禍가 臨迫하여 위태롭게 되었을 때 八溪君의 庶祖母의 간청으로 危害를 모면하고 있다. 尹元衡이 國秉을 잡고 있을 때 그와의 戚誼를 내세워 出世의 方便으로 얼마든지 利用할 수 있었을 터인데 逆으로 尹元衡이 자기편이 되라는데도 이에 應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샀다. 八溪君의 華麗한 官歷이 자칫 國秉을 잡고 있던 尹元衡과의 戚誼와 交關되지 아니하였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事實은 그렇지 아니하여 긴 仕宦 속에서 尹元衡이와 姻婭가 된다하여 得되었던 일은 없고 오히려 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어려움에 處하였던 일은 있었다.

이러한 事蹟들을 하나 하나 列舉할 것 까지 없이 그가 『清白錄』에 錄選되었다는 하나 만으로도 그는 權門勢家였던 尹元衡과는 姻戚이었으면서 實際적으로는 그 關係를 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華麗한 官歷

八溪君은 中宗 8年 癸酉(1513) 11月 16일에 原州 東梨里에서 태어나 8세 때에 母親을 잃고 15세 때인 中宗 22年 丁亥에 寒暄堂의 弟子였던 慕齋 金安國에게서 受學하여 慕齋의 門人이 되었다. 師統이 뚜렷한 師門에서 敎育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年譜에도 “始就慕齋金先生受學”이라 있어 그것을 證左해 주고 있다. 그러면 15세 以前에는 敎育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 하다. 지난날의 敎育制度로 미루어 6,7세 되면 千字文을 배웠던 通例로 보아 그가 慕齋의 師門에 入門하기 前인 14세까지는 私塾에서 글 工夫를 이미 했을 것이고 慕齋의 門下에 들어가기 前까지의 7,8年 동안에 相當한 課工이 있었을 것이다.

21세 때에 性理大典을 읽었다는 年譜의 記錄으로 보면 어려서 부터 性理에 對한 關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8세 때인 中宗 35年에 生員 進士 兩試에 合格하였다. 이 때의 年譜에

中生進兩試 先生筆法妙絕 考官愛其筆法 藏其試券 藏在李尙書詰輔家云

이라고 있어 筆法이 絶妙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세 때에 柳氏와 結婚했으나 26세 때에 死別하고 29세 때에 李氏를 再娶하였고 31세 때인 中宗 38年에 文科式年殿試에 及第하여 承文正字의 벼슬에 올랐다. 年譜에 있는 承文正字는 承文院의 正字 벼슬로 承文院은 朝鮮朝職制로는 禮曹에 속하고 業務는 主로 事大交隣의 文書를 管掌하는 곳이며, 正字는 두사람이 있었고 品階는 正九品이다. 그는 가을에 科擧에 及第하여 그해 겨울에 承文院 正字라는 正九品の 末端官職에 出仕하여 四道の 觀察使와 六曹의 判書를 한조도 빼지 아니 하고 고루 거쳐 마침내 從一品 벼슬인 贊成에 올라 40余仕宦을 마치게 된다. 다음 해인 32세 때 가을에 같은 九品인 藝文館의 檢閱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예문관은 禮曹에 소속된 관아로 檢閱은 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아 보는 職責이었다.

33세 때에 같은 藝文館의 上位職인 正七品の 奉敎로 昇進하였다. 이 해 8월에 仁宗이 세상을 떠나자 土禍가 일어나 八溪君이 官路에서 첫 시련을 겪게 되고 이 土禍가 乙巳年에 일어 났다고 하여 乙巳土禍라고 한다. 이 乙巳土禍 때 大尹 쪽의 中心人物로 몰려 處刑된 當時의 領議政 柳灌은 八溪君의 妻叔父인데다 이 때 八溪君이 예문관에서 史筆을 잡고 있었기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때 같이 史官으로 있었던 同僚 安名世 白仁傑은 流配되었으나 八溪君은 免하였다. 이 때는 八溪君이 官路에 들어간지 不過 2年 밖에 되지 아니하는 日淺한 때인데 또 妻叔父가 大尹의 中心人物로 領議政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쫓겨 賜死되는 판국이었고 同僚 2名이 流配되는 狀況이었으므로, 이 때는 八溪君이 官路에서 겪는 첫 어려운 시기였다. 年譜에는 이 때 禍를 모면한 것이 天幸이라고 敍述되어 있을 뿐 오를 남겨진 그의 詩文中에 이 때의 心懷를 敍懷한 글이 없어 이 때의 그의 心懷를 짐작할 수는 없으나 精神的으로 받은 煩惱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時期이다.

다음 해인 34세 때에 成均館의 正六品 벼슬인 典籍으로 昇進하였다가 그 해에 禮曹를 떠나 司憲의 正六品官인 監察이 되었다가 그 해에 같은 六品官인 兵曹佐郎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겨울에 平安道の 評事가 된다. 評事도 品階는 六品官이나 八溪君은 이 때 처음으로 外職으로 나갔다. 처음 禮曹에서 仕宦하여 4年 만에 禮曹를 떠나 司憲府에 잠시 있다가 外職으로 나갔다. 여기서 그가 外職으로 나가게 된 緣由를 年譜에는

冬除平安評事 時柳相被禍延及族類 而先生秉心恭謹 行己無庇 故只於
外敍

라고 記錄되어 있다. 乙巳土禍의 中心人物이던 當時의 領議政 柳灌이 그의 妻叔父였다는 것은 이미 言及되었거니와 이 때 그 禍가 親戚에게 까지 미쳤으나 八溪君이 平素에 恭謹하여 行動에 잘못이 없어 禍亂의 核心과 姻戚이면서 禍를 免하고 다만 外職으로 나갔을 뿐이다.

35세 때 卽 明宗 2年 겨울에 戶曹正郎이 되어 內職으로 되돌아 왔으니 그가 平安道の 評事로 있던 것은 만 1年이다. 34세 때 겨울에 갔다가 35세 때 겨울에

戶曹正郎이 되어 任期도 채우지 않고 內職으로 왔는데, 이 것은 李浚慶이 關西에 갔다가 돌아와 八溪君을 力薦했던데 緣由한다. 이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外職에 가 있으면서도 좋은 政事를 했던 것으로 推論되고 이 것은 後日 그가 清白吏에 錄選된 것과도 無關하지 아니 하다.

36세에서 38세까지는 戶曹正郎 春秋 宣傳官 弘文館 副修撰,持平,檢理 등을 지냈다.

39세에 工曹正郎이 되어 副校理로 있다가 校理로 昇進하였고 그 해에 司憲府의 持平으로 옮겼다가 正四品인 掌令으로 昇進하려 했으나 尹元衡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尹元衡과 八溪君과는 姻婭로 八溪君이 尹元衡에게 아부치 아니하여 그의 미움을 사 두사람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해에 吏曹正郎의 자리가 비어 그 때의 論議가 八溪君이 適任者라 했으나 尹元衡의 방해로 就任하지 못하였다. 이 해에 副校理를 거쳐 從四品인 副應教가 되었다.

41세 때에 父親喪을 당하여 居廬 3年을 지내느라 官職에서 臨時 떠나 있다가 43세 卽 明宗 10年 乙卯年에 校理로 復職되어 그 해에 從三品官으로 昇進하여 司憲府 執義가 되었다가 다시 禮曹로 옮겨 典翰이 되었다.

44세 봄에 正三品の 直提學이 되고 45세 때 여름에 通政이 되어 堂上官인 正三品 刑曹參議가 된다. 31세에 九品官으로 처음 宦路에 오른지 14年 만에 堂上官이 되었다. 이 해에 同副承旨로 있다가 左承旨가 되었고 46세 때에 都承旨로 昇進하였다. 47세 때에는 大護軍 戶曹參議 吏曹參議를 지내고 겨울에 다시 都承旨가 되었다.

48세 되던 해 봄에 嘉善이 되어 從二品인 工曹參判으로 있다가 갑자기 故鄉인 江原道の 觀察使가 되어 還鄉했다. 이 것이 外職으로는 두번째이고 4개 道の 方伯을 지낸 그 첫번째의 方伯자리였다. 49세 때에 八溪君으로 封君되고 겨울에 漢城左尹이 되어 上京하였으니 江原道 觀察使로 있던지는 1年남짓 했다. 50세 때에 慶尙道 觀察使가 되었고 51세에 右尹이 되어 左尹으로 昇進하여 工曹參判兼同義禁으로 옮겼다. 겨울에 平安道 觀察使가 되었다. 四道 觀察使를 지낸 가운데서 가장 오래 任地에 있는 곳이 平安道로 51세에 가서 53세에 吏曹參判의 顯班에 오르게 되는데, 이 것을 年譜에서는 八溪君이 이 때에 처음으로 要職에 오른 것

은 이 때에 尹元衡이 失脚하여 그의 出世를 妨害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54세 봄에 兼副摠管이 되고 겨울에 判尹으로 兼都摠管이 되었다. 55세 봄에 進香使로 明나라 燕京에 갔다 왔고 겨울에 刑曹判書가 되어 처음으로 判書의 班列에 올랐으나 遠接使로 關西에 머물다가 다음해인 56세 봄에 서울로 돌아 왔다.

57세 때에 全羅道 觀察使로 나갔다가 58세 봄에 刑曹判書로 되돌아 온다. 59세 봄에 年譜에는 刑曹判書를 罷免 당하는데 그 理由에 關한 記錄은 없다. 이 때가 宣祖 4年 辛未年으로 그 해 가을에 다시 刑曹判書와 知經筵이 된다. 이 罷免이 그의 全仕宦中에서 단 한번 있었던 罷免으로 보이나 宣祖實錄 宣祖 4年 辛未年의 봄인 正月에서 3月까지의 實錄에는 이 事實이 나오지 아니하고 年譜에는 가을에 또 刑曹判書가 되었다고 있고, 實錄에는 宣祖 4年 辛未 7月 丙子日에 鄭宗榮을 刑曹判書로 삼는다고 있다. 이 해의 7月 1日이 辛酉이니 丙子是 16日이다. 59세 봄에 罷免되었다가 그 해 7月 16日에 復職이 되었으니 仕宦生活을 通하여 喪中을 除外하고 벼슬길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이 時期와 吏曹判書 때 金繼輝의 論核으로 잠시 사임했던 때 밖에 없다. 봄에 罷免되어 가을에 復職되었으니 그 空白은 한철로 길어야 3,4개월로 보이고 罷免되었다가 옛자리로 復職시켰던 것으로 보면 罷免의 事由가 釋然치 아니하였던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對하여는 年譜에도 言及이 없고 實錄에도 漏落되어 있으나 神道碑銘에는 “以執法 緩刑 卽忤當路罷免”으로 되어 있어 刑罰에 寬大했기에 當路의 미움을 사서 罷免되었다고 되어 있다.

60세에 禮曹判書가 되었다가 가을에 戶曹判書로 옮겨 備邊司堂上을 겸하였고 62세 때 가을에 兵曹判書로 옮겼다. 63세 가을에 吏曹判書가 되었으나 이 때는 이미 東西의 分黨이 있을 때라 金繼輝의 論核으로 辭任했다. 八溪君이 스스로 官職을 辭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64세 가을에 다시 吏曹判書가 되었으니 約 1年間 벼슬길에서 떠나 있었다. 65세 여름에 禮曹判書가 되었다가 正憲大夫로 昇進하고 가을에 工曹判書로 자리를 옮겨 六曹의 首長을 한 曹도 빠지 아니하고 고루 겪었다. 66세 봄에 右參贊, 다시 禮曹判書로 갔다가 67세 봄에 兵曹判書로 자리를 옮겼다.

68세에 崇政으로 昇進하여 議政府의 從一品職인 右贊成이 되었다. 이 때의 일을 年譜에는

春遞拜知敦寧遷右參贊 陞崇政擢拜右贊成 先生首望 金貴榮副望 有一持論者啓 上不允曰 新贊成國家之舊宰大臣之所舉 曾在先朝不媚於寵 逮及寡躬裨益弘多 其才其德周非不合 但不如時人之矯激耳

라고 있다. 從一品職은 八溪君 40年余의 宦路生活에서 마지막 職位로 그가 一品職인 贊成이 될 때 金貴榮과 두사람이 천거 되었으나 八溪君이 優先順位가 빨랐다. 八溪君을 贊成에 昇進시킨데 對하여 한사람의 論啓가 있었다고 年譜에 있다. 宣祖實錄에는 憲府에서 論核하였으나 宣祖가 듣지 아니 했고 兩司가 며칠동안 論했으나 宣祖는 “宗榮은三公의 자리에 앉아도 될 사람이라” 말 하고 이들의 論을 듣지 아니 하였다.

69세 겨울에 判義禁이 되었고 70세 봄에 예우를 목적으로 중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으로 나이 70세가 넘으면 들어가는 耆老所에 들었고 그 해 4월에 官職에서 물러날 것을 王에게 아뢰었으나 允許를 받지 못하고 가을에 判中樞가 되었다.

77세 때에 辭任이 允許되어 긴 仕宦生活을 마치고 故鄉인 原州로 隱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仕宦의 年令 卽 一般的 停年은 70세로 되어 있는듯 하나 간혹 例外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芝峰類說』에

七十而致仕者法也 而祖宗朝以來致仕者盖鮮矣 今古宰臣致仕者 惟八溪君 鄭宗榮 領府事 沈守慶 鄭琢 寧遠君洪可臣 外無聞焉

이라고 있다. 이에 의하면 70세에 退任하는 것이 朝鮮朝의 法이나 70세로 退任한 사람은 極히 드물어 『芝峰類說』의 著者が 光海君 때 사람인 李晳光이니 光海君 때까지 70세로 致仕했던 사람은 鄭宗榮, 沈守慶, 鄭琢, 洪可臣 外에는 알지 못한다 했다. 이 것 하나로도 八溪君이 얼마나 多福한 벼슬살이를 했던가를 알 수 있다.

八溪君은 그의 나이 31세 때 文科에 及第하고 그해 겨울에 承文正字라는 禮曹 官廳 弘文館의 末端인 九品에서 시작하여 77세에 退任하였으니 無慮 40년이 넘는 官歷을 가진 사람으로 이러한 點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아니한 存在이다. 40년이 넘는 仕宦에서 一時 물러났던 것은 41세에 父親喪을 당하고 43세에 脫喪 때까지의 喪中期間과 59세 때 봄에 罷免되어 가을에 復職 될 때까지의 3,4개월과 63세 때 金繼輝의 論該을 입고 辭任하였다가 다음 해 가을에 復職 될 때까지의 約 1年間이 空白의 全部이다. 喪中の 休任은 當時의 法度에 따른 것이니 이 것은 別問題이고 보면 40余年의 벼슬길에 休任했던 것은 1년남짓 했으니 宦海風波가甚하여 몇해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 禍中에 휩쓸렸던 當時 벼슬살이의 俗習으로 보았을 때는 드문 일이다. 더욱이 이 때는 大尹, 小尹의 派爭이 있었고 東西朋黨의 조짐도 고개를 들었고 乙巳士禍라고 하는 流配는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乙巳士禍까지 겪고 無事히 벼슬길을 마치고 隱退할 수 있었다는 것은 極히 드문 일로 여기에는 八溪君의 稟性이 크게 作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4) 稟 性

八溪君의 人性이 어떠하였던지에 關하여는 그의 文集이 남아 있으면 글이 사람의 稟性을 表象하기에 文集을 詳考하여 그의 人性의 대강을 窺知할 수 있겠으나 그의 遺稿가 불타버리고 없어 文集을 통한 窺察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다만 八溪君의 文集은 없으나 그가 類例가 드물게 오랜 期間 仕宦하였으므로, 그 동안 交分이 있었던 사람이 많아 간혹 交分이 있었던 사람의 文集에 그에 關한 글이 더러 있고 한편 그의 年譜, 行狀, 神道碑銘, 謚狀祭文, 輓詞 등을 資料로 그의 稟性을 살필 수 밖에는 달리 方法을 찾을 수 없다.

人性을 살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同一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과의 交分の 親疎에 따라 전혀 相反한 結果가 나올수 있는 것이 人性에 대한 批判이다. 더욱이 利害가 相反하는 處地에 있는 사람은 더구나 그리하여 得失에 따라 偏見이 생

겨 바로 보기가 어렵다. 八溪君은平生을 仕宦했고 그러다 보니 位階의 得失로 인한 人間關係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評判도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그는 東西의 朋黨이 싹튼 뒤에도 오래 仕宦하였으므로 色目에 따라 評이 다를 것이고 學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人性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上記한 여러 資料에서 다루고 있는 대로 紹介할 程度로 그치고 되도록이면 筆者의 主觀的 意見은 披瀝을 삼가기로 한다.

行狀이나 神道碑銘이나 謚狀에 나타난 것을 보면 八溪君은 人性이 極히 圓滿하면서 不偏不黨했던 것으로 보인다. 40年 仕宦生活에서 流配 한번 아니 가고 3,4개월간의 罷免期間이 한번 있었으나 이 것도 刑罰에 寬容했기에 當路의 미움을 사서 입었던 禍였다. 李端夏가 撰한 그의 神道碑銘에

恬靜却掃 不事交事 定力堅確 不爲威利所奪 見人過誤 專務蓋覆 人有毀己 若不問(草溪鄭氏 世譜所載 神道碑銘에 若不問으로 되어 있으나 文意로 보아 問은 聞의 誤記로 보임. 筆者註) 其人後自愧服

이라는 記錄이 있다. 神道碑라는 것을 아무나 함부로 세울수도 없거니와 이 撰者도 當代의 學德있는 사람에게 위촉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어 찬을 위촉하는 측이나 위촉을 받은 측이 다 신중을 期하게 되어 있고 碑文의 內容도 있었던 事實을 明確하게 記錄하게 되어 있어 偏見이나 誇張이 認定되지 아니한다. 이 碑文의 撰者 李端夏는 朝鮮朝 漢文學의 四大家의 한 사람인 澤堂 李植의 아들로 이 碑文은 그가 兩館大提學으로 있을 때 撰한 것이다. 兩館大提學으로 있는 사람이 意圖的 曲筆을 했을리 없고 보면 이 神道碑文의 內容이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다만 朝鮮朝에 朋黨이 생긴 뒤 師統과 色目에 따라 親疎는 있고 이 親疎에 따라 대상 人物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異議를 提起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神道碑文은 秘藏되는 글이 아니고 거리에 세워져 萬人에게 公開되는 글이기에 撰者는 이 點에 留意하여 撰하게 되고 따라서 意圖的 曲筆을 하지 아니 하는 것이 常識이기에 神道碑文은 額面대로 信憑이 가는 글이다. 八溪君의 사람됨을 나타낸 앞의 例示에 의하면 超然한데가 있었던 것 같다. 天性

이 非社交의이었던지 意圖的으로 社交를 避하였던지는 알 수 없으나 不必要한 人間關係를 많이 맺지 아니하고 自己 利益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他人의 잘못은 덮어주면서 自己를 陰害하는 일은 못들은 것으로 여겼다. 自己에게는 嚴格했으나 他人에게는 너그러웠고 집안의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家人에게 묻는 일이 없었고 宰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公服 以外에는 비단 옷을 입지 아니했다. 衰病하지 아니하면 가마를 타지 아니하였고 居室을 넓히지 아니하였으며 田園을 가지고 있으되 農幕하나를 꾸렸을 뿐이었다. 領議政 東臯 李浚慶은 八溪君을 精金美玉이라 했고 領議政 蘇齋 盧守愼은 鐵石肝腸이라 했고 南溟 曹植은 八溪君을 評한 詩에 “丹鳳高飛不待風”이라 했다. 精金美玉은 사람으로서의 資質이 純粹하고 高潔함을 이르고 있고 鐵石肝腸아리고 한 것은 담대하여 비굴하지 아니 함을 말함이고 丹鳳高飛不待風은 鳳이 바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듯 朋黨의 1員으로 先輩나 同僚에 의지하여 그 힘으로 자리를 지켰거나 出世하지 아니 하고 제 힘으로 仕宦生活을 하여 높은 位階에 까지 올랐음을 이르고 있는 말이다. 領議政 洪暹에게 어떤 사람이 八溪君의 사람됨을 물었더니 “太虛(判書 洪燾)는 清盜하여 少許可나 오직 某는 敬服해 마지 않는다”고 했다. 當代의 名流로 알려진 이러한 사람들의 八溪君에 對한 評은 그의 德性에서 緣由했던 것이라고 神道碑文에 있다. 그의 人性이 이러하였기에 權勢에 아부치 아니하고 正道를 살아 왔다. 앞서도 이미 言及된 바 있지만은 當時 執權의 核이었던 尹元衡과는 姻婭의 戚誼가 있어 尹元衡 쪽에서 오히려 親近하게 지내려고 했으나 正道에서 벗어난 것이라 여겼던 八溪君은 이를 멀리하여 미움을 샀던 일이 있어 그의 性稟의 剛直한 一面이 있었던 것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剛直性은 그가 慶尙道 觀察使로 發令되었을 때 이 곳 守令으로 尹元衡의 側近人이 많아 떠나기 前에 尹元衡이 八溪君에게 別宴을 베풀어 이들 側近들을 잘 보살피 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있다. 任地에 가 살펴 보니 尹元衡의 側近守令들은 尹元衡의 權勢를 등에 업고 行悖가 심하였으므로 사정없이 法대로 施行하여 尹元衡의 미움을 산 일이 있다. 慶尙道 觀察使로 있을 때 그 곳의 僧侶 한사람이 大妃의 命이라하고 禁忌로 되어 있는 仁宗 胎封의 樹木을 함부로 베었기에 이를 治罪하다 僧侶가 죽어 大妃의 大怒를 사 遞任에 까지 이르렀으나 三司가 들고 일어나고 成均館의 儒生

이 陳章하여 遞任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일이 있다. 성품이 강직하였기에 大妃의 命이라고 한 行爲도 처벌했던 것이고, 平素에 信望이 컸기에 이 問題에 三司와 太學生까지도 그를 庇護하고 나섰던 것이다.

八溪君의 行狀은 領議政으로 兩館大提學을 兼하고 있던 沈守慶이 撰하였다. 그는 行狀에서 八溪君의 性稟을

公性恬靜簡點 愷涕慈詳 局量弘毅 守於內者 篤實堅確 發於外者 溫雅
端重

이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八溪君은 성품이 조용하고 和樂하며 慈詳하면서 局量이 넓고 寬大하여 內剛外柔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사람을 差別하지 아니하였기에 親等이 먼 親戚이라 할지라도 그 門下에 드나들어 親父兄과 같이 우러렀고 財物에 對한 慾心이 없어 父喪을 마친 뒤 財産을 分財함에 있어 自己 몫까지를 庶弟妹에게 나누어 주어 門族들도 感歎했다는 記錄이 行狀에 있어 그의 사람됨의 一端을 엿보게 한다.

八溪君의 行狀에는 그의 長點이 여러가지 記錄되어 있으나 하나 하나 여기 枚舉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그의 사람 됨을 窺知 할 수 있는 두드러진 것 만 몇 더 들어 보면 그는 말수가 많지 아니하여 不必要한 사람과 對座하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 對하는데 差別이 없었으며 第三者의 일을 激論하는 법이 없었다. 말수가 적고 사람을 差別치 아니하여 남의 일에 對하여 激論하지 아니하였기에 慘禍에 걸려 넣을려 해도 핑계가 없어 긴 벼슬살이를 通하여 禍를 입었던 일이 없었다. 行狀에

其於元衡 不啻如氷炭 久積謙猜而卒不逞含沙之毒 人咸曰 公不附權奸
人或可學 其不爲權奸所害 人所不及 接物謙恭門無停客 莅事以莊 遇下
以禮 未嘗摘人私過 至於奴僕亦然

이라고 있다. 尹元衡과의 사이는 氷炭과 같은 사이였으나 陰害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이 八溪君이 權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은 배울만 하나 權奸들이 害하지 못하

는 것은 보통사람들은 미치지 못할 일이라고 하였다. 接物하는데 오만 불손하는 법이 없고 그 집 문앞에는 머무는 나그네가 없었다 한다. 문전에 찾아드는 나그네가 없었다는 것은 앞서의 不必要하게 人間關係를 맺지 아니하였다는 말과도 相通하는 말로, 不義의 請托이나 贈物이 許容되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이 句節은 後日 그가 清白錄에 錄選된 것과 關係되는 句節이다. 公職은 莊하게 섬겼고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은 禮로 對하였다. 남의 사사로운 과실을 지적하여 말하는 법이 없었고 이것은 집에서 부리는 奴僕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였다고 했으니 中庸의 道에서 벗어나지 아니 한 君子의 稟性이라 이를 人稟의 所有者로 보인다. 故鄉 原州에 先代부터 내려 오는 田庄이 있었으나 벼슬살이 50 年에 가서 돌본 일이 없고 家僮들이 或 免稅나 부역을 免하려고 하면 크게 꾸짖어 權勢에 의지하여 부역을 면하려 하려는 것이 社會를 어렵게 함이고 齊民하는 사람은 백성들 보다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집안 사람들을 일깨웠다.

이상 敘述한 內容 以外에도 行狀이나 神道碑에 그의 人稟의 훌륭함을 記錄한 句節이 많이 있으나 이 것은 通常 儒學者들에게서 더러 보이는 일이기에 省略하였다. 以上은 行狀 神道碑銘 謚狀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에 그를 좋게 본 글이고 實錄에는 上記한 글과는 다른 內容의 글이 있다. 앞서 잠깐 사람의 人性은 人間 關係의 親疎 등에 따라 同一한 사람인데도 그 評價가 전혀 相反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바 있고 더욱이 朝鮮朝에 朋黨이 생긴 뒤 부터는 節統 色目 등에 따라 人評의 角度가 달라져 한 사람을 제대로 評價하자면 그를 反對하는 처지에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을 살필 必要가 있다. 上述한 行狀 神道碑 謚狀 등은 다 八溪君과 特別한 關係에 있는 사람들의 글 다시 말하면 그나 그의 家門과 가까웠던 사람의 글이기에 그의 人間으로서의 否定的 側面的 內容의 글은 없다. 그러면 八溪君은 전혀 人間으로서 否定的 側面이 없는 사람이나 하면 人間の 普遍性으로 보아 그렇지 않을 것이고 實際 이러한 面이 記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들추어 본다는 것은 그의 普遍的 人間性을 理解 한다는데 뜻이 있을 것이다.

『宣祖實錄』 卷十二 六月 庚寅에

司諫院啓曰 社稷令權泳素有物議 典載李幼彥昏愚衰耗 廣興守尹先哲

貪墨諸罷 知經筵鄭宗榮 素無學識請遞 平安監司李俊民縱子利人 請罷其子囚禁依法治罪 答曰 李俊民可遞 鄭宗榮不可論也 餘依啓 鄭宗榮事後允之

라는 句節이 있다. 여기에 의하면 知經筵 鄭宗榮이 學識이 없으니 그 자리를 바꾸라고 司諫院에서 宣祖에게 啓를 올렸던 바 다른 事案은 다 啓대로 하라는 허락이 있었으나 鄭宗榮은 論하지 않았다가 뒤에 允許하였다고 있다. 이 事案을 分析하면 司諫院에서는 鄭宗榮을 學識이 없다고 했고 宣祖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論하지 않다가 뒤에 允許한 것으로 되어 있다. 司諫院의 啓를 다 들어 주었으나 鄭宗榮이 學識이 없으니 바꾸어야 하겠다는 事案만은 그 卽席에서 물리쳤으니 司諫院의 생각과 宣祖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어 가볍게 어느쪽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斷案할 수 없기에 八溪君의 學問이 어떠했든가를 行狀이나 諡狀 등에서 추려 보기로 한다. 行狀에 그가 慕齋에게서 글 工夫를 할 때는 己卯土禍가 있는지 멀지 아니하여 道學하던 선비가 된서리를 맞았을 때라 세상의 선비가 性理學을 다 꺼리던 때인데도 그 홀로 性理學의 研究에 독실하여 스승에게서 크게 칭찬을 받은 바 있고 그가 知經筵으로 있을 때 學識이 없다고 司諫院에서 啓를 올렸으나 그가 經筵에 들 때의 態度를 行狀에 “嘗入經筵 堂吏來呈 進講之冊則必明燭熟讀”이라는데 의하면 經筵進講 때만은 特히 신경을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한 쪽에서는 經筵官으로서 學識이 없다고 했고 王은 그 意見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으니 判斷의 根據는 이만하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가 學問을 좋아 하였다는 것은 行狀이나 諡狀 到處에 나타나고 있다. “日必夙興 正坐觀書”라던가 “自幼善病 猶不輟讀書功”이라던가 “接節四道 以興學務本爲先”이라던가 “居常夙興 竟日潛心書籍”이라던가 “時西方 專事弓馬 無意學問 公至誠教誨 設印書局 又立書院于平壤 數年之間 登司馬文科者接踵 士子慕公化育之恩 出入門下如子弟焉”라고 한 記錄들은 八溪君과 學問에 關한 記錄으로 司諫院에서 啓한 “素無學識”의 意味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內容들이다. 八溪君에 關한 記錄에 그가 文學則 漢詩文에 두드러졌다는 記錄은 없으나 學問에 熱中했다는 記錄은 上敍한 바와 같이 到處에 散見된다.

『宣祖修正實錄』卷之九 乙亥에 八溪君이 鄙俗하다하여 憲府에서 論該되었던 일이 있다.

以鄭宗榮 爲吏曹判書 憲府劾以鄙俗 上不許 遂以病免 宗榮厭士類 專擅簡接郎僚 李潑因子弟讎以親近後進 宗榮不從時金繼輝 爲大憲發論該之

이에 의하면 鄭宗榮을 吏曹判書를 삼으니 憲府에서 鄭宗榮이 鄙俗하다는 理由를 들어 마땅치 않음을 上奏했으나 王이 不許하여 끝내 病免하였다. 八溪君이 士類를 꺼려 郎僚의 書類로 決審하였다. 李潑이 親近한 後進들의 問題로 풍자한 바 있으나 그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金繼輝가 大憲이 되어 八溪君의 憚核을 論하였다. 이 問題에 對하여는 行狀에 그 內容이 실려 있다. 吏曹는 六曹의 首曹로 政府의 人事를 장악하고 있어 人事에 不滿이 있는 사람에게 의한 憚劾이 있게 마련인 곳이다. 그가 吏曹判書로 있을 때의 處事를 行狀에서는 當時 人才를 薦拔하는 것은 吏曹의 郎僚들인 탓으로 吏曹判書가 되면 반드시 이들과 私議를 하여 人事를 行하였는데 八溪君이 吏曹의 判書가 된 뒤에는 官廳에서만 이들과 人事에 關한 일을 論議하고 郎僚들이 사사롭게 人事問題를 八溪君의 집에 가지고 오면 門 조차 열어 주지 아니하여 그들의 미움을 샀다고 있다. 그러니 實錄에 그의 人性을 鄙俗하다고 있는 것은 人事問題가 自己 뜻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憚劾하기 위하여 했던 소리이지 아무런 得失이 없는 狀況에서의 公正한 人評으로 는 보이지 아니 한다. 또 그러한 기미가 있었기에 王도 그 憚劾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宣祖修正實錄』卷14 宣祖 13年 3月 庚子에

憲府劾新贊成鄭宗榮 才器短淺 素無物望 曾判政曹唯妾婦子弟之請 是徇以致賄賂輻輳 有債師之刺 此人豈合於貳公之列乎 請命改正 上不聽 兩司論之累日 上曰 宗榮可合三公 曾在先朝 不媚於竄逮事 寡躬裨益弘多 但不若今人之矯激 竟不允(宗榮不好儒不入黨 唯慎重自守 以此無時望 爲吏判時 郎官李潑每來謁 欲其同議進退人物 宗榮邈然不應 以此大失時望)

이에 의하면 八溪君이 贊成이 되었을 때 憲府에서 憚劾을 받은 일이 있다. 그 憚劾의 骨子是 그는 才器가 短淺하여 物望이 없어 贊成이 될 만한 人物이 못된다는 것이니 改正할 것을 請한데 대하여 王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八溪君을三公의 자리에도 합당한 사람이라 했다. ()안의 實錄의 註釋에 의하면 八溪君은 儒生을 좋아 하지 아니하여 朋黨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신중하게 自守하였으므로 時望이 없었다. 이 때 吏曹郎官 李潑이 늘 八溪君을 찾아 보고 人物의 進退를 함께 論하려 했으나 八溪君이 이에 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서 時望을 크게 잃었다는 것이다.

이 內容은 보기에 따라서는 八溪君의 人稟을 높일 수도 있고 朋黨에 따라서는 그의 人稟을 낮힐수도 있는 內容으로 一律적으로 어떻다고 斷案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상소가 있었으나 王이 그를 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두둔 했다는 것은 그대로 흘러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이상은 行狀이나 謚狀 神道碑文에 없는 八溪君을 憚劾했던 글들을 實錄에서 뽑아 본 것으로 여기 共通性이 있다면 거의가 人事와 관계 된데서 緣由하고 있다는 것이다. 人事에는 得과 失이 있게 마련이다. 자리는 하나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다. 이 때 得이 된 사람은 좋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워할 것이 自明하다. 따라서 朝鮮朝時代의 仕宦길에서 特히 人事 때문에 있는 人評은 正과 反을 함께 考慮에 넣어야 할 것이다. 政曹의 首長으로 있을 때 妾婦子弟의 請으로 뇌물이 輻輳했다고 있으나 『宣祖修正實錄』 卷23에는

自壬午年以後 累乞致仕 至是命家人 勿受月俸

이라는 句節에는 여러번 벼슬을 그만둘 것을 간청하고 家人에게 그달 부터의 月俸을 받지 말라고 命하였다. 같은 實錄에 실려 있는 글인데 前者는 뇌물이 이르렀다 하였고 後者는 當然히 받아야 할 俸給까지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相反이 너무 심하다. 그나마 이 두가지 內容이 比重에 差異가 있는 典籍에 실려 있으면 또 몰라도 꼭 같은 實錄에 실려 있으니 읽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八溪君이 致仕하고 鄉里 原州로 물러간 記事를 『宣祖修正實錄』 卷23 2月朔 戊

八溪君鄭宗榮致仕還鄉 宗榮有風疾 盡辭職名以勳封就第 自壬午以後累乞致仕 至是命家人勿受月俸 懇辭得請歸橫城鄉里 上命給驛馬護送 欲引見辭以步蹇 命中使賜餞江上 百官以下 傾都祖送觀者塞道 宗榮時年七十七 出身四十七年 本朝士大夫 功高名重者 多以禍敗終官 高年老者 不樂鄉居 而宗榮獨以恩禮 休致得返桑梓 朝野創見稱慕 以爲希代盛事之

八溪君 生前의 일로 實錄의 記事로서는 마지막 記事이다. 이 뒤에 肅宗實錄에 한 번 더 記錄이 있으나 이 것은 그의 諡號에 關한 記錄이기에 死後의 記錄이지 만은 生前의 記錄은 이 것이 마지막 實錄의 기록이다.

그가 科擧에 及第하여 致仕하고 鄉里로 돌아가기 까지의 歲月이 47年 그의 나이 77세 때의 일이다. 조정의 百官들이 그를 送行하러온 것은 勿論 서울 사람들이 그의 下鄉을 보려고 쏟아져 나와 길이 막혔다고 記錄이 되어 있다. 사사로운 個人의 記述이라면 親疎에 따른 加減을 생각 할 수 있겠으나 이 것은 實錄의 記錄이다. 이 記錄에 의하면 朝鮮朝의 士大夫로서 功이 높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 가운데 벼슬살이의 晩年에는 禍敗한 사람이 많아 晩年을 鄉里에 돌아가 한가하게 삶을 즐긴 사람이 없었는데 八溪君 홀로 이 즐거움을 맛보았으니 稀代의 盛事라 일렀다. 이러한 實錄의 記述로서도 그의 사람됨을 짐작 할 수 있다.

(5) 思想

八溪君의 思想을 考究하려는데 가장 重要한 資料가 그의 文集이나 八溪君의 文集이 오늘 남아 있지 아니하다. 後人이 八溪君을 쓴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그 評이 달라질 수 있어 八溪君研究에 하나의 資料는 되겠으나 그 資料 그대로 의지하기 어려운데가 있어 最善의 資料는 될 수 없고 亦是 最善의 資料는 八溪君이 直接 쓴 그의 文集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文集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世譜『恒齋先生遺稿』에

公之遺稿楊州公 庚寅丁未之火災 壬辰丙子之兵亂 并爲燒失 詩文若干篇 收集於各處而訛誤甚多 今不敢刪正 仍舊收錄焉

이라고 있어 本是는 遺稿가 있었는데 두번의 火災와 두번 겪은 兵亂으로 燒失되었고 各處에 詩文이 약간편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訛誤가甚하다고 하였다. 實際世譜에 남아 있는 약간편의 詩文으로는 그의 思想을 論謂하기에는 그 資料가 너무도 貧弱하여 論議의 對象이 되지 아니 한다.

이미 앞의 여러 項에서 그의 生涯나 사람됨의 대충을 論하였기에 그의 思想도 어렵듯이 짐작이 간다. 여기서 한마디로 思想이라고 했지 만은 事實은 그 範疇는 모호한데가 있다. 清白錄에 錄選된 그 바닥도 따지고 보면 그의 思想이고 朋黨에 依持하지 아니했던 것도 그의 思想이며 尹元衡과 같은 勢道家和 姻戚이면서 그에 아부치 아니 하였던 것도 그의 思想의 發露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點에서 살펴 보면 앞의 여러 項에서 이미 그의 思想의 相當部分은 論及이 된 셈이나 다만 學問에서 본 그의 思想은 論及이 없어 여기 思想의 項에서는 學問的 思想을 考究의 對象으로 삼겠으나 이 것이 學問的 思想이기에 絶對적으로 要求되는 것이 그의 文集이다. 그런데 그 文集이 없기에 行狀 諡狀 神道碑文 卽 他人이 그의 學問 思想을 어떻게 보았는가로 대신하기로 한다. 앞서도 말 한바와 같이 世譜에 약간편의 그의 詩文이 있기는 하나 그의 思想을 窺知할 資料는 되지 못한다.

여기 學問을 通해 본 思想이라 하면 우선 性理學 卽 道學과 詞章에서 본 思想이 가장 骨格이 될 뿐만 아니라 思想의 全部라 할 것이기에 이 側面에서 그의 思想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八溪君의 學問이나 思想의 宗旨를 한마디로 集約을 하면 性理學 卽 道學이다. 그의 行狀에 의하면

年至志學 從慕齋先生遊 時己卯未遠 性理之學 爲世所諱 公獨研窮諸劇 慕齋大加稱賞

이라는 句節이 있다. 이 句節은 그의 學問이나 思想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重要的 句節로 이 句節을 還言하면 그의 學問이나 思想이 集約된 句節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가 性理學에 뜻을 둔 것은 15세 때 慕齋에게 入門하여서 부터이다. 性理는 理氣之學으로 쉽게 解得이 되지 아니 하는 難澁한 學問으로 成人이 된 뒤 相當한 學問이나 思想의 蘊蓄없이는 論謂하기 어렵다는 것이 通例인데 그는 15세에 이 方面에 눈을 떴다. 더욱이 그가 性理學에 關心을 가지고 있을 때는 性理學을 主樞으로 삼은 道學派와 詞章派의 論爭에서 道學派가 밀려 數十名の 道學者가 폐죽음 했던 己卯士禍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다 性理學을 꺼려하던 때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그는 15세 어린 나이로 慕齋의 門下에서 세상이 꺼리는 性理學을 홀로 研鑽했다하니 그의 思想的 宗旨은 이것으로 決定을 본 셈이다. 어렸을 때의 이러한 學問的 態度는 老境에도 변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行狀에

性不好博奕絲竹之翫 晩年衰老之日 人或勸之而不從 不喜浮文 唯務力學 賦詩詠懷 有發於自然者

라고 있어 바둑 장기 風樂 등의 雜技를 즐기지 아니 하기에 晩年에 이제는 이러한 것을 하여도 無妨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권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러한 雜技를 하지 아니한 것은 道心を 涵養하는데 害롭다고 본 道學者의 態度이고 더욱이 浮文을 즐기지 아니하고 力學에 힘 썼다는 것은 그의 學問이나 思想이 道學에 있음을 말하여 주는 重要的 句節이다. 여기서 浮文은 詞章을 말하고 力學은 道學을 말 한다는 것은 더 說明할 餘地가 없고, 賦詩를 읊되 自然에서 發하였다는 것도 道學의 境地를 말하고 있다. 賦詩는 風月이지 그것이 어찌하여 道學이냐고 反問할지 몰라도 賦詩라 하여 그것이 다 詞章은 아니다.

漢詩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性情의 바른 발로이면 形式이 詩賦라 하여 다 詞章이라 볼 수는 없다. 道學者의 글 가운데도 賦詩가 많아 退溪도 그러하고 栗谷도 그러하다. 退溪의 醇正文學論은 文學을 詞章에서 본 것이 아니고 道學的 側面에서 본 것이고 栗谷의 『精言妙選』 序에

그는 살얼음판과 같이 處身하기 어려운 宦海에서 40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단 한번의 流配生活도 하지 아니 하였다. 刑曹判書로 있을 때 不過 몇개월 罷職되었던 일이 있었을 뿐 긴 宦海에서 風波를 겪지 아니하고 살아 온 드물게 보는 仕宦生涯를 지냈던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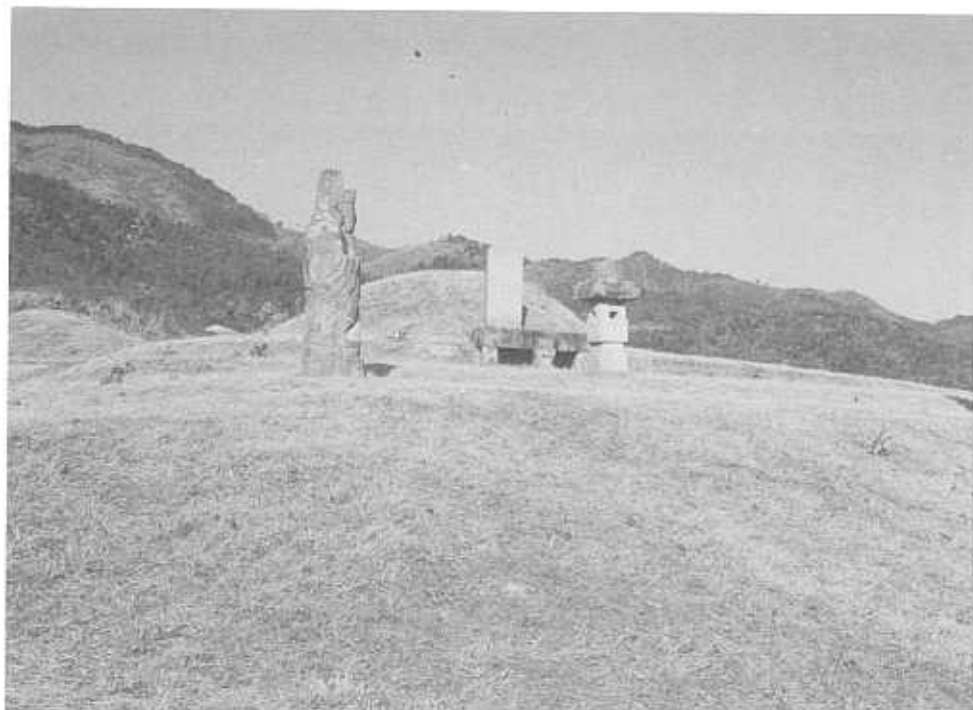
그가 이렇게 긴 세월을 통하여 平坦한 벼슬살이를 하게 된 裏面에는 그의 性稟이 뒷받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自己에게는 酷毒할 程度로 嚴하였으나 他人에게는 그 허물을 입밖에 내지 아니 할 程度로 寬柔하였고 이러한 性稟은 朋黨을 멀리하여 自力에 의한 벼슬살이를 했을 뿐 朋黨에 의지한 出世를 試圖하지 아니하여 南溟 曹植이 그를 일러 ‘丹鳳高飛不待風’이라고 까지 했다.

그의 學問이나 思想은 오늘 그의 文集이 傳하지 아니하여 전모를 詳考할 수는 없으나 그는 詞章보다는 道學을, 浮文보다는 性理를 窮究한 사람이다. 그가 15세 때에 慕齋의 門下에 들어 修學을 했는데 이 때가 마침 己卯士禍를 겪은지 오래지 아니하여 세상이 性理學을 꺼리고 있을 때인데도 道學에 뜻을 두어 스승에게서 極讚을 받은 바 있고 或 吟詠할 때에도 단순한 風月로 吟詠하지 아니하고 性情의 醇正한데서 나온 吟詠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學問이나 思想은 道學으로 一貫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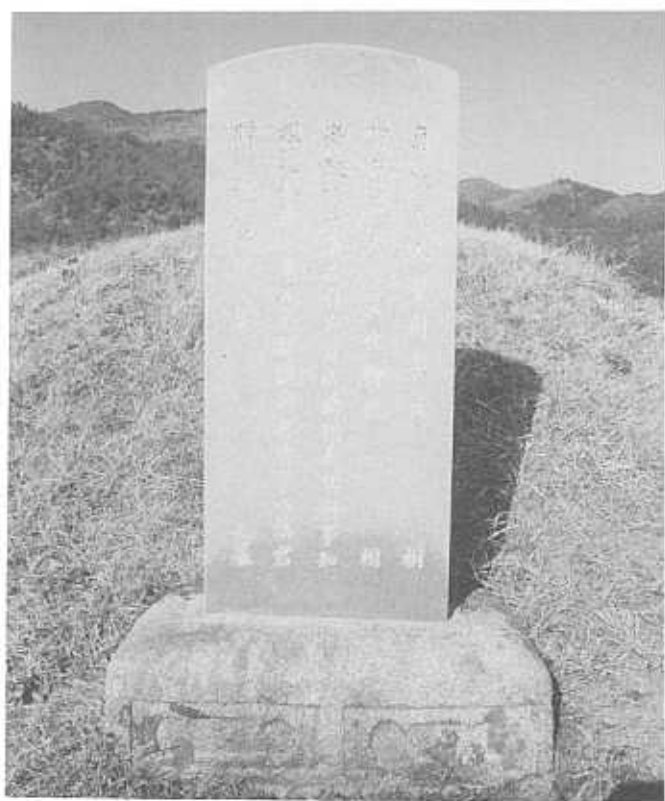
우리 歷史上 벼슬살이 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八溪君 만치 긴 仕宦期를 가졌던 사람도 드물고 그만큼 華麗한 經歷의 所有者도 드물다. 그가 이러한 經歷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學問과 人性에서 齎來하였다고 할 것이다.



△ [사진 27] 八溪君 鄭宗榮 影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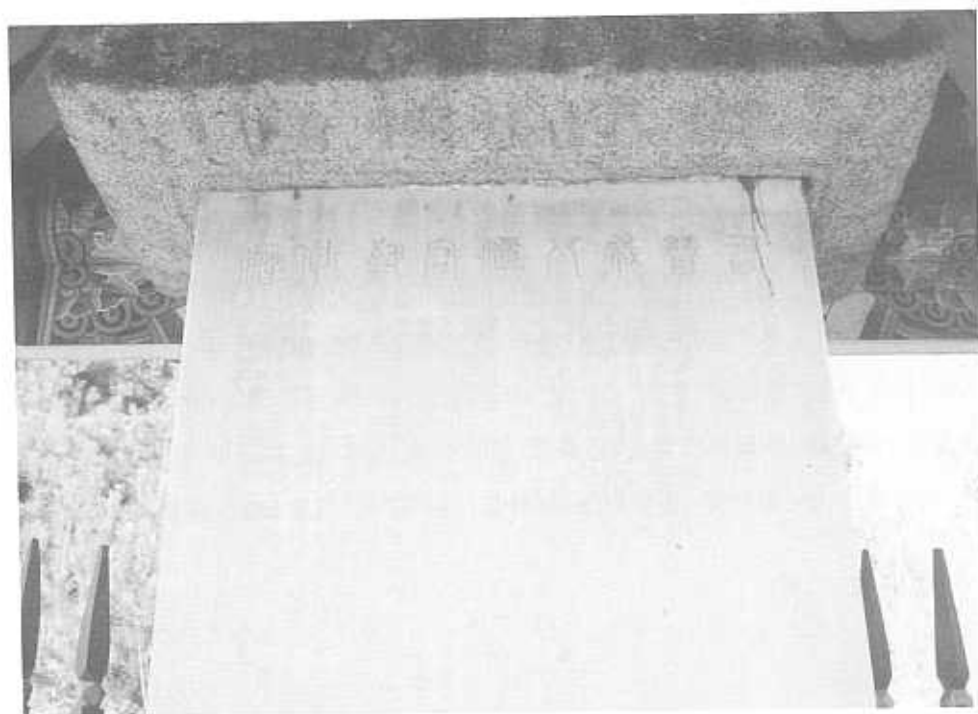
△ [사진 28] 八溪君 鄭宗榮墓(所在地:橫城郡 公根面 公根里),



◁ [사진 29]
八溪君墓碑.



△ [사진 30] 八溪君神道碑閣.



△ [사진 31] 八溪君神道碑.

3) 觀瀾 元昊

(1) 역사의 변동과 저항적인 삶

역사의 변동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 모습으로 대응한다. 첫째는 역사의 변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역사의 변동을 주도하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역사의 변동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역사의 변동, 그 자체에 항거하는 것이다. 셋째는 역사의 변동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역사의 참여, 또는 저항에 순응하면서 일상적 삶을 영위한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변동은 역사의 도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역사의 변동 그 자체에 기준을 두는 것이다)

元昊가 살던 시대는 분명히 역사의 변동기였다.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종 때에 이르면 정권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를 잇게 된다. 그러나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단종은 너무 어려서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 못된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왕위 찬탈에 성공한다. 즉 세종 - 문종 - 단종으로 이어져야 할 왕위계승이 수양대군의 왕위찬탈로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왕위에 오른다. 왕조시대에는 절대군주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면 그것 자체가 곧 역사의 변동이 된다. 이같은 역사 변동기에 世祖에 적극 협력했던 韓明澮, 權擘 등 37명의 癸酉 靖難功臣이 바로 참여파들이었다. 여기에 저항한 死六臣, 生六臣 등이 저항파들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시세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백성들이 곧 순응파라 할 수 있다. 元昊는 생육신의 한사람으로서, 사육신의 행동과 보다는 소극적인 생육신의 항거파로서 일생을 보냈다.

원호의 일생은 그러므로 저항적인 삶에서 진면목을 찾아볼 수 있다.

(2) 集賢殿 直提學 벼슬을 버렸다

원호는 조선왕조 태조 5년(1396) 4월 9일 당시 병조참판이었던 元憲의 둘째 아들로 지금의 원주시 개운동 송림에서 탄생했다. 15세에 이미 도학군자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26세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때가 세종 5년(1423). 그는 행정가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학자로서 벼슬이 직제학에 올랐다. 成三問, 鄭麟趾 등과 집현전 학사로서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했다. 단종 초기에 세조의 세력이 날로 커가는 것을 보고 직제학을 사직하고 원주의 南松村으로 낙향하여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원호는 계유정란(단종 1년 10월 10일)이 일어나지 않고, 金宗瑞와 같은 인물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세조의 왕위 찬탈이 없었다면 벼슬길이 순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선비로서 정상적으로 벼슬길로 나아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또한 학문을 닦아서 큰 학자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정난공신 37명 처럼 세조에 협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후에 세조가 戶曹參議 벼슬로 원호를 불렀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보증되어 있는 벼슬길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을 등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호의 선비정신을 엿볼수 있다. 원호로서는 세조의 단종폐위와 왕위찬탈, 단종유배 그리고 죽이는 일을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육신처럼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단종을 섬기는 일념에서 생육신으로서의 선비정신을 견지했다.

(3) 端宗의 流配地에 觀瀾亭을 짓다

원호는 계유정란에 이어 단종폐위가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원주 남송촌에 은거하는 것으로 선비정신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영월 유배지까지 따라갔다. 영월 청령포에 유배당하자 그 서쪽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다. 당호를 관란정이라 하고 흐르는 물에 시를 써 띄우고 슬피 읊었

다. 문을 닫고 독서를 하기도 했다. 시를 짓고 독서하는데 몰두했으나 마음은 항상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곳에 쏠아졌다. 단종이 유배된 곳을 향하여 울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것이 저항의 방식이었다.

당시는 뜻있는 선비들도 단종 유배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 접근하려 해도 군사가 지키고 있어서 불가능했고, 접근한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었다. 원호는 그랬기 때문에 단종 유배지 가까이 집을 짓고 단종의 안전을 빌면서 근심했다. 끝내 단종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죽은 시신은 嚴興道에 의해 비밀리에 매장된다. 원호는 단종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3년상을 입었다. 3년상의 복이 끝날때까지 원호는 관란정에서 기거했으며 관란정 밖을 나가지 않았다. 복을 끝내고서 원호는 원주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 왔으나 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호의 얼굴을 볼수가 없었다. 그의 조카 元孝然이 하인들을 데리지 않고 문간에 이르러 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원호는 세상 보기와 사람 보기를 철저히 싫어했다. 단종의 유배지에 집을 짓고 단종을 먼발치에서 섬기려던 마음가짐 몸가짐을 한치도 흐트르지 않았다.

(4) 節義를 끝까지 지킨 생활

조카 원효연은 문 밖에 병풍을 쳐놓고 원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절하고 돌아갔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3년 되던 해(1457년) 호조참의 벼슬을 원호에게 내리고 불렀다. 원호는 결코 응하지 않았다. 언제나 앓을 때는 동으로 향하고 잠잘때도 동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다. 단종의 능이 영월에 있었으므로 원주에서는 동쪽이 되는셈. 그래서 단종을 생각하는 일념으로 단종이 살아계신 것처럼 동쪽으로 향하였다. 그만큼 원호의 뜻은 더욱 굳어졌다.

마침 강원관찰사가 새로 부임했다. 평복으로 찾아갔으나 원호는 관찰사를 만나주지 않았다. 관찰사는 지나가는 나그네 처럼 원호를 찾았다. 마침 밭을 매고 있는 원호를 본 관찰사가 원호에게 밭을 매며 한가롭게 지내시는 몸이니 팔자가 좋

으신가 보다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원호는 그 과객(관찰사)에게 나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라는 말로 말을 끊어버렸다. 관찰사는 이제 세상이 좋아졌으니 좋은 세상에 나와 새 왕을 도와드리자고 청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간 원호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도 팽개치고, 세조의 끈질진 부름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절의를 지켜나갔다.

원호의 절의를 지킨 생애에 대해서 영월에 있는 「觀瀾亭遺墟碑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물러나게 되자 선생은 그 강 상류로 가서 흙을 모아 대를 쌓고 나무로 정자를 지어 날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되시는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밭에 물주고 김매어 채소 과일을 얻어서 빈 박통에 넣어서 수시로 강물에 띄워 청령포로 보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묘소 곁으로 가서 廬幕을 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처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곡하며 절하고 3년상을 치른 다음 원주 霧巷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닫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중략)

일찌기 선생이 정자에 계실 때에 이웃에 과부가 있어 남의 빨래를 해주느라 날마다 강가에 가면 언제나 선생이 먼저 나와서 정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이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으니 선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여기 온것은 우리 옛 임금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울며 말하기를 “제가 젊은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며 지내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선생님의 말씀들을 들으니 미친한 마음이 슬프고 미안합니다”하고 그만 중신토록 정절을 지켰다고 한다. ...(중략) 처음에 기미를 알고 처신한 일에 관해서는 알 수 있으나 나중에 절개를 다하는 일은 기록이 흩어져 자취가 없으니 알기가 어려운 일이다.

숙묘 24년(1698) 무인에 장릉을 추후 복위하고 당시의 절의있는 선비들을 표창하였는데, 특별히 선생의 집을 旌表하였으며 또 원주의 耘谷書院과 함안의 西山書院에 향사하였다. 그리고 정조 8년 갑진(1784)에는 시호를 내리어 貞簡이라 하였다.

영월사람들이 선생의 절의를 사모하는 마음 금할 바 없어 뜻을 모으고 방손(羽孫)이 그때 원주 수령이 되어 재물을 내고 감사 沈晉賢이 찬조하여 돌을 다듬어 비석을 세우려고 사람을 급히 보내어 내게 글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내가 일찌기 선생의 절개를 높이 추앙하고 선생의 뜻을 슬퍼하여 온

지 오랜터이라 그 전말을 적고 가사를 뒤에 붙이는 바이라. ...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5위도총부도총관 洪良浩 지음』

「관란정유허비기」는 원호가 절개를 지켰던 일과 당대의 선비들이 추앙했다는 점을 확실히 기술하고 있다. 비문을 지은 홍양호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七峰書院請享疏 등에는 원호에 대한 선비들의 숭앙했던 사연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칠봉서원청향소는 숙종 계미년에 生員 元鉞, 尹億 등이 올렸던 것이다.

『... 원호는 곧 신 등과 같은 고을 사람이므로 신 등이 예비나 노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의 기록을 참고하여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대개 원호는 英廟(世宗) 초년에 벼슬하기 시작하여 문종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벼슬을 역임하면서 문학과 명망이 당대에 높았으며 벼슬은 직제학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단종이 즉위하신 후 얼마 안되어 병으로 사면하고 고향으로 돌아 왔으며 단종이 영월로 물러나시게 되자 곧 영월고을 서쪽에 있는 사내평에 가 거처하면서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관란이라 하였습니다. 채마밭에 물 주고 김매며 목숨을 보존하고 몸을 숨겨 자취를 감추니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이번에 다행히도 정표하는 은전이 지하에 까지 미쳐서 사라져가는 자취가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되니 도리어 표창하는 은혜가 유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이 어른을 愛慕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아직도 부족함이 없지 않은바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원래 백대의 세월이 흐르고 천리를 건너 멀리 있어도 감동하는 것이 있고 또 이 분이 세우신 의연한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초나라, 월나라에서 듣더라도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른은 가까운 우리 고향에서 나으시고 평소 기거하시던 곳과 묘소도 우리 고향에 있는데 그 높은 절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으니 그 어른을 기리는 정성이 새삼 간절하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고향의 스승중에서 우리가 제사 모실 분은 이 분이 아니고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향 북쪽에 칠봉서원이 있는데 곧 고려조 진사 원천석을 제사 만드는 곳입니다. 그 절개나 의리에 있어서 前人이나 後人이나 모두 아름다워 하니 함께 배향하여 제사드리는데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성상께서는 六臣이 절개를 지키고 죽은 의리를 가상히 여기시어 魯湖의 縣額(숙종 17년 9월 왕이 노량진을 지나다가 6신의 묘를 보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드리게 하고 그 해 12월에 특별으로 6신의 관직을 회복

시키고 노량에 있는 6신 사당에 愍節書院이라는 御筆 縣板을 하사하여 춘추에 제사 드리게 했다)에 제사 지내게 하시니 文皇帝가 孝儒를 권장하는 의리를 오늘에 와서 다시 보게 하신 것인즉 성인이 하시는 일이 보통보다 만만배나 뛰어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호의 행적은 비록 6신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것으로서 그 충성과 절개가 함께 빛나는 것인즉 6신을 향사하게 한 오늘에 와서 그를 선현의 사당에 함께 배향함은 사리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신 등이 좋아하는 사람을 두둔하여 왕조의 은혜를 바라고 궁중의 은총을 빌어서 한 지방을 빛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배푸신 충절의 신하를 표창한 은전에 뒤이어 다시 여러 어진이에 대한 은전을 배푸시고 옛 사당에 제사드리게 하여 크게 포상 찬양하신다면 신 등 한 고을의 선비의 자랑과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사람들도 이 일로 인하여 옛 것을 기리고 추앙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르니 조정에서 義烈을 숭상하고 권장하는 길을 돕는 것이 어찌 적은 것이라 하겠습니까.

신 등이 이제 감히 주제님과 외람됨을 무릅쓰고 먼 길에 글을 올려 성상의 존엄하심을 번거롭게 하옵는 것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신 등의 절의를 崇慕하는 충정을 밝게 살펴시고 성조의 충의를 표창하는 은전을 배풀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시대가 다른 충의의 혼령이기는 하지만은 한 사당에서 제사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어찌 신 등의 사사로운 영광뿐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나라의 빛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신 등의 격하고 절박한 마음을 억누를수 없어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칠봉서원청향소에 대해 숙종 29년 10월 7일 동부승지 黃一夏 次知가 아뢰어 시행토록 재가하는 批答이 있었으며 재가의 내용대로 奉審하고 합하여 향사하는 일을 祠宇에 알리고 시행했다. 칠봉서원청향소는 고향에서 원호의 선비정신을 기리게 된 사유를 진술하게 기술하고 있다.

西山書院請享疏는 고향에서 먼 지역에서도 원호의 선비정신을 기리게 되는 사연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 “단종이 양위할 때 죽어서 절개를 지킨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塏, 柳誠源, 俞應孚 같은 6신이 있었으며, 살아 있으면서 의리를 지킨 신하로는 元昊, 金時習, 李孟專, 成聘壽, 南孝溫, 趙旅와 같은 분이 있었다. 그런데 저 6신에게는 언덕을 연하여 장사 지내고 향사하는데 사당을 함께 하였으니 생

육신도 그 예에 준하여 함께 제사드려야 할 것이다. 하물며 소리가 같으면 서로 웅하고 기개가 같으면 서로 구하게 되는 것인즉 6신의 군은 혼 의로운 것이 반드시 아득히 멀고 넓은 중에서도 함께 서려서 서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께서 거쳐하던 곳을 사모하면서 어찌 그 절개가 같은 것을 버릴수 있겠는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당 짓는 제도를 조금 넓혀서 함께 제사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봄부터 역사를 시작하여서 근일에 낙성하게 되었습니다. 초가을을 기하여 빨리 봉향하는 의식을 거행하려 하옵던 중 듣자온즉 조정에서 사당짓는 일을 금하니 반드시 위에 아뢰어 허락을 얻은 후에야 거행하게 되었다 합니다. (중략)

또 성삼문, 박팽년 등 여러 신하는 본시 동향이 아니고 같은 동리 사람도 아니요 그 중 박팽년이 대구사람이어서 그곳에 사당을 세운 것인데 그 절개를 함께 하였음을 미루어서 사육신의 신위를 함께 모시고 다같이 제사 드리도록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趙旅가 함안 사람이므로 그곳에 사당을 두어칸 늘려 짓고 그 절개를 높이 받들면서 6신을 함께 향사하려는 것이므로 원래 새로 사당을 창건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백산이라 하는 것은 연대가 다르지만 중국의 그것과 이름이 합치하며 그 절벽이 천길이나 높이 솟으니 앞으로 6신의 절개와 함께 길이 길이 우뚝 솟아있게 될 것인즉 이곳에 조려의 사당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당에 6신을 함께 향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절의를 숭상하는 규정을 넓히시고 의리를 추모하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條令에 구애없이 특별히 허락하시는 批答을 주시옵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세워진 廟屋을 이용해서 절의를 같이한 여러 사람을 함께 향사하여 밝은 시대의 성대한 은전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사들의 영령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하신다면 풍속과 명분을 바로하고 세상의 교화를 격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려의 사당에 원호, 김시습, 남효온, 성담수, 이맹전 등의 생육신을 제사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함안지방 선비들의 간절한 소망은 당대 선비들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릴수 있게 해달라는 疏狀에 대해 禮曹의 回啓는 “왕이 이르기를 계장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는 것이었다.

趙旅의 우뚝한 행적은 지금에 이르기 까지 혁혁히 빛나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으며 선비들의 疏狀에 적은 것을 보더라도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호, 김시습, 이맹전, 성담수, 남효온 등 다섯 사람은 조려와 더불어 살아서는 뜻을 같이 하고 죽어서는 기록을 같이하였으니 함께 향사하는 것이 예법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또 한 지방의 많은 선비들이 이미 의논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니 상소에 의한 청원대로 특별히 허락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충성을 표창하고 절개를 높이는 법전에 합당할까 생각합니다.

禮曹回啓(判書 閔鎭厚)는 당시 조려에 대한 영남지방의 숭앙하는 열기를 증언해 주고, 또 생육신에 대한 그것도 확인해 준다. 賜額을 청하는 상소는 여러 지방에서 올라왔다. 단순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선비들의 의식과 의지를 상소의 형식을 빌려 세상에 알렸던 것이다.

(5) 月計圖를 만든 애민사상

원호는 낙향할 때 포천 현감을 지낸 친우 權琛과 함께 내려왔다. 草屋을 마련하고 종적을 감추니 그 부근은 항상 안개가 자욱했다. 마을사람들은 원호가 살던 안개진 마을이라 해서 霧巷里라고 이름 지었다. 원호가 단종의 유배지 동쪽에 관란정을 짓고 살았으므로 호를 관란이라 했고, 이 무항리에 살았으므로 호를 또한 무항이라 했다. 원호의 호는 그래서 관란·무항 두개가 전한다.

원호가 낙향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것은 어디까지나 세조의 권력편을 등진 것이었다. 권력으로부터의 초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조와 그 권력의 추종자들을 못본채 한 것이지 백성들을 못본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호의 은둔은 어디까지나 권력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은둔이었다. 백성과 민중에 대해서 숨어 사는 것은 아니었다. 원호는 오히려 그런 권력에 의해 잘못될 수도 있는 민중을 옹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원호의 실천적 애민사상이 깃들어 있다.

원호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식량을 구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친구 권침과 함께 월계도를 만들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흉년을 막고 풍년을 맞이하도록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흉년 들고 풍년 드는 것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곡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미리 알게 하여 거기에 예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년 농사를 짓는데 天氣를 보아 흉년 풍년을 알게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오늘날의 과학영농이 시도되었다. 음력 대보름날 떠오르는 대보름달을 보고, 달을 보는 지정들에 월계의 6갑 40개 항에 맞추어 그해 天氣圖를 작성했다. 대보름 달맞이 하는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화전산에서 달을 보았다. 지정들 위에 월계를 놓고 대보름 달맞이 하는 덕고산의 고개 독바위골의 달 뜨는 곳을 향해 달의 지름의 중심 원점에서 부합되는 6갑 40항의 항목을 보았다. 농사의 곡식별 풍년 흉년을 점쳤다. 흉년이 들 때는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

월계도를 만들어 사용케 한 것은 과학영농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 농사가 아니라 천기를 보아 농사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었다. 농민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책만 읽는 선비가 할만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권력으로 부터 초극하여 농사짓는 일이 자기 한 몸의 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권력의 횡포로부터 구하는 길이라고 치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면서 백성을 또한 구원하는 애민사상의 실천적 제시였었다. 원호의 절의를 지키는 일, 은둔하는 일은 애민사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단순한 권력에의 저항, 역사변동의 항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元生夢遊錄의 주인공이 되다

무향리는 원주의 강원관찰사가 있는 곳과 가까운 거리였다. 원호는 官府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관리들의 왕래가 있을 것이므로 아예 관부와 먼 거리에 집을 옮겼다. 영월군 酒泉 산골 속으로 은거지를 옮겼다. 그는 여기에서 세조 10년(1464)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64세였다. 원주 무향골 남송에 묻혔다.

林梯는 후에 그의 문집인 白湖集에 원호를 등장시킨 한문 擬人小說 한 편을 남

졌다. 그 한문의인소설이 『원생몽유록』이다. 후세에 와서 사육신 생육신을 평가하는 모범이 되기도 했다. 원생, 즉 원호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설화 했다는 점에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를 당대 이후에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호의 저항적 삶을 우리는 『원생몽유록』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원생이라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뜻이 크고 강개심이 있었다.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관운이 없어 빈궁하게 보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서로 지냈다. 어느 가을 저녁 깜박 잠이 들었는데 자기 몸은 구름을 타고 어느 강가에 다다랐다. 그는 거기서 시 한수를 읊었다. 시를 읊고 나니 한 남자가 野服에 복건을 쓰고 나타나 절을 하고는 임금이 부르시니 곧 가자는 것이었다. 그는 그 남자를 따라 높은 정자에 다다르니 임금을 모시고 다섯 사람(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하위지 이개 등)이 앉아 있었다. 왕과 신하들은 원생을 반갑게 맞았다. 자리가 정하여 지자 고금의 국가흥망에 대하여 담론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한참 뒤에 그를 안내한 자가 “요·순·탕·무왕은 만고의 죄인인줄 압니다. 그들로 인해 후세에 임금자리를 뺏는 자가 양위를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물리치고서 湯武를 내세우니 세월이 천년이 흘러도 이것을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네 임금이야말로 말로 盜財의 효시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네 임금이 나쁜것이 아니라 美名을 빙자한 자들이 나쁘다고 말하고는 술을 가져오라 하여 각기 술로서 원한을 풀자고 하였다.

왕이 먼저 왕위를 빼앗긴 한을 시로 읊고 신하들이 차례로 왕에게 드리는 충성을 담은 시를 짓고 원생도 끝으로 시 한 수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 처량하게 읊었다. 그때 한 무인(유응부)이 들어오더니 썩은 선비들아 그대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할 것인가 하고 칼을 뽑아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춤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 하늘이 변하여 비가 오고 뇌성벽력이 내렸다. 놀라 깨니 꿈이었다. 원생은 후에 그 꿈 이야기를 梅月居士(金時習)에게 말했더니 그는 탄식하고 강개적인 시를 지었다. 『원생몽유록』은 생육신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원생, 즉 원호를 통해서 당대의 역사의식을 제시한다.

원호는 그러니까 역사변동기의 저항적 삶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높였다. 절의를 지키는 선비의 정신은 그러나 권력으로부터의 초극에 철저하면서

백성을 바르게 사랑하는데는 실천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원생몽유록』의 주인공으로서 사육신 생육신을 평가하는 역사의식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원생몽유록』이 원호의 선비정신을 찬양한 것이라면 李陸과 林孝憲의 觀瀾亭題詠은 원호의 모습을 숭배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鳴沙十里敵朱門
柳暗花明自一村
月上東溟波浩浩
風次西塞雨昏昏
蓬瀛未必三千隔
雲夢猶能八九吞
回首日邊何處是
只應端拱儼居尊

명사십리 아름다워라 주문보다 좋은 것을
버드나무 우거지고 꽃은 만발한데 한 마을 이루었네
동해에 달이 뜨니 물결도 넓고 큰데
바람부는 서쪽 땅에 비는 어이 몰아치나
봉래 영주 신선 사는곳 3천 세계 먼 곳 아닌데
운몽같은 큰 호수 몇번이고 삼킬수 있으리
머리 돌려 바라보니 님 계신 곳 어디인가
단정하게 앉은 모습 뵈일듯도 하옵니다.

-- 李陸「觀瀾亭題詠」

朝朝紅日未三竿
底事先生獨倚欄
臣節正應必宗海
道心匪是爲觀瀾
當年能使漂娥感
名樹猶存過客看
風物不敢旋復路
緇衣朱墨愧微官

아침에 뜬 붉은 해는 아직 높이 솟아 있는데
선생님은 무슨 일로 홀로 난간에 기대어 있나
신하의 곧은 절개 오직 한 길 뿐이니
의리를 가는 마음 물결 보기 위해서이라
그 옛날 그 모습 빨래하는 여인도 감동했는데
이름높은 그 정자 지금도 남아 있어 오고가는 나그네
우러러보네
경치 구경 다못하고 오던 길 돌아서니
초라한 선비미관 말직인 이내 몸 부끄럽네

-- 林孝憲 觀瀾亭題詠

두 편의 「관란정제영」, 즉 관란정을 두고 읊은 시편은 『원생몽유록』에서 보는 것처럼 원생의 선비정신을 흠모하고 숭앙하던 당대 선비들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실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7) 충절을 읊은 2편의 시조

원호는 2편의 시조를 남기고 있다. 하나는 首陽大君이 왕위를 찬탈하여 왕위에

오른 후에, 벼슬을 버리고 영월로 내려가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로부터 먼 발치에 머물면서 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주 남송촌에 은거했을 때의 심회를 읊은 것이다. 이 2편의 시조는 모두가 청빈하고 절의 있는 선비의 한결같은 忠節을 드러내고 있다.

간밤의 우뎀여울 슬피올어 지내여라 저물이 거스려 흐려고저 나도우러 너미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올어 보내도다

위에 인용한 시조에 얹힌 이야기는 영월군 서면 사내평에 石室을 만들고 살 때 매일 음식물과 서신을 표주박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내면 청령포 40리를 逆流하여 단종이 받아보았고, 단종이 떠내려 보내면 원호가 표주박을 받았다는 전설 속에 깃들여 있다. 원호의 충절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일화가 전설로 정착한 것이다. 이같은 일화나 전설을 빌리지 않더라도 흐르는 강물은 단종의 울음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냇물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의 이 슬픔과 눈물을 단종께서 알 것이다. 그같은 사연을 이 시조는 담고 있다. 이 시조는 영월로 흐르는 강물과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 그리고 그 강물에 단종과 원호 자신의 이어지는 공통된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위의 시조가 관란정에서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충절을 보여주는 시조라면 다음의 시조는 그가 원주 고향에 숨어살면서 그의 자연에의 귀의를 읊고 있다.

紫桑里 五柳村에 陶處士의 몸이 되어 白鶴이 知音하는지 우죽우죽 하더라.
줄없는 거문고를 소리없이 집었으니

원호는 원주 남송촌에 은거한 후부터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렸다. 소리 나는 거문고가 아니라 소리 나지않는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줄 없는 거문고를 타는데도 백학은 원호의 거문고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원호의 거문고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되었으며, 자연의 소리는 원호의 거문고 소리가 되었던 것이다. 자연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원호의 유유자적하는 삶이 이 시조에 무르녹아

있다. 손자 元叔康이 睿宗朝에 史官으로서 화를 입었을 때 원호는 평생에 저술했던 글과 疏章을 모두 불태웠고 또 경계하되 “다시 글을 읽어서 名利를 구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김시습은 伯夷요 원호는 오히려 6신 보다 높다고 하기까지 했다. 원호의 2편의 시조는 그러니까 모두 불태워진 문장 중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사육신과 생육신이 남긴 시조는 15수에 달한다. 성삼문 2편, 박팽년 2편, 하위지 2편, 유성원 1편, 유응부 2편, 이개 2편과 원호 2편, 김시습 2편 등이 그것이다. 사육신은 모두 1편 이상 시조를 남겼으나 생육신 중 조려, 성담수, 남효온 등이 1편도 시조를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문장력이나 시문을 즐긴 것으로 보아 시조를 지었을 것이나, 그들의 일생처럼 세상을 피해 살았기에 작품이 일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육신과 사육신의 시조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하나는 충절을 지키겠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연 속에 묻혀 자연이 되겠다는 것이다. 원호의 2편의 시조 -- 하나는 충절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속에 묻힌 생애를 나타낸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사육신의 충절을 읊은 시조와 자연을 읊은 시조는 그래서 원호의 2편의 시조와 대비된다.

이몸이 주거가서 무어시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야이서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 하리라
--- 성삼문

가마귀 눈비마자 회는듯 검노매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나
아마도 것회고 속검을슨 너뿐인가 하노라
--- 박팽년

간밤의 부던바람 눈서리 치단말가
낙낙장송이 다기우러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핀 꽃이야 닐르므습 하리오
--- 유응부

초당에 일이업서 거문고를 베고누어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타니
문전에 수성어적이 잠든 나를 깨와라
--- 유성원

방안에 뒹는춧불 놀과이별 하엿판대
깃트로 눈물리고 속타는줄 모르는고
저춧불 날과갈트여 속타는줄 모르도다
--- 이개

전원에 나른흥을 전나귀에 모도시키고
계산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해 琴書를 다스려라 나른해를 보내리라
--- 하위지

성삼문・박팽년・유응부・유성원・이개・하위지 등의 충절을 읊은 시조들은 한

결같이 선비로서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백하고 있다. 원호의 시조 또한 사육신의 그것과 의미를 같이한다. 원호의 「간밤의 우던여울」과 사육신 모두의 시조는 생각과 뜻이 통하는 것이다. 시조의 정조가 통하고 있어 충절의 시조로서 한데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자연으로 승화하는 모습을 그린 원호의 「자상리 오유촌에 ...」와 같은 자연을 읊은 시조는 유옹부의 「엇그제 부던 바람 ...」 정도가 상통성을 갖는다.

엇그제 부던바람 강호에도 부뒳단가 산림에 드런지 오래니 소식몰라 하노라.
滿江缸子들이 어이구려 지내연고 --- 유용부

원호가 자연을 읊은 시조와 유옹부가 자연을 읊은 시조는 같은 자연을 읊고 있지만 원호의 시조는 자연화 되어 있는 실상을 그린 것이고, 유옹부의 시조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사한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읊은 15편의 시조를 편의상 충절의 시조와 자연의 시조로 분류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충절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사육신·생육신들의 시조를 한데 묶어서 그 논지와 정서를 말할 때 ‘충절의 시조’라고 이름붙일 수 있겠다. 충절의 시조는 정몽주·원천석·길재 등이 지은 시조와 그 전통을 잇는다. 정몽주·원천석·길재 등의 충절의 시조와 사육신·생육신의 충절의 시조를 한데 묶어서 충절의 시조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전자가 왕조사의 변동을 그 내용으로 한다면 후자는 왕실의 변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충절의 시조가 저항의 시조로 재조명될 수도 있다. 시조문학, 나아가서 국문학상에 충절의 시조 -- 저항의 시조라는 등식이 만들어진다면, 원호의 시조가 사육신·생육신 중에서 완벽한 형식의 세련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충절의 시조하면 원호의 시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원호의 시조는 충절의 시조라는 명칭으로 큰 산맥을 이루는 것이다.

(8) 생육신 원호의 遺狀

생육신 원호의 일생을 우리는 다시 遺狀에서 만나게 된다. 을축년 동지일에 翬 珍 李泰一이 지은 것이다.

『선생의 성은 元이요 휘는 昊요 자는 子壚이며 自號하여 관란이라 하고 또 霧巷이라고도 하였다. 본관은 原州인데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한 益謙이 윗 조상이다. 4대를 이어와서 휘 弘弼은 門下侍中이요 휘 廣明은 宗簿寺令이며 휘 方甫는 贈吏曹參議이고 휘 憲은 兵曹參判이니 선생의 고조, 증조, 조부, 부친이 된다. 그리고 모친 원씨는 國子進士 天常의 딸인데 한 본이 아니다.

선생은 나면서부터 기품과 도량이 자상하고 밝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옛것을 중하게 여겼다. 永樂 계묘년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곧 조선조 세종 4년이었다.

이때부터 선생의 문학과 명망은 동료 친구들 간에서도 추중되었다. 일찌기 지방으로 나가 府尹이 되었는데 청백한 정치를 힘써 폄으로써 文宗朝에서는 集賢殿 直提學으로 특별히 召命을 받기도 하여 두 왕조에서의 대우가 융숭함에 감격하였다. 여러번 經筵에 모시면서 생각하는 바 뜻을 논하여 임금의 깨우치게 한 일도 여러번 있었으나 좋은 벼슬을 지내며 이름을 높히는 것은 선생의 근본 뜻이 아니었다.

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 광묘(世祖)의 威德이 날로 성대해지며 나라의 사정이 지극히 말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갔다.

여기서 선생은 세상일을 근심하고 즐거운 일이 없이 괴로워 하였으며 어두운 때에는 艱難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병을 구실로 관직을 사퇴하고 원주로 돌아갔다.

그후 계유(端宗 1년)에 芝峯 皇甫仁, 節齋 金宗瑞 등 여러 어진 신하들이 줄지에 처자까지 살육을 당하게 되니 선생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죽고 나라는 병이 든다”라고 하였다.

을해년에 和義君, 錦城大君 등 단종의 두 숙부가 잇달아 귀양을 가고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명이 있었는데 선생은 梅月, 烟村과 함께 시사를 논하다가 문득 흐느끼다 그치니 다른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병자년에 이르러 6신이 다 화를 입어 죽고 단종은 魯山君으로 降封되어 영월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두운 밤에 불도 없는 종로거리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西江의 청령포에 이르러 단종은 봄바람의 春風子規之詩와 달밤의 月夜女娘之歌를 부르니 온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전해 듣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하물며 선생의 마음이야 어떠했

으라.

선생은 원주에서 청령포 상류로 가서 흙을 모아 蠶를 만들고 나무로 정자를 짓고 이름하여 관란이라 하였으니 실은 단종을 위하여 가까이서 모시려는 생각에서 였다. 그 후로는 날마다 정자에 올라가 단종이 계신 곳을 우러러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앉거나 눕거나 간에 반드시 동쪽을 향하니 곧 동쪽은 단종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부인과 함께 채마 밭에 손수 물주고 김매어 가꾸어서 빈 박통에 담아 강물에 띄워 청령포로 보내어 御饌으로 올렸다. 반찬을 드리는 그릇은 그 모양이 북같이 생겼는데 접으면 깨와 같이 되고 펴면은 절상과 같이 되었다. 밤이 깊으면 혹 문후를 앞드려 드리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항상 찬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때에 이웃에 과부가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의 팔래를 하느라 날마다 강가에 나갔는데 언제나 선생이 먼저 정자에 나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선생이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너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옛 임금을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그 여인도 울며 말하기를 “제가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데 지내기가 어려워서 얼마 안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려 하였는데 이제 선생의 말씀들을 들으니 제가 미친한 여자이긴 하지만 마음이 송구스럽습니다”하고 종신토록 시집을 가지 않았다.

선생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이와 같았다.

선생이 은거하며 숨어 살으니 선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漁溪 趙旅, 挑村 李秀亨 두 사람만 도의의 친교가 있었으며 나라의 변혁을 당하여 살아있는 이상 목숨을 버려야 할 의리는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어야 할 책임이 없으므로 방황하며 슬퍼하다가 때로는 찾아서 서로 만났다. 선생이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다가 치악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 돌에 글씨를 써서 그 절개를 맹세하니 그때가 景泰 병자년(世祖 2년)이요 6신이 살육 당한 때였다.

대개 그 충성된 마음과 의로운 녀은 서로 의논하지 않고도 서로 천리 밖에서 마음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는가.

단종이 영월에서 해를 당하게 될 때에는 뇌성과 바람의 변이 있었고 검은 안개가 일어나 하늘의 경계도 깊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피가 흘러 붉은 옥이 되어 물위에 떠오르니 신하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요 이 무슨 천변이었던가.

선생은 화가 돌아올 것을 생각치 않고 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묘역에 廬幕을 짓고 거처하면서 3년상을 마쳤다. 그 후에는 다시 원주의 土室로 돌아가서 그 동리의 이름을 霧巷이라 하고 문단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말았다.

큰 조카인 원성군과 친구인 관찰사가 수행하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뱀기를 청하거나 사복으로 사사로이 만나자고 청하여도 선생은 모두 뿌리치고 거절하였으며 세조가 여러번 吏曹參議로 불렀지만 선생은 죽기를 맹세하며 끝내 나오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이상이 선생의 전후 출신 처세의 대략이다. (중략)

지금 선생의 글을 읽고 있으면 선생과 같이 지극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悲壯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이 세상을 탄식하는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동쪽 산을 바라보니 솔잎이 창창하네
그 솔잎 따라 쫓아서 주린 창자 요기나 할까
눈 앞은 까마득하고 저 하늘 한가한데
이네 마음 수심에 쌓여 구름속으로 들어가네
아아 백이, 숙제 아득한데 누구와 같이 벗하였던가
수양산에 올라 가서 고사리만 캐었다네

이 노래는 백이 숙제의 採薇歌와 천고에 변함없는 같은 곡조요 또 같은 句法으로서 史官이면 반드시 수록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몽유록 제1편은 더욱 비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長歌 短句 어느 하나도 충신 義士의 불우한 글이 아닌 것이 없어 지하의 귀신도 눈물을 흘리게 할만한 것이다. 이 글 가운데 군신간에 언급한 것을 보면 임금은 참으로 요·순 같은 성군이요 그 신하들은 모두 고요(皋陶)와 기(夔) 같은 어진 신하들이다. 이런 임금을 만났으니 위로는 요·순 시대와 같은 평화로운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아래로는 즐거운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일이 크게 잘못되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서 백이 숙제가 말 고삐를 잡고 諫하여 盧仲連이 바다로 뛰어 들어 가려던 것과 같은 義節만을 갖게 된 것이다. 오직 하늘과 해를 받들고자 온 힘을 기울였는데 뜻하지 않은 뇌성소리에 다 흩어져 버리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슬픈 일이었으랴.

(중략)

선생은 生六臣의 한분이다. 우리의 여섯 선생은 그 뜻이 같고 길이 같으며 傳記도 같고 享祀도 같으니 같지 않은 것이 없도다. 생각하건대 나의 선조 靖簡公 李孟專은 선생과 같은 점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선조께서는 기미를 보고 맹인 노릇을 하여 세상에서는 세 사람의 仁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선생 역시 기미를 보고 물러나 숨어서 箕子의 明夷의 가르침을 실천하였고 우리 선조는 단종의 복을 입을 뜻만 가졌었는데 선생께서는 3년 상을 입으셨고 우리 선조는 풀악의 소나무가 푸르르다 하였는데 선생께서는 산위에 소나무가 푸르르다 하였으며 우리 선조는 꿈속에서 길을 가는 시를 지으셨는데 선생께서는 또한 몽유록을 지으셨다.

대저 두 선생은 나라가 흔들리고 불안한 때를 당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떨어져 살았는데 같은 조정에서 서로 만났는지 못만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슴속에 가득찬 인과 의는 입을 통하여 말하면 곧 인이 되고 의가 되니 두 선생은 서로 구태여 같은 말을 하고자 하지 않아도 자연히 말을 하면 같아지고 구태여 같은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행동이 같아져서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같았으니 어찌 함께 도모했다고 할 것인가.

선생의 글은 즉 千古不刊의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행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의 여러 어진 후손들이 그 글이 알려지지 않으므로 해서 程書와 같이 글의 근본을 잃지나 앎을까 염려하여 원근의 선비들과 더불어 揚, 張의 편집 수정하던 일을 본받아 과분하게도 나에게 청하니 이는 아마도 같은 조정에서 같이 의리를 지킨 가문인 까닭일 것이다. (중 략)

그러나 정작 선생에 관하여 쓰고자 하니 그 자료는 옛 사람들의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빠진 것을 보충할 따름이니 어찌 감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겠는가. 후세의 학자들이 말을 살펴서 그 뜻을 구하고 자취를 상고하여 그 행적을 다시 더듬는다면 선생의 참다운 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풍속 교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선생의 부인은 영월 辛氏 보승낭장 乙賢의 딸이다. 4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孝行은 생원이요, 차남 孝廉은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지냈으며, 삼남 孝乾은 진사로 교수를 지냈고, 4남 孝坤은 역시 진사로 현감을 지냈다. 그리고 딸은 吳致宗에게 출가하였다.

효행에게 다섯 아들이 있으니 伯經, 伯經은 진사요, 仲經, 伯綺는 참봉이요, 伯紋이 있었다. 효렴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으니 孟康은 문과에 급제하여 翰林으로 贈職 大司成이었으며, 仲康은 司醴直長이요, 叔康은 문과로 한림에 있었는데 史官으로서 역사를 바로 써서 화를 입고 죽었는데 후에 謚號를 貞愍이라 하였으며, 네째 아들은 季康이었다. 孝乾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哲卿, 漢卿은 진사요, 沃卿은 생원이며 증직 참의이다. 여타는 기록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한다.

선생은 손자 숙강이 화를 입어 죽게 되자 평생 지은 글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 버렸으므로 집에 남아 있는 문헌이 없어 관직의 경력, 행적, 생졸 년월 일 등을 모두 상고할 수가 없다.

선생의 묘는 원주 고을 남쪽 10리의 南松村 丑坐 언덕에 있으며 부인의 묘는 같은 산발에 분묘는 따로 모셔져 있다. 묘표와 비석이 있으니 明谷 崔錫鼎 공이 글을 지었다.

삼가 주어 모아 행적을 적은 글을 만들어 후일 잘 아는 사람의 채택 보충을 기대하는 바이다. 을축년 동지일 碧珍 李泰一 지음.



△ [사진 32] 觀瀾 元昊墓(所在地:原州郡 板富面 瑞谷里)



◁ [사진 33]
觀瀾 元昊墓碑.



△ [사진 34] 貞簡齋(所在地:原州郡 板富面 瑞谷里)



◁ [사진 35]
貞簡齋重建獻誠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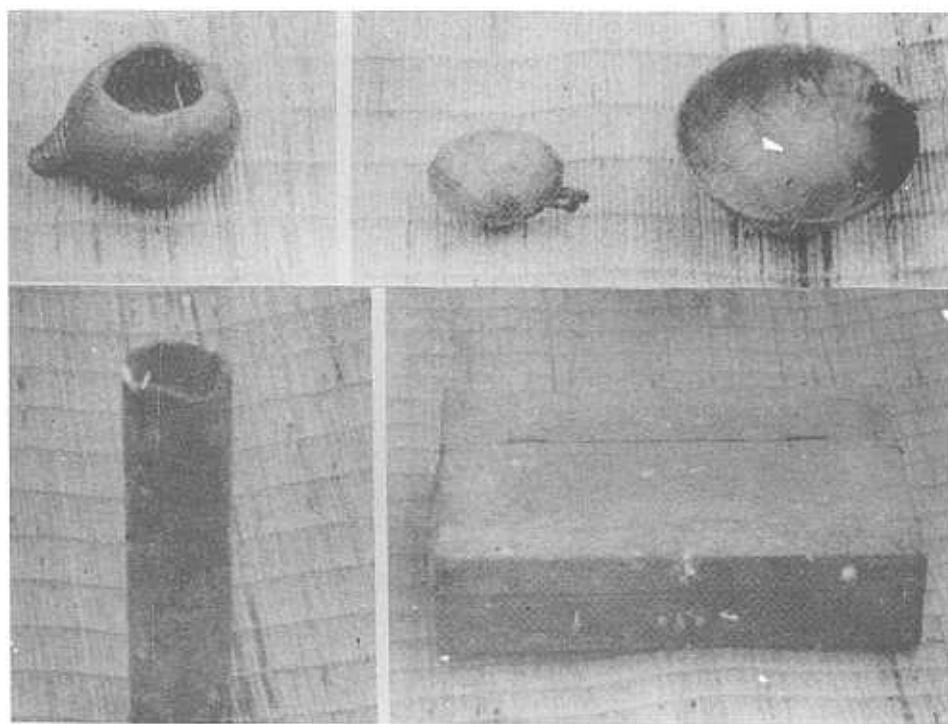
△ [사진 36] 觀瀾亭(所在地:忠北 堤川郡 松鶴面 長谷里).



△ [사진 37] 旌忠閣(所在地:原州市 開運洞).



△ [사진 38] 慕賢祠(所在地:寧越郡 水周面 武陵里).



△ [사진 39] 觀瀾의 遺品(상단 좌측부터 鐵製 향합, 옥돌 술잔, 鐵製 쪼대, 서류 함 : 慕賢祠 所藏).

4) 久菴 韓百謙

韓國代史卷之四

文獻備考卷之四

(1) 머리말

조선후기 실학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久菴 韓百謙의 생애(1552-1615)와 학문, 그리고 그의 사상이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그의 유명한 저작이었던 『東國地理誌』에 관하여 丹齋 申采浩가 『朝鮮上古史』에서 언급하였듯이, “安鼎福의 『東史綱目』나 韓鎭書의 『地理』, 丁若鏞의 『疆域考』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朝鮮史界에 처음 史學의 단서를 열었다”고 할 만큼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나 후속사업은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가 봉안되었던 七峰書院의 복원에 즈음하여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久菴 韓百謙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역사학 분야에 있어서의 불후의 업적인 『東國地理誌』의 역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그의 삶과 학문에 대한 태도는 물론, 한국사학사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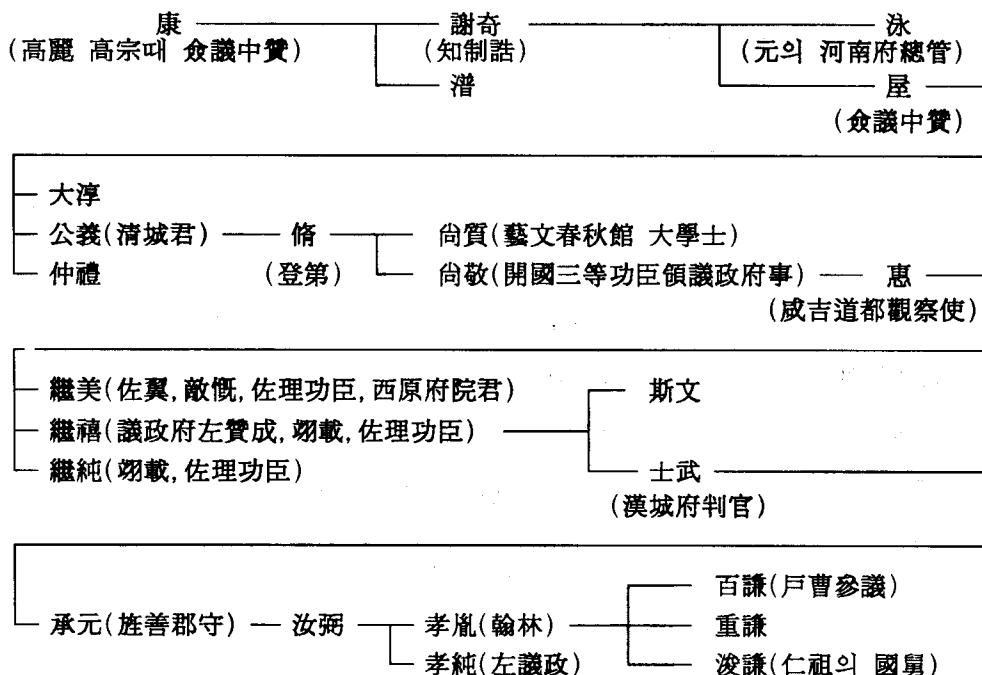
(2) 생애

久菴 韓百謙은 1552년(명종 7) 전형적인 양반 가족이었던 청주 한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호는 久菴이며, 자는 鳴吉인데, 출생지에 관하여는 지금의 원주군 부론면 노림리라는 설과 서울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의 선대는 이미 고려후기부터 중앙에 관리로 진출하여 귀족으로서 기반을 굳혔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개국공신이며 領議政府事를 지낸 尙敬이 7대조이고, 5대조인 繼禧는 世祖를 보필하여, 『經國大典』의 편찬에도 참여하였으며, 翊戴功臣・佐理功臣에 책봉이 되고, 左贊成에까지 오른 전형적인 훈구파의 가계였다. 그러나

그후 한때 가세가 약해지기도 하였으나, 부친인 孝胤이 문과에 급제하고, 숙부인 韓孝純이 광해군때에 우의정을 지내고, 동생 준겸이 인조의 國舅인 西平府院君이 되는 등 당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크게 진작되었다. 久菴 韓百謙의 家系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8> 과 같다.

<표 8>

韓百謙의 家系表



韓百謙의 소년기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에는 花潭 徐敬德의 門人인 行村 閔純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그는 이때 특히 『小學』과 『近思錄』을 통하여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그후 28세때인 1579년(선조 12)에 동생인 重謙, 浚謙과 함께 삼형제가 한해에 나란히 生員試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 입학하여 文科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문과에 응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루게 되었는데, 다시 조모의 상을 당하여 장손으로서 또다시 삼년상을 치루어야만 했다. 연이은 5~6년간의 상복기간은 한백점으로 하여금 학

문에 몰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 그는 性理學과 周易공부에 정열을 바쳤다고 한다.

복상이 끝나던 35세때에 처음으로 천거에 의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처음 받은 관직은 漢城府의 中部參奉(종9품)이었고, 곧이어 전주에 있는 太祖 李成桂의 영정을 봉안한 慶基殿 參奉에 임명되었다. 이때 鄭汝立의 생질인 李震吉과 알게 되었는데, 1589년 정여립의 난에 의해 이들이 처형이 되자 정여립의 시신을 염하여 주고, 이진길과 친분이 깊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杖刑을 받고 함경도 端川지방으로 유배당하였다. 그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사면령을 받고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돌아오던 길에倭에 내통하는 자를 주살하였다는 공로로 內資寺 直長(종7품)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漢城府 參軍에 임명되어 난민에게 죽을 끓여 주는 일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난민의 불평을 사서 곧 해직되고 말았다.

임진왜란 후 조정에서는 지방행정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령이 될만한 자를 천거 받았는데, 韓百謙은 추천된 30명 중 1등으로 천거되어 入侍를 하여 易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비변사의 추천에 의하여 戶曹左郎(정6품)에 임명된 후, 다시 황해도 安岳현감이 되어 2년여의 선정을 베풀었다. 1600년 刑曹正郎(정5품)을 거쳐 영월군수를 지냈고, 1601년에 공조정랑을 거쳐, 1605년에 청주목사가 된 후 그 치적이 높이 평가되어 通政大夫(정3품)에 올라 당상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청주한씨 시조의 遺基를 찾아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

1607년 당상관으로 掌禮院 判決事를 거쳐 호조참의가 되었다. 이때 마침 선조가 승하하였는데, 전쟁중에 국가의 儀軌가 없어져 禮官이 장례절차를 몰라 주선치 못하자, 대신등이 추천하여 빈전에서 襲斂諸儀를 맡아 처리할 만큼 예절의식에도 밝았다 한다. 그후 1609년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호조참의를 사직하였는데, 사직상소를 올리면서 貢物法의 폐단을 극론하였고, 그 개혁안이 李元灝에게 채택이 되어 소위 大同法의 기틀이 되었다. 사직을 한 후 1610년에 모친을 여의고 3년상을 마치자 통례에 따라 서반직이 제수되었으나, 이제는 부모도 계시지 않고 또한 늙었으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에 전념하여 여생을 마치겠다고 하면서, 전에 동생 浚謙이 마련하여준 양평 西湖아래 물이촌(水伊村)에 집을 짓고 堂

號를 久庵이라 하고 만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동안 생각하여 왔던 우리나라 역사인 『東國地理誌』의 서술을 1614년부터 시작하여 1615년 7월에 마치고 15일만에 주하니 향년 64세였다. 그후 1638년 七峰書院에 봉안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암 한백겸의 년보를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韓百謙 年譜

연 도	나이	활동 및 관직 역임	출 처
1552(명종 7)		○ 鏡城府判官 韓孝胤의 장남으로 원주에서 출생(혹은 서울이라고도 함).	
1569(선조 2)	18세	○ 花潭 徐敬德의 門人 杏村 閔純에게서 小學, 近思錄을 배움.	
1579(선조 12)	28세	○ 동생 重謙, 浚謙과 함께 小科에 합격.	
1580(선조 13)	29세	○ 父親喪 당함.	
1584(선조 17)	33세	○ 祖母喪 당함. 喪中에 文科(大科)를 포기 하고 周易·經書·性理書 연구에 몰두함.	
1585(선조 18)	34세	○ 經書訓解를 교정하는 '校正廳'이 설치되었는데 당시 이름난 선비였던 寒岡 鄭述, 守愚 崔永慶, 習靜 洪晩全, 困齋 鄭介淸과 함께 校正郎으로 발탁됨.	燃藜室記述 別集 권14 文藝典故 諺解
1586(선조 19)	35세	○ 薦舉되어 中部參奉으로 임명됨.	
		○ 全州 慶基殿 參奉으로 옮김.	
1589(선조 22)	38세	○ 鄭汝立謀反事件으로 일어난 己丑獄事 때 정여립의甥姪인 李震吉의 시체를 거두어준 죄로 고문을 당하고 함경도로 유배되었으며, 동생 浚謙은 朴承宗·鄭經世 등과 함께 이진길을 史局에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여 파직됨.	燃藜室記述 권 14 宣祖朝故事本末
1592(선조 25)	41세	○ 壬辰倭亂으로 流配地에서 석방되었으나 倭軍에게 內應하는 무리가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귀향길이 막혔는데 久庵	

연 도	나이	활동 및 관직 역임	출 처
1593(선조 26)	42세	은 그곳에 함께 유배되었던 다른 12인의 선비와 함께 內應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주살함. ○ 倭軍에 內應하는 首魁를 죽인 功으로 內資寺直長에 特敍됨.	
1594(선조 27)	43세	○ 漢城府 參奉. ○ 郎廳으로 難民들에게 구호물품을 배급하는 문제로 백성들의 원망이 있다하여 해직됨.	宣祖實錄 卷49 27年 3月 壬午
1594(선조 27)	43세	○ 鄭慶世의 추천으로 周易講官에 임명됨	宣祖實錄 卷 57 27年 11月 丙戌
1595(선조 28)	44세	○ 戰亂후의 지방행정을 수습하기 위하여 朝野에서 守令이 될 만한 자를 천거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추천된 30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천거됨. ○ 바로 守令으로 임명되지 않고 戶曹佐郎, 刑曹佐郎을 거쳐 安岳縣監으로 임명됨. ○ 安岳縣監으로 전직에서 최상으로 평가받아 咸從縣令으로 체임될때 縣民들의 호소로 增秩留任됨.	宣祖實錄 卷 64 28年 6月 壬子
1599(선조 32)	48세	○ 병으로 사직함.	宣祖實錄 卷 134 34年 2月 戊子
1600(선조 33)	49세	○ 형조정랑, 영월군수 ○ 『東史纂要』 편찬자인 吳漣에게 七峯書院 건립을 알리고 耘谷 元天錫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여 줄것을 요청함.	東史纂要 卷 7 末尾 史論
1601(선조 34)	50세	○ 동생 浚謙이 四道體察使副使로 임명되자 相避法에 의해 工曹正郎으로 轉職됨. ○ 洪可臣, 鄭述 등과 함께 周易傳義校訂	韓公墓碣銘
1602(선조 35)	51세	○ 延安府使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는 도중 召還되어 司導寺正으로 陞敍됨.	宣祖實錄 卷153 35年 8月 丙辰, 韓公墓碣銘
1603(선조 36)	52세	○ 淸州牧使. ○ 宣祖大王이 兒馬를 下賜함.	宣祖實錄 卷158 36年 正月 戊寅

연 도	나이	활동 및 관직 역임	출 처
1604(선조 37)	53세	○ 通政大夫에 올라 堂上官이 됨.	宣祖實錄 권 186 38年 4月 庚申
1605(선조 38)	54세	○ 淸州牧使로 있으면서 행정을 바로 잡는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특히 學校의 중흥과 經籍을 널리 구하여 비치하는 등 文敎에 크게 힘씀.	
1607(선조 40)	56세	○ 掌隸院判決事.	宣祖實錄 卷215 40年 8月 辛酉
1608(광해 즉위년)	57세	○ 戶曹參議. ○ 선조 승하때 전쟁중에 儀軌가 散失되어 예관들이 장례절차를 몰라 주선하지 못하자 대신들의 추천으로 殯殿에서 襲殮 등 모든 儀禮를 맡아 처리함.	
1609(광해 元)	58세	○ 平安道觀察使 浚謙을 따라가 있는 母親을 뵈러 평양에 갔다가 평양성 남쪽에 있는 箕田遺蹟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箕田圖를 작성함.	貢物變通疏 燃藜室記述 10卷 政敎典故
1610(광해 2)	59세	○ 戶曹參議를 병으로 사직. 서울 서쪽 근교 西湖勿伊村에 은거함.	
1611(광해 3)	60세	○ 호패청 강원도 按撫使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음.	光海君日記 卷36 2年 12月 戊寅
1613(광해 5)	62세	○ 坡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함.	
1614(광해 6)	63세	○ 東史纂要 後敍 작성.	光海君日記 卷92 7年 7月 戊申 韓公墓碣銘 (鄭慶世 撰)
1615(광해 7)	64세	○ 東國地理誌 저술 시작.	
7月		○ 東國地理誌 완성.	
1640(인조 18)		○ 서울 서쪽 근교 勿伊村에서 卒. ○ 東國地理誌, 久菴遺稿 大邱監營에서 간행됨.	

(3) 학문과 사상

『宣祖實錄』 선조27년(1594) 11월 병술조에 의하면, 선조가 젊은이들 가운데서 누가 易學을 잘하느냐고 물으니, 우의정이었던 金應南은 당시 부여현감이던 鄭經世를 추천하였는데, 이때 정경세는 자신을 사양하고 한백겸을 추천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한백겸이 한준겸의 형이냐고 묻자, 김수는 백겸과 준겸은 한효윤의 아들이며 그 가문은 평소 易學으로 유명한 집안이라고 하였으며, 김응남은 다시 한준겸과 그의 숙부인 한효순도 모두 易에 밝다고 대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그의 가문은 당대 역학에 밝은 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하다. 또한 그의 스승이었던 杏村 閔純 역시 易理와 禮에 밝았다는 사실로 보아, 그는 집안과 스승 모두로 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일생동안 교유한 학자들은 모두 당대의 거유들이었다. 예를 들면 鄭經世, 鄭述, 洪可臣, 李晬光, 吳瀼 등과 교유하였으며, 또한 고려말 不事二君의 충의를 지킨 元天錫을 높이 추앙하였다.

한백겸의 성리학상의 학풍은 그가 徐敬德의 문인인 閔純의 제자였다는 점으로부터 主氣의 경향을 갖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면 그가 宗人들과 함께 청주에서 遺基에 碑壇을 세울 때 쓴 「碑壇立議序」에

「자손의 몸은 곧 先祖의 氣이다. 자손이 이렇게 모여 있는 즉, 선조의 精靈이 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마치 서경덕의 氣不滅說을 그대로 전승한 것 같은 대목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글인 「晦齋論太極圖後拔」에서는 李彥迪의 理先氣後說이나 退溪의 人心道心說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主理論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한백겸의 성리학풍을 잘 나타내주는 자료는 그의 「四端七情說」이다.

「形氣가 발하는 것을 七情이라고 하고 義理가 발하는 것을 四端이

라고 하는데, 四端은 道心이고 七情은 人心이다. 대개 사람의 한몸이 만가지 수작을 하는 것은 다만 七情이 있을 뿐이다. 七情이외에 따로 四端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七情 가운데에서 形氣에 섞이지 않은 것으로 이 四端을 뽑아낸 것이다. “개괄하여 논한다면 四端과 七情은 각각 쫓아온 곳이 있고, 나누어 말한다면 한 情 가운데에 모두 四端을 갖추고 있다.”

즉 七情속에 四端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栗谷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지만, 七情의 각 一情에 四端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설은 그의 독특한 견해인 것이다. 또한 「人心道心」에 대하여는

「退溪의 理發, 氣發의 설은 朱子와 더불어 千載에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후학에게 주는 혜택이 자못크다. 다만 쪼개기를 지극히하여 四端이 스스로 한정이 되고 七情이 스스로 한정이 되어, 두가지가 서로 배합하여 達道의 묘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의심하니 이것이 밝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여, 退溪의 人心道心說에 동조하는 듯 하면서도, 앞서의 七情에 四端이, 또한 각 一情에 四端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性命의 仁禮義智信 五常을 木火金水土의 五行에 대비하였고, 形氣의 肝心肺腎脾의 五臟을 五行 및 喜愛, 樂, 勞惡, 愛慾에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四端과 七情에 관련시켜 圖解를 만들기도 하는 등, 어느학설에도 구애받지 않고 독자의 비판적인 안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그의 학문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그의 저작중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많은 부분이 散佚되었겠지만, 1640년 대구감영에서 간행된 『久庵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학적 관심분야가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上編의 글들을 보면, 四端七情說, 論晦齊太極圖後跋 등 性理說 이외에도 禮, 象數學, 經書, 歷史 등에 관한 글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실증적이며, 고증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예를 들면,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田制改革論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箕田遺制說」에 나타나 있다. 즉 이 「箕田遺制說」은 1607년 호조참의로 있을 때, 평안도 관찰사였던 그의 동생 韓浚謙과 함께 제신 어머님을 뵈우러 평양에 가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口傳과 기록에 의하여 箕子の 井田이라고 전하여 오던 遺趾를 실측하여 箕田圖를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부친 것이다. 그는 이 箕田圖를 바탕으로 殷나라의 토지제도가 井田制라고 생각해 온 기존의 학설을 부정하고, 은의 제도는 田字型의 토지제도이며, 넓이는 70묘라고 주장하면서, 朱子의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井田之制는 先儒들이 자세히 논하였다. 그러나 그 설명은 모두 맹자를 祖宗으로 삼고 있기때문에, 특히 周室의 제도에는 자세하지만 夏殷은 징험이 없었다. 주자가 논한 助法 역시 추측하여 근거없이 헤아려서 내어 놓은 것이다. 서로 참고하여 고증하지 않은 즉, 그것이 과연 당시의 제작한 뜻과 합치하는지 알 수 없었다. “ 간혹 주자가 溝洫을 개치하는데 인력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맹자의 말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이는 民産을 균제하는 것으로 실로 커다란 發政施仁이었다. 어찌 적은 비용을 아껴서 폐단을 답습하고 변통하지 않겠는가. 이로 추도하여 보면 朱子의 이설은 한때 門人과 문답을 하여서 나온 것이지, 평생의 정론이 아님을 알겠다. 朱子語類 가운데 이같은 설화가 매우 많으나 이를 들어 저것을 의심할 수는 없을것이다」

물론 朱子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朱子說에 대한 정면거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朱子學 一尊主義의 敎條的인 전통사회에서 주자설에 대한 異論의 제기는 기존의 학설이나 견해에 구애받지 않는 그의 학문의 비판적인 특징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백겸의 학문은 현실문제와 백성의 입장에 선 학문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608년 호조참의로 있을 때 올린 상소로 「貢物變通疏」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물의 폐단은 실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相臣 柳成龍이 깊이 그 폐단을 알아 공물을 폐지하고 쌀로 바치게 하여, 거기서 쓰는 잡물을 모두 시장의 시세로 서로 바꾸어 쓰게하니,

그 뜻이 좋지 않음이 아니라 그 법이 좋지 않은데가 있어 원망하는 자는 많고, 기뻐하는 자는 적어서 마침내 도로 폐지하기에 이르렀사오니 신은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 이제 만약 그뜻은 취하고, 그 일은 바꾸어서 대략 포구에 나오는 거리의 원근에 차등을 두어 作米하도록 하되, 반드시 쌀 두말로 구매하지 말고 바다로부터의 거리가 이틀길 이상이면 그 쌀에 준하여 배로 마련하게 하여 輕重과 苦歎을 피차 한결같이 한다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넉넉하게 값을 주어 배값에 비하여 혹 倍도 되게 하고, 혹 5배도 되게 하며, 풍년에도 더하지 않고 흉년에도 덜하지 않아 방납하는 무리에게 일정한 법이 있음을 알게하며, 그 사이에 주선하여 있고 없는 것을 交易하여 스스로 그 이익을 먹게 하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혹 祭向에 쓰이는 것과 尙方(尙衣院)에 수요되는 것으로 서울로부터 바꾸어 상납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적당히 作米와 혹은 作布의 수를 감제하여 본색으로 상납하게 하면 그 신축과 재량이 다만 한 有司의 능사에 있을 것이니,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며, 또한 무슨 행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李元翼에 의해 완성되는 「大同法」의 기초이론이 되었던 것이다. 대동법이란 각지역의 특산물을 貢物 대신 쌀(大同米)로 바치게 하고, 국가에서는 그 쌀을 가지고 필요한 특산물을 貢人을 통하여 구입하는 제도로써, 백성의 부담과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한 조선후기 경제정책의 최대의 개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인 태도와 사상은 그가 관직에서 은퇴한 후, 마지막 정성을 다하여 집필한 『東國地理誌』에 총체적으로 집약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東國地理誌』

① 내용과 저술동기

韓百謙의 『東國地理誌』는 그가 관직에서 은퇴한 후, 돌아가기 1년전인 1614년에 水伊村에 은거하면서 그의 아들 韓興一로 하여금 구술시켜 완성한 우리나라

에 관한 歷史地理書이다. 이 책은 조선초기의 『八道地理誌』, 『世宗實錄 地理誌』, 『東國輿地勝覽』 등과 달리 역사적인 안목에서 지리적인 문제를 고찰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이전의 지리서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후 실학자의 역사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東國地理誌』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삼국시대 이전부분으로 중국사서의 열전에 기록된 部族國家에 대한 서술을 인용하여 쓴 부분, 둘째, 삼국시대에 관한 부분으로 國都・封疆・形勢關防의 항목을 서술한 부분, 셋째, 고려에 관한 부분이다. 그 편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東國地理誌 編制

前漢書朝鮮傳, 後漢書高句麗傳, 後漢書東沃沮傳, 後漢書濊傳, 後漢書扶餘國傳, 後漢書三韓傳, 四郡, 二府, 二郡
三國 高句麗(國都, 封疆, 形勢・關防) 附渤海國 百濟(國都, 封疆, 形勢・關防) 附箕準城, 報德城 新羅(國都, 封疆, 形勢・關防) 附金官國, 伽倻國, 泰封國, 後百濟國
高麗 國都, 封疆, 形勢・關防 并附

이상의 편차를 통하여 볼 때, 한백겸의 『東國地理誌』는 그가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 國都・封疆 즉 疆域・地勢와 關防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역사를 시간적으로 파악하면서도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만으로 다루지 않고, 지리적인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쓴 歷史地理書라는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즉 역사발전을 정치사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를 가장 발전했던 시기로 잡고 있으며, 또 국가의 발전에는 수도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요새지로서 關防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각국의 요새지를 들어 그 현재지명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關防에 관한 그의 관심은 고려조의 양계지방에 대한 서술에서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는 당시 만주에서 여진의 세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그의 북방에 관한 관심이 특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특히 한백겸은 많은 史論을 써서 자신의 史觀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론의 특징은 모두가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는 것으로, 종래 사서의 사론과는 경향을 달리하고 있다. 즉 정치적 평가나 도덕적인 평가라는 점보다는 역사학으로서 독립적인 새로운 연구에 하나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근대적인 史學方法을 도입한 申采浩가 『東國地理誌』를 평하여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설이 비록 수십행에 불과한 간단한 논문이나 일반사학계에 대광명을 열어 종래 丁若鏞의 疆域考나 韓鎭書의 地理나 安鼎福의 東史綱目에 부재한 疆域論이나 그외에 各家의 朝鮮歷史地理書를 설하는 자 모두가 그 간단한 지리지설을 부연하였다. “東夷列傳에 보이는 삼한의 위치는 선생으로부터 비로소 간단히 해석하여 기왕에 史의 記錄만 있고, 史의 研究가 없었다고 할 만한 朝鮮史界에서 선생이 처음 사학의 단서를 열었다하여도 가할 것이다.」

라고 그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東國地理誌』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하여보자.

우선 삼국시대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삼국의 앞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에 관한 것으로 『漢書』의 東夷傳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러나 愚按이라는 頭書를 두어 일종의 사론형식을 빌어 자신의 견해로 서술하고 있다. 상고사의 부분의 특징은 여러 부족국가의 종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참조하였던 종래의 史書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족문제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며, 삼국 국민 구성에 대한 이해에도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론의 지리학적 고증에서는 고조선과 한사군을 한반도 안에 주로 비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종전의 사학에서 전혀 비정하지 못하였던 眞藩郡의 위치를 조선, 임둔, 진국의 사이에 비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가 이를 밝히기 위하여 고심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삼한의 위치에 대하여 종래의 설을 부정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고사의 부분에서는 『漢書』

의 자료를 옮겼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종래의 사서에서는 三韓을 漢四郡보다 뒤에 서술하였으나 『東國地理誌』에서는 앞에 서술하였고, 한강 이북에 조선, 부여, 옥저, 동예 등의 부족국가가 있을 때에, 한강이남의 남쪽에는 삼한이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상고사가 전적으로 중국측 자료를 인용하였었던 것과는 달리 삼국사의 부분에서는 주로 우리측의 자료를 인용하고 중국측의 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삼국 國都의 현재 위치를 밝히고, 나라의 강역을 밝히기 위하여 각기 속해있던 부족국가를 밝혔으며, 形勢와 關防條에서는 각국을 지키기 위하여 激戰을 벌였던 곳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상고사에서는 종족을 파악하려는 관심에서부터 국가의 영토와 수도, 방어요새지를 밝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백겸은 삼국사를 서술하는데, 그 순서를 종래의 사서에 따르지 않고,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그 이유로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초기 강역의 범위를 가장 컸던 나라의 순으로 서술한 점이고, 또 하나는 발전의 순서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건국연대에 관하여는 『三國史記』의 건국연대를 그대로 인용하여 쓰고 있다.

삼국사의 사론중 주목할 부분은 고구려의 영역을 遼河以東으로 잡고 있으며 고구려, 부여, 遼藩의 만주영토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렇게 된 이유로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국도를 새 영토의 중앙으로 옮기지 않고 동쪽에 편재하였으므로, 멀리 만주지역을 통제하지 못한다 있다고 하여 신라 위정자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요컨대 나라를 세워 도움을 정할 때에는 그 규모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형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데, 신라가 삼국을 통할한 초기, 당병이 철수한 후에 곧 국토의 중앙으로 도움을 옮겨 사방을 통제하였다면 고구려의 옛 영토를 가히 수복할 수 있어, 요와 부여의 땅이 우리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저 거란, 여진족이 어찌 境外에서 웅장함을 함부로 할 것인가, 신라의 군신들은 사람의 힘으로 성사시켰고, 忠義는 쉽게 채워질 수 있다고 하여 한쪽 귀퉁이에서 무사태평만을 일삼아 서북일대의 땅을 오랑캐에게 주기를 헌신짝처럼 하여, 그들

이 강성하여 신라가 멸할때까지, 그리고 고려까지 영역내에 환란이 제 거되지 않아 하루도 편안함을 누릴 수 없었으니 가히 통탄할 일이다」

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영토에 대한 인식에서만이 아니라, 당시 만주에서의 後金의 성장과 이후의 胡亂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강렬한 경계의식의 촉구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한백겸은 어떠한 동기에서 『東國地理誌』를 저술하였을까. 그의 저술동기는 앞서 연표에서 보았듯이 吳澐의 『東史纂要』에서 삼한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를 시정하여 보려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삼한의 위치 고증에서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고려시대까지 포괄하는 역사지리서를 저술한 것은 역시 그의 현실문제에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저술의 현실적 동기는 임란을 겪고 난 이후였으므로, 외적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게된 역사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역사적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나라 영토의 축소에서 찾아보려고 하였으며, 지방의 요새지(形勢, 關防)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차 새로운 적으로 등장할 지도 모르는 북방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國地理誌』를 보면,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게된 역사적 원인과 胡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다.(後漢書 扶餘國傳條, 後漢書 挹婁傳條, 新羅 封疆條) 뿐만 아니라 고려의 形勢, 關防 서술에 해당하는 兩界지방의 경우, 州鎭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설명하여 놓은 것도 결국은 胡에 대한 경계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後代에 미친 영향

한백겸의 『東國地理誌』가 후대의 사학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조선후기의 역사서술은 크게 두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資治通鑑綱目』의 서술과 한백겸에서 시작되는 역사지리학

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시대가 후대로 내려가면서는 전자의 경우도 역사지리학의 연구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吳濬의 『東史纂要』에 영향을 주었다. 물론 『東史纂要』의 초간은 1614년으로 『東國地理誌』가 간행된 연대인 1640년대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지만, 『東史纂要後書』에는 한백겸의 삼한설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즉 여기서 吳濬은 직접 한백겸의 삼한설이 탁견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인용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확립한 柳馨遠(1622~1673)의 『東國地理誌』를 들 수 있다. 유형원은

「근세에 韓씨가 논한 바는 천년간이나 미정이었던 것을 심득한 것이다」

고 하면서, 그 설에 따라 경기좌도(한강이남)·충청·전라도를 마한으로, 경상도를 진한·변한지역으로, 그리고 한강이북지역은 고조선의 옛땅으로 파악하였다.

다음, 申景濬(1712-1781)의 『疆界考』와 『東國文獻備考』의 輿地考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疆界考』에서는 목차의 구분을 국도와 강계라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쓰고 있고, 그 서술방식도 시대순보다는 지역단위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에서는 양계지방에 대한 상황을 다루는 등, 그 편차내용과 서술내용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는 한백겸에 대하여

「한백겸의 논문 실로 『輿地勝覽』에 근원을 두면서 개설이 분명하여 세상에서 정론이라고 한다」

고 하여 한백겸의 설을 정설로 인식하였다.

다음, 安鼎福(1712-1791)의 『東史綱目』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동사강목』에서는 기자전과 삼한문제가 정설로 받아들여 졌다. 그는

「韓久菴의 南自南, 北自北의 설을 가히 정론이라고 할만하다」

고 하여, 三韓에 대한 비정을 한백겸과 같이 하고 있다.

다음, 李肯翊의 『燃藜室記述』과 『燃藜記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공익은 고조선의 영역을 요동지방의 북중국 지방으로 확대하는 설을 주장한 점에서 안정복과 유사한 강역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삼한문제에 관하여는 한백겸의 설을 정설로 취하였다. 나아가 이 설은 丁若鏞(1762~1836)의 강역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약용은 1789년 內殿親試에서 쓴 「地理策」에서 三韓說에 관하여 “한백겸의 설은 바꿀 수 없는 定論”이라고 결론을 맺을 만큼 한백겸의 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백겸의 사관은 19세기에 들어서 韓鎭書의 『海東繹史』의 「續地理考」와 尹廷琦의 『東寰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근대 사학자인 신채호에게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한백겸의 사학증 특히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학설로서는 三韓位置說과 箕田問題, 그리고 윤관의 九城중 公嶮鎭의 위치등이었으며, 그의 문헌실증적인 역사연구방법은 후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계승되어 역사연구에 있어서 우리의 국토와 강역을 중시하는 경향을 낳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 실학시대를 선도하는 역사지리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백겸을 조선후기 실학적 역사학의 창시자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구암 한백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학문적인 태도와 학술적 대업적인 『東國地理誌』의 내용과 편찬동기,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백겸은 고려시대부터 명문의 가계를 가진 훈구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한백겸 자신은 동생 한준겸이나 숙부 한효순과는 달리 관직의 영달보다는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그의 학문은 정통주자학의 예학이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주역·시경·서경에도 정통하였다. 그러나 주자학 일존주의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종래의 구설에 맹종하지 않는 비판적 정신과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현실문제와 백성들의 입장에 선 학문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앞서 그가 올린 「貢物變通疏」이나 「箕田遺制說」에서 이미 살펴본 바 대로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업적으로 후대에 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東國地理誌』를 꼽을 수 있다. 『東國地理誌』에 반영된 역사의식은 이책의 편제나 내용, 특히 사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한국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첫째, 上古史를 한반도의 북방지역과 남방지역에 상호 간섭없이 따로 따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 그리고 그 한계선을 한강으로 보아, 한사군의 영역을 한강이북에 국한시키고, 삼한을 한강이남에 비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의 三韓說은 종래 삼한을 삼국에 맞추던 설을 탈피하여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로서 영남지방으로 잡는 새로운 설을 제기하였다. 둘째, 부족국가의 역사에서 種族問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세제, 고구려의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여, 종래 그 영역을 한반도 내로 잡으려는 설을 탈피하여 요동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다. 네째는 윤관의 9성 중 공협진을 마운령으로 비정하는 등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론은 당시의 사론이 윤리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치중한 것에 대하여, 사실의 진리를 논한다는 객관적이고 고증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론과 역사서술에 있어 실증적이고 고증적이며, 비판적인 서술방식, 그리고 왕조중심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 나아가 역사지리학적인 접근방법은 이후 실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취하여 졌으며, 그 결과 한국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의미에서 久菴 韓百謙은 근대적인 역사학의 선구자로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연구가 그가 봉안된 七峰書院의 복원과 함께 이루어 진다는 사실은 조상의 얼과 정신을 숭고히 계승·발전 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 [사진 40] 久菴 韓百謙墓(소재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 [사진 41]
久菴 韓百謙
神道碑.

3. 七峰書院의 教育

下 游 船 主 張 東 隆 現 正 收 停

(18) 三

1) 概 要

書院은 先賢・先師를 奉祀하는 祠堂과 學童을 교육하는 講堂을 기본으로 하여 그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원의 설립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祠堂을 먼저 건립하고 先賢・先師를 奉祀하다가 후에 講堂을 설립하고 학동을 교육하는 서원이 있고, 둘째의 경우는 書堂을 설립하고 학동을 교육하다가 祠堂을 건립하고 先賢・先師를 奉祀하는 서원이 있으며, 셋째의 경우는 祠堂과 講堂을 동시에 설립하고 先賢・先師의 奉祀와 학동의 교육을 동시에 시작한 서원이 있다. 대체로 溟州(江陵)의 五峰書院이나 松潭書院은 첫째의 경우이고 東海市(三陟)의 龍山書院이나 原州의 七峰書院은 둘째의 경우이다. 따라서 七峰書院의 처음 시작한 학동을 교육하는 書堂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교육제도는 중앙에는 최고 學部로 成均館이 있었고 漢城府에는 四部 學堂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역시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官立教育機關으로서 鄉校가 있었고 私立教育機關으로서 書院이 있었으며, 초등교육기관으로서 書堂이 있었다.

서당은 한 개인이 설치하거나 몇명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적으면 수 명, 많아야 2~30명의 아동을 모아서 儒學을 교육하는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이 서당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으며, 규모나 재정, 그리고 운영방법은 일정치 않았으나 訓長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다. 七峰書院은 1612년 설치 당시에는 書堂이었고 耘谷先生(元天錫)을 봉안한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인 1624년이었으므로 敎育과 奉祀의 기능을 갖춘 진정한 의미로의 七峰書院의 設置는 1624년부터 시작되었다.

七峰書院에 대한 기록이 전연 없으므로 교육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칠봉서원과 같이 서당으로 부터 시작한 東海市(三陟)의 龍山書院의生徒와 敎育을 살펴봄으로서 칠봉서원의生徒와 敎育을 추정하겠다.

현재 江原道 東海市 灑雲洞 202 - 1에 소재하고있는 용산서원은 1705년(肅宗 31) 三陟府使 李世弼이 學校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고 參奉 崔世亮을 訓長으로 임명하고 자기 녹봉을 회사하여 그것을 자금으로 생도 수십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지방의 유지들도 李府使의 뜻에 따라서 契를 모아(처음에는 8명, 후에 28명이 됨) 府使 李世弼과 같이 學堂을 설립하였다. 李世弼은 손수 「龍山書堂」이라는 懸板을 써서 걸고 또 學規 21條를 써서 學舍壁上에 걸고 생도들이 조석으로 학규를 읽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府使 李世弼은 여가를 할애하여 수시로 學舍에 와서 講을 하여 생도들을 교육하였다.

1705년 9월에 李世弼이 司憲府 執義로 영전되자 同年 10月 先生의 門人 및 士林 등이 중심이 되어 용산서원 북쪽 한 모퉁이에 生祠堂 1간을 건립하여 眞像을 봉안하고 조석으로 行禮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서당으로 시작한 용산서원은 肅宗 45년(1719) 8월에는 祠堂 3간을 증축하고 8월 16일 佐郎 尹述이 李世弼의 位牌를 쓰고 左相 趙泰億이 奉安文을 찬술하여 奉祝하고 龍山書堂을 龍山書院이라 하였다.

숙종 31년(1705) 용산서당으로 시작하여 그로부터 14년 후인 肅宗 45년(1719)에 서원으로 된 용산서원은 大院君의 書院撤廢令으로 1868년 철폐되었고, 1956년 중건하였다. 이 용산서원에는 21條로 된 書堂學規가 木板으로 된 현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지방에는 유일한 것이며 조선시대 書堂教育의 내용을 파악할 수있는 강원도에서는 유일한 자료이다. 龍山書堂의 21條로 된 學規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龍山書堂學規(原文)

1. 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取利祿而已 但不學之人 心地茅塞識見茫昧 所謂爲學修身之法 無以曉得而體行 必須窮理以明乎善然後力行 而踐履得中不悖於古聖賢教人

之本意矣 學者於此當朴實頭做工夫 以爲終身事業也

2. 爲學之道雖在窮理力行 志是爲學之根抵 敬又爲學之終始 以此二者爲窮理力行之本 進學方有頭緒工夫不至疎漏矣 尤當勉勉而毋怠焉

3. 學者有實心然後 所謂立志居敬 所謂窮理力行 方爲實事 不然雖有所爲 事皆無實亦難得力 有志斯學者 實心用工各極其趣

4. 讀書所以窮理 窮理所以致知而力行 是以爲學工夫 讀書爲先 在堂諸生 每日晨起整頓寢具咸盥櫛正衣冠 各就讀書處 端拱跪坐 敬對方冊 專心致志 默思精讀一字一句 無或放過反復研究 須令了了 又復以朱子所謂未上口時須教上口 未通透時須教通透 已通透後 便要純熟爲讀書之要法

5. 讀書次序 一從先正所定 先讀小學 次讀大學 次讀論語 次讀孟子 次讀中庸 次讀詩經 次讀書經 次讀易經 次讀春秋循環熟讀孜孜無輟 至於近思錄 心經 家禮 二程全書 朱子大全 語類及性理諸說 亦宜間間看讀 無少間斷 餘力又讀史書 通古今 達事變 以長識見 若異端雜類不正之書 不可頃刻 披閱云云者誠是 格言之論 亦宜深體 而欽念之哉

6. 既讀其書 當學其道 讀小學 學其事親 敬兄 忠君 悌長 隆師 親友之道 讀大學 學其格物 致知 誠意正心 修身齊家之道 論語中庸 詩書周易讀書 無不皆然 若口讀而心不體 心知而身不行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7. 程子四勿箴 朱子敬齋箴 陳氏茂鄉夙興夜寐箴 亦宜書付壁上 時時瞻誦 勉勵警省

8. 常時衣冠必正 容色必肅 坐必斂膝 行必愼步 復以九容九思 念念不忘 一動一靜 皆由禮則

9. 語默之節 尤當致謹須 以千言萬語 不如一默爲心時然後 雖言 亦不可高聲喧譁 以損威儀之簡重 不言他人過失 不言朝政是非 不言州縣官員長短 不言財利多寡 厭貧求富 不言淫嫖戲慢悖辭神怪之事

10. 非公事 未嘗至偃室 古人已有其言 凡今堂中士子 如非鄉校及書堂 不得已之事 則切勿出入官家 以失自重之義

11. 居處不可自擇便好 必推讓長者 十歲以上出入時 少者必起立

12. 食時就食以齒序坐 毋得亂次 凡飲食不可揀擇 去取常以 食無求飽爲心

13. 凡接人 當務恭謹誠信 無得挾其文藝 挾其富貴 挾其年長 挾其宗黨 以驕儕友 又無得諸謔嘲笑 譏侮以失和敬

14. 堂屬諸生 既共處一堂 則有同居之義 又共修學業 則有同門之義 其交義情分 亦非向日泛同 一鄉之比 須以忠告善道 相勉直諒 多聞相期 至於疾病 喪戚禍患互相顧恤

15. 讀書之際有疑 則互相講筭 有得 則互相勸導 凡書冊筆硯几案之類 一齊整頓 毋或亂置 作字時 亦宜致敬正書 不可放心胡草 又不可書于窗戶壁上

16. 自朝至暮 一日內既有其事 或讀經史 或誦箴文 或講論義理 或述作文字(科場詩文不在此中) 或收斂心身 無一時放倒怠情 至昏明燈仍不輟工夫 夜深後始及就寢

17. 在堂時 雖或修飾歸家後不繼前功 則十寒一曝 終成僞習 而止耳 此當惕念省察

18. 書堂擇士許入之法 無論門地高下 年歲長幼 必取端亮後秀有志學者 許入 而置籍焉

19. 凡入堂者 必使先讀學規 如有托名堂中 而不修志行 不讀經史 以放曠暴 棄爲心者 則堂任與諸生 同議黜堂

20. 擇堂中有文學者 一人爲掌議 又擇年少中二人 爲色掌有司 凡堂中 是非掌議 色掌主之 穀物什物之類 有司掌之 又擇堂外謹慎 謹幹 識事務之人 爲別有司 與堂有司 眼同主管堂中穀物什物之出納 以爲多士支供之地

21. 堂屬下人 宜加斗護 以彼亦人子可善遇之意 待之無失 其心以至離叛 右學規二十一條 雖或次序 失宜辭說未詳 原其大旨 皆是古聖賢教人之遺法 本非吾憶見私談也 諸生於此不爲着實 加工堂中 只爲臨科 出接之所而止 則亦非今日建堂立教之本意 并有以知悉惕念舉行

崇禎後 第二乙酉六月 日 月城李世弼爲龍山書堂學徒謹書。

3) 용산서당학규(번역)

1. 옛날에 聖賢이 사람을 가르치고 學問을 한 참뜻은 모두 義理를 밝히고 修身을 하려는 것이며 글자를 배워서 기록하고 보는데 쓰고 詞章을 공부하여 명예와 재물을 얻으려는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막히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하고 修身하는 방법은 대강 알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깊이 연구하여 분명히 안 연후에 그것을 열심히 시행해야만 中庸을 얻어서 옛날 聖賢들이 敎人하는 本意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해야 한다.

2. 공부하는 방법은 비록 궁리하고 연구해서 열심히 실행하는데 있지만 志는 공부하는 근본이며, 敬은 공부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이요 처음이다. 따라서 志와 敬의 둘은 窮理力行하는 근본으로 해야만 공부를 하는데 頭緒가 있어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게을러서는 안된다.

3.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배우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立志와 居敬을 해야하는 것이니 窮理力行해야만 마침내 참된 공부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록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실이 없는 것이며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공부하겠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4. 독서를 할 때에는 窮理를 해야하고 궁리를 해서 모든 이치를 알아서 힘써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龍山書堂의 모든 학생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침구를 정돈하고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한 후에 각기 독서하는 곳으로 가서 자세를 바르게 꿇어 앉아서 책을 펴고 정신통일을 한 후에 공부를 시작한다. 글자 한자와 글귀 하나라도 정독해야 하며 대강 지나쳐서는 안된다. 연구를 반복하되 쉬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 또한 朱子는 “입에 올라서 완전히 외우지 못하면 반드시 입에 올라서 외울 때까지 가르쳐야 하며, 뜻을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뜻이 통할 때까지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가 뜻을 통할 때까지 되풀이 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그렇게 해야하며 그런 연후에도 계속 숙독하는 것이 독서하는 요법이다.

5. 독서하는 순서는 먼저 읽을 책의 순서를 정하는데 따라서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제일 먼저 小學부터 시작해서 大學・論語・孟子・中庸・詩經・易經・春秋의 순서대로 읽고 다 읽으면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 해서 반복해야 한다. 近思錄・心經・家禮・二程全書・朱子大全・語類・性理諸說 등도 시간이 있는대로 읽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중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史書도 읽어서 고급의 일들을 잘 알아서 식견을 넓혀야 하며 異端雜書類로 부정한 책을 읽고서 잠시라도 그 내용을 떠들어서는 안된다. 格言과 같이 좋은 글은 성실한 마음으로 토론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6. 독서를 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道를 배워야 한다. 小學에서는 事親・敬兄・忠君・悌長・隆師・親友의 道를 배워야 하며 大學에서는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の 道를 배워야 한다. 論語・中庸・詩傳・書傳・周易에서는 宇宙萬物の 모든 이치를 알아야 한다. 입으로는 책을 읽고 마음에는 없으며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 책을 읽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7. 程子の 四勿箴・朱子の 敬齋箴・陳氏의 茂鄉夙興夜寐箴을 벽위에 붙여 놓고 수시로 보고 외우며 열심히 실천한다.

8. 항상 의관은 반듯이 하고 容色은 엄숙히 하며 앉을 때에는 무릎을 뻗어서는 안되며 걸을 때는 걸음을 삼가야 하며 항상 九容과 九思를 잊어서는 안되며, 一動一靜을 모두 禮則에 의해서 해야 한다.

9.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고 삼가서 해야 한다. 千言萬語가 한번의 침묵만 같지 못할 때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한 연후에 말을 해야 하며 高聲으로 떠들썩하게 말을 해서 威儀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간략하고 무게있게 말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過失을 말해서는 안되며 간략하고 무게있게 말을 해야 한다. 朝政의 是非를 말해서도 안되고 州縣官의 長短點을 말해도 안된다. 財物의 多寡를 말해서는 안되며 厭貧求福을 말해서도 안되며 淫嫖・戲慢・悖辭・神怪의 事를 말해서도 안된다.

10. 公事가 아니면 僊室에 가지 말라고 한 말은 이미 古人들이 한 말이다. 지금 書堂에 있는 모든 士子들은 鄉校나 書堂의 일과 같이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官家의 出入을 삼가서 自重의 義를 잃지 않게 하라.

11. 居處에 있어서는 자신이 좋은 곳을 택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年長者에게 좋은 곳을 양보해야 하며 10세 이상자가 출입할 때는 반드시 기립해야 한다.

12.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나이 순서대로 차례를 정하여 질서정연하게 해야 한다. 식사를 맛있는 것만 가려서 먹어서는 안되며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된다.

13. 사람을 접대할 때에는 공손한 자세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접대해야 하며 文藝와 富貴, 그리고 어른인 것을 구실로 교만해서는 안되며 또한 당파가 다른 것을 구실로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諧謔이나 嘲笑를 하며 상대를 비방하여 和睦과 공경하는 것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

14. 書堂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은 이미 한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同居의 義理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이 수업을 하니 同門의 義理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交義와 情分이 두터운 것이다. 그러므로 同鄉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 반드시 善道를 충고해서 直諫多聞하는데 힘쓸 것이며 疾病이 있을 때에는 친척이 화란을 당한 것과 같이 생각해서 서로 도와 주어야 한다.

15. 讀書할 때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이해가 되면 서로 勸導해야 한다. 書冊과 筆硯・几案類는 잘 정돈해 놓아야 하며 글을 지을 때에는 모든 정성을 다들여서 지어야 하고 글씨를 쓸때도 모든 정성을 다들여서 正書를 써야 하며 조잡한 초서를 써서는 안된다. 그리고 창문이나 벽에다 글씨를 써서는 안된다.

16.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루동안 해야 할 일은 經史를 읽고 箴文을 외우며 義理를 講論하고 혹은 글을 짓고 혹은 心身을 항상 반성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일시라도 방심하여 게을러서는 안된다. 저녁에도 등불을 밝히고 계속 공부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 취침해야 한다.

17. 書堂에 있을 때에는 비록 공부를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는 계속 하지 않고 놀게되면 공부하는 맥이 끊겨서(十寒一曝) 마침내 僞習이 되고 말 것이니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귀가한 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

18. 서당에서 배우려는 사람을 택하여 입학을 허락하는 法은 문벌과 지위의 고하를 논하지 않고 연세의 장유를 논하지 않으며 용모가 단정하

고 준수하며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자를 입학시킨다.

19. 서당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반드시 學規를 먼저 읽어야 하며 이름만 書堂學生으로 올려놓고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經史를 읽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堂任과 諸生들이 동의하여 퇴학시킨다.

20.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중에서 공부 잘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掌議로 하고, 또 나이가 적은 학생중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은 色掌, 한 사람은 有司로 하고 모든 堂中の 是非는 掌議와 色掌이 담당하도록 하며, 穀物이나 什物같은 것은 有司가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謹慎하며 勸幹하고 事務를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別有司로 정하고 서당의 有司와 같이 서당의 穀物과 什物의 출납과 생도들의 支供에 관한 것을 담당하도록 한다.

21. 堂中에 소속된 하인들도 잘 보살펴서 자기의 자제와 같이 잘 인도하고 잘 대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해서 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상의 學規21條는 비록 순서가 제대로 안되었고 辭說이 자세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그 大旨는 옛날 聖賢이 敎人하는 遺法이요 나 개인의 憶見이나 私談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書堂은 단지 科擧 준비를 하는 곳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書堂을 건립하는 本意가 아니니 모든 학생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잘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라.

崇禎紀元이후 第二乙酉年(1705) 6月 日 月城 李世弼이 龍山書堂의 學徒들을 위해서 삼가 이 글을 쓴다.

4) 龍山書院의 生徒

龍山書院에 入學할 수 있는 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入學할 수 있었다. 龍山書院 學規에 의하면 門閥의 高下나 연령의 長幼를 막론하고 인품이 단정하고 준수한 자로서 배우고자 하는 자는 입학을 허락한다

고 하였다. 실제로 1708년(肅宗 34) 龍山書院의 在學生은 23명이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31세부터 10세까지로 다양하며 姓氏別로 보면 江陵崔氏 6명, 江陵金氏 6명, 南陽洪氏 6명, 三陟金氏 3명, 迎日鄭氏 2명 등 총 23명이다. 『淸衿錄』에 의하여 1719년에서 1755년까지 36년간의 龍山書院의 學生 名單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 과 같다.

<표 11>

入學年度別 生徒名單

年月日	區分	順位	姓 名	字	本 貫	生年 月 日	當時 年齡	父 名
1719년 8월 (肅宗 45)		1	朴 行 明	明 鄉	江 陵	1683	36	世甲(判官)
		2	金 台 明	三 老	江 陵	1692	27	世紀
		3	金 柱 明	汝 瑞	三 陟	1695	24	萬彰
		4	金 以 權	稱 重	三 陟	1700	19	
		5	金 聲 振	以 五	三 陟	1686	33	益寶
1720년 2월 (肅宗 46)		1	崔 鳳 儀	周 瑞	江 陵	1695	25	汝(食知)
		2	金 壽 仁	叔 文		1695	25	反武(本人)
		3	崔 應 厦		江 陵			華
		4	李 春 傑	知 彦	公 州	1701	19	之韻의 曾孫(府使)
		5	金 載 奎	士 彦	三 陟	1696	24	益聲
1722년 2월 (景宗 2)		1	崔 風 鳴	聖 觀	江 陵	1692	30	藻(本人反武)
1723년 8월 (景宗 3)		1	金 益 亮		江 陵			
		2	崔 榮 斗	汝 極	江 陵	1703	20	榮笑의 弟
		3	崔 昌 祐	禧 甫	江 陵	1706	17	夢奎
1726년 2월 (英祖 2)		1	崔 壽 澈	清 彦	全 州	1695	31	緝(贈工參)
		2	鄭 道 彬	仲 郁	迎 日	1709	17	來泰
1729년 2월 (英祖 5)		1	崔 壽 恒	久 彦	全 州	1699	30	壽澈의 弟
		2	洪 夏 範	君 錫	南 陽	1707	22	滾
1730년 2월 (英祖 6)		1	洪 源	有 來	南 陽	1696	34	禹平(武奉事)
		2	崔 昌 孝	宗 漢	江 陵	1705	25	榮奎
		3	洪 遇 夏	汝 範	南 陽	1712	18	重浩
1731년 2월 (英祖 7)		1	洪 致 錫	士 極	南 陽	1708	23	叙錫의 弟
		2	洪 命 濟	達 兼	南 陽	1710	21	昌錫
		3	洪 揆 錫	君 一	南 陽	1712	19	致錫의 弟
1733년 2월 (英祖 9)		1	洪 夏 浩	子 大	南 陽	1698	35	克中
		2	金 壽 鳳	省 儀	江 陵	1702	31	始兼
		3	鄭 道 炯	明 彦	迎 日	1702	31	尙泰

年月日	區分	順位	姓 名	字	本 貫	生年 月 日	當時 年齡	父 名
1737년 2월 (英祖 13)		4	洪泰錫	來彦	南陽	1705	28	必中(工議)
		5	洪義錫	來路	南陽	1705	28	潤
		6	洪禮錫	士義	南陽	1708	25	義錫의 弟
		7	洪金星杓	樞伯	江陵	1707	26	暄
		8	崔鳳來	舜祥	江陵	1707	26	澍
		9	金啓光	沃甫	三陟	1707	26	泰亨
		10	金雲煥	亨郁	江陵	1709	24	昌胤
		11	金壽翼	雲舉	江陵	1710	23	壽鳳의 弟
		12	鄭道煌		迎日	1710	23	道炯의 弟
		13	金振玉	集敬	江陵	1711	22	世安(同知)
		14	崔鳳禎	舜瑞	江陵	1707	26	
		15	崔昌仁	宅彦	江陵	1715	18	
		16	洪堯傑	士亮	南陽	1717	16	
		1	崔鳳成	士受	江陵	1707	30	必(食知)
		2	洪夏益	子三	南陽	1715	22	得中
		3	洪英傑		全州	1717	20	春傑의 弟
1748년12월 1749년 2월 (英祖 25)		4	崔壽傑	英彦	全州	1713	24	壽恒의 弟
		5	崔昌信	士實	江陵	1719	18	榮參
		6	鄭道根	中實	迎日	1719	18	道彬
		7	鄭道煜	乃彦	迎日	1721	16	道煌의 弟
		8	鄭禧三	奎彦	迎日	1721	16	載柱
		9	權壽大	汝得		1721	16	克臨
		10	金誠知	慎若	江陵	1722	15	益鍊
		11	金宅鼎	得休	江陵	1722	15	聲重
		12	崔應大		江陵			
		13	金最一	穉良	江陵	1723	14	壽麒
		14	李壽一		江陵			
		1	金 曉	日甫	江陵	1709	39	鼎基
		1	崔昌義	正則	江陵	1716	33	昌仁의 弟
		2	崔昌海	宗叔	江陵	1717	32	鳳鳴
		3	洪致夏	君三	南陽	1718	31	重洙
		4	金壽泰	必得	三陟	1716	33	永徵
		5	崔昌禮	義則	江陵	1720	29	昌義의 弟
		6	崔致璉	聖用	江陵	1720	29	台命(食知)
		7	洪信錫	汝實	南陽	1721	30	泰錫
8	鄭道植	立仲	迎日	1722	29	來泰의 姪		
9	洪命漸	穉達	南陽	1725	26	乃錫		
10	洪益夏	士謙	南陽	1727	24	重謙		
11	洪 命	汝益	南陽	1729	22	叙錫		

區分 年月日	順位	姓 名	字	本 貫	生年 月 日	當時 年齡	父 名
1750년 2월 (英祖 26)	12	崔 昌 億	日 初	江 陵	1729	22	榮斗
	13	崔 啓 運	穉 沃	江 陵	1730	21	昌祐
	14	洪 運 疇	會 與	南 陽	1730	21	益瑞
	15	金 弘 鼎	德 裕	江 陵	1732	19	宅鼎의 弟
	16	崔 弟 運	中 涉	江 陵	1732	19	昌孝
	1	洪 啓 夏	士 沃	南 陽	1714	36	益夏의 兄
	2	金 壽 河	光 甫	三 陟			萬徵
	3	金 一 兌	悅 再	三 陟	1715	35	尙漸
	4	金 鳴 鐸	汝 循	三 陟	1719	31	聲振
	5	金 鳳 甲	儀 敬	江 陵	1719	31	昌寶
1752년 2월 (英祖 28)	6	金 光 玉	輝 敬	江 陵	1724	26	振玉
	7	金 宗 大	光 俊	三 陟	1722	28	萬甲
	8	金 壽 觀	國 寶	三 陟			壽泰의 弟
	9	崔 昌 和	達 叔	江 陵	1730	20	昌禮의 弟
	10	洪 觀 國		南 陽			
	1	洪 昌 夏	和 玉	南 陽	1711	41	重泗
	2	崔 鳳 徵	士 休	江 陵	1712	40	鳳成의 弟
	3	鄭 益 奎	宅 振	迎 日	1720	32	道炯
	4	金 以 律	汝 八	三 陟	1727	25	載奎
	5	洪 命 達	爾 謙	南 陽	1727	25	泰淵의 孫
1754년 2월 (英祖 30)	6	洪 致 範	克 敬	南 陽	1728	24	淑
	7	洪 仁 福		南 陽			
	8	金 惠 之		江 陵			益采
	9	洪 宅 鉉	鼎 甫	南 陽	1734	18	夏範
	1	洪 啓 範	君 沃	南 陽	1715	39	瀆
	2	鄭 道 杓		迎 日			
	3	洪 知 錫	士 述	南 陽	1717	37	禮錫의 弟
	4	崔 宗 玉		全 州			
	5	洪 仁 弼	公 甫	南 陽	1733	21	瑞夏
	1	崔 壽 崙	士 宗	全 州	1717	38	壽傑의 弟
1755년 정월 1755년 8월 (英祖 31)	1	鄭 道 格	致 政	迎 日	1730	25	道植의 弟
	2	崔 光 漸	仲 鴻	全 州	1731	24	壽澄
	3	金 應 洙	聖 源	三 陟	1718	37	漢奎의 姪
	4	金 道 恒		江 陵			
	5	崔 光 運		江 陵			
	6	崔 泰 運	亨 吉	江 陵	1735	20	昌仁
	7	金 應 泗	士 源	三 陟	1728	27	應洙의 弟
	8	金 亨 澤	元 汝	江 陵	1735	20	星杓
	9	金 壽 億					澤龍

5) 龍山書院의 運營

龍山書院은 설립할 때 三陟府使 李世弼이 녹봉을 회사하여 교육을 시작하자 뜻 있는 지방민 8명이 契를 시작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그 지방사람 28명이 契를 모아 書堂을 건립하였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719년에 書院으로 하였다. 따라

〈표 12〉

龍山書院(堂) 設立契員名單(1705년도)

順位	區分	姓 名	字	貢 鄉	年 齡	備 考
1		崔 弼 周	子 望	江 陵	55	
2		崔 薛	子 薛	江 陵	52	
3		崔 華	君 實	江 陵	50	
4		金 益 成	成 善	江 三 陟	47	
5		金 順 迪	善 汝	江 陵	44	
6		金 世 紀	汝 仲	江 陵	43	
7		崔 楨	仲 幹	江 陵	39	
8		鄭 承 周	文 胤	迎 日	36	
9		崔 藻	沂 源	江 陵	36	
10		崔 澣	沂 澣	江 陵	35	
11		金 世 甲	子 長	江 陵	34	
12		崔 榮 奎	文 五	江 陵	28	
13		朴 泰 智	文 智	江 陵	28	
14		金 益 奎	章 彦	江 陵	27	
15		崔 夢 奎	明 五	江 陵	26	
16		金 漢 奎	奎 五	江 三 陟	25	
17		鄭 雄	士 英	迎 日	25	
18		權 克 臨	汝 卿	安 東	25	
19		鄭 尙 泰	汝 伯	迎 日	23	
20		洪 壽 淵	聖 清	南 陽	23	
21		金 壽 鵬	雲 翼	江 陵	23	
22		金 益 鍊	仲 剛	迎 日	21	
23		洪 重 錫	君 叙	南 陽	20	
24		洪 權 萬	仁 長	安 東	19	
25		金 聲 振	而 玉	三 陟	18	
26		洪 重 錫	君 範	南 陽	15	
27		洪 聖 錫	君 與	南 陽	15	
28		崔 命 奎	祥 五	江 陵	14	

서 초창기의 龍山書院의 운영은 이 契員들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契員名單을 보면 앞 페이지의 〈표12〉와 같다.

위의 〈표 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書堂契員 28명의 年齡은 55세에서 14세까지 다양하여 50代가 3명, 40代가 3명, 30代가 5명, 20代가 12명, 10代가 5명이다. 30대 이상이 11명이고 20대 이하가 17명인데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아 서원의 운영은 30대 이상에서 담당하였으며 20대 이하는 학생으로서 참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20대 이하의 契員 17명중에서 崔榮奎・金益采・崔夢奎・金漢奎・洪壽淵・金益鍊・洪聖錫 등 7명이 학생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이것을 姓氏別로 분석하여 보면, 契員 28명 중에서 江陵崔氏가 9명, 江陵金氏가 6명, 南陽洪氏가 4명, 迎日鄭氏가 3명, 三陟金氏가 3명, 安東權氏가 2명, 江陵朴氏가 1명이다. 특히 契員 중 가장 연장자인 崔弼周를 비롯하여 50대 이상 3명이 모두 江陵崔氏인 것을 보면 연령이나 숫적으로 보아 설립 당시 龍山書院의 운영은 三陟에 거주하는 江陵崔氏가 중심이 되어 江陵金氏・迎日鄭氏・南陽洪氏・三陟金氏・安東權氏・江陵朴氏 등 7姓氏에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三陟郡誌』에 의하면 三陟郡에서는 대체로 140여 姓氏가 살았는데 이 7姓氏만 龍山書院 운영에 참여하였음은 당시 삼척지방에서는 이 姓氏들이 有力한 氏族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76년(英祖 52) 부터 1868년(高宗 5) 까지 92년간 龍山書院을 운영한 任員은 245명이었으며, 이중 南陽洪氏가 69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江陵崔氏 58명, 江陵金氏 50명, 全州崔氏 21명, 三陟金氏・公州李氏 5명, 安東權氏 1명, 江陵朴氏 1명, 기타 1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이상의 姓氏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書堂의 운영은 生徒들이 스스로 운영케 하였는데 生徒 중에서 文學이 있는 자를 뽑아서 掌議로 하고 나이가 어린 生徒 2명을 뽑아서 1명의 色掌, 1명은 有司로 하여 모든 堂中の 是非는 掌議와 色掌이 담당하고 穀物과 什物類는 有司가 담당하되 외부에서 事理가 분명하고 事務를 잘 아는 사람을 別有司로 뽑아서 堂中の 有司가 이 別有司와 상의해서 穀物・什物의 出納 등 支供을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1868년 龍山書院이 철폐된 이후 서원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三陟鄉校로 이관하였는데, 龍山書院의 財政的인 것을 보면 畓이 45필지 81斗落, 田이 15필지 117斗落, 田畓 합이 198斗落이다. 이에 대한 총 수입은 64石 5斗로서 비교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의 <표 13> 과 같다.

<표 13>

龍山書院의 田畓

順位	區分	田 畓 名	數 量	收 入 量	備 考
1		注 納 畓	2 斗 落	1石 1斗	
2		同 員 畓	1斗 6升落	12斗	
3		同 員 畓	1 斗 落	10斗	
4		同 員 畓	1 斗 落	12斗	
5		林 底 畓	1斗 5升落	10斗	
6		古 里 畓	8升落	6斗	
7		道 西 畓	1 斗 落	8斗	
8		同 員 畓	1 斗 落	8斗	
9		同 員 畓	1斗 4升落	12斗	
10		下道西畓	6升落	4斗	
11		勿 次 畓	8升落	4斗	
12		漢 上 畓	5 斗 落	3石 1斗	
13		同 員 畓	2 斗 落	1石 1斗	
14		同 員 畓	7升落	7斗	
15		改 西 畓	1斗 2升落	6斗	
16		紅 月 畓	2 斗 落	1石 1斗	
17		三 峯 畓	7升落	6斗	
18		實 贊 畓	1斗 5升落	10斗	
19		山 底 畓	1 斗 落	8斗	
20		湫 巖 畓	1斗 2升落	12斗	
21		下 坪 畓	2 斗 落	1石 9斗	
22		泉 谷 畓	2 斗 落	1石 3斗	
23		甘 納 畓	4斗 4升落	2石 10斗	
24		偃 下 畓	2 斗 落	1石 1斗	
25		前 島 畓	4 斗 落	3石 1斗	
26		孝 街 畓	2 斗 落	1石 5斗	
27		德 沙 畓	1斗 5升落	1石 1斗	
28		下道西畓	1斗 5升落	14斗	
29		甘 納 畓	1斗 5升落	1石 4斗	
30		山 底 畓	1 斗 落	11斗	

順位	區分	田 畓 名	數 量	收 入 量	備 考
31		陽 村 畓	1斗 5升落	1石 1斗	
32		堰 堂 畓	1 斗 落	10斗	
33		紅 月 畓	1斗 5升落	10斗	
34		楮 底 畓	1斗 5升落	12斗	
35		注 汭 畓	1斗 5升落	1石	
36		金 山 畓	2斗 2升落	1石 5斗	
37		飛 鳩 畓	5升落	12斗	
38		古 里 畓	1 斗 落	9斗	
39		香 山 畓	3斗 7升落	2石	
40		分 春 畓	2 斗 落	8斗	
41		桂 分 畓	1斗 5升落	10斗	
42		上島西畓	1斗 2升落	14斗	
43		平 陵 畓	2 斗 落	2石	
44		龜 尾 畓	5 斗 落	4斗	

1	下 島 田	5 斗 落	8斗	
2	桐 淮 田	10 斗 落	1石	
3	所古里田	16 斗 落	3石	
4	相 換 田	15 斗 落	2石 8斗	
5	院 址 田	7 斗 落	4斗	
6	同 員 田	2 斗 落	1斗	

이상에서 용사서원의 學規를 비롯하여 生徒와 運營을 살펴 보았고 첩폐 후의 재정처리도 살펴 보았다. 조선시대 서원의 설치목적이나 奉祀・敎育・生徒・運營 등이 대동소이 하였던 것이므로 이상의 용산서원으로서 칠봉서원의 내용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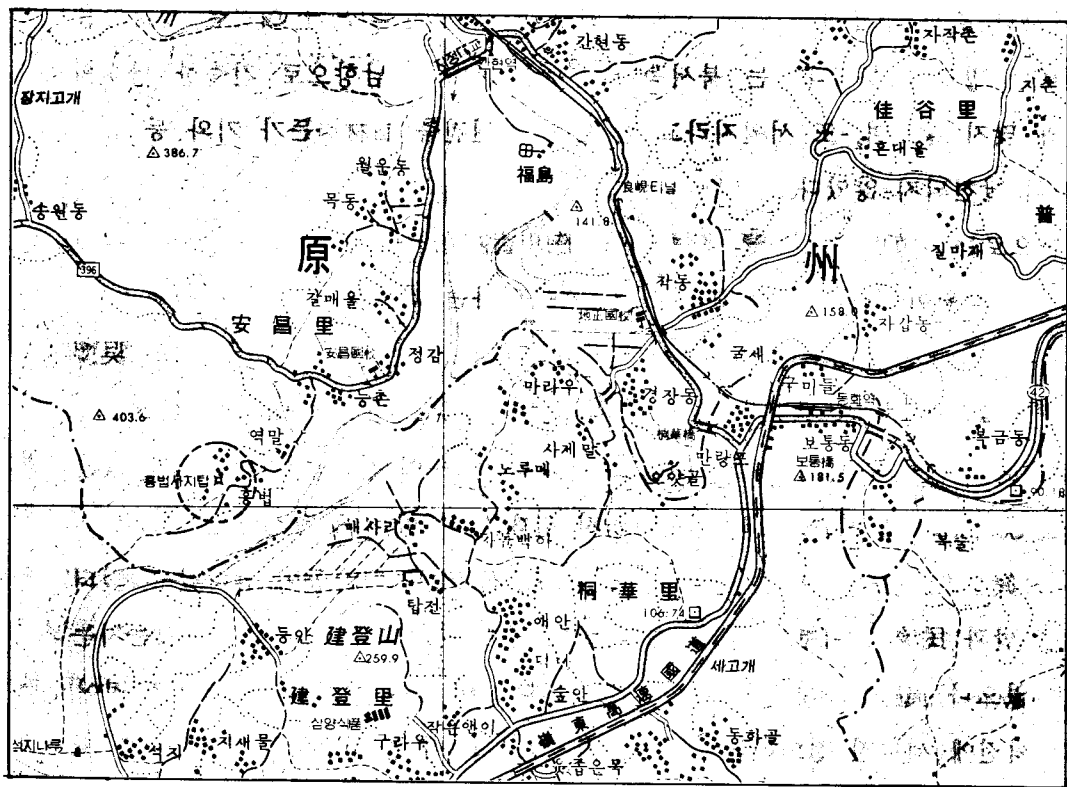
4. 陶川書院

도천서원은 1693년(숙종 19년) 건립하고 觀雪 許厚를 봉안하였다. 도천서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서원의 規模나 敎育, 財産, 學規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앞의 칠봉서원 항목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松潭書院이나 龍山書院 등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천서원의 위치와 환경, 그리고 서원지 실태조사 및 配享 인물인 觀雪 許厚에 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1) 位置와 環境

도천서원지는 原州郡 地正面 安昌里에 위치한다. 도천서원도 칠봉서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서원의 위치처럼 「背山臨水」 지형을 택하여 섬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원주시로부터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여주 방향으로 가다가 간현리 쪽으로 조금 가면 섬강을 가로지르는 지정대교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 약 3km 정도 가다 延興府院君 金梯男의 祠堂이 있는 곳에서 섬강쪽으로 접어들어 섬강을 왼쪽에 두고 가다보면 흥법사지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도천서원이 세워졌던 곳이다.

도천서원은 후면으로 해발 403m의 산이 있고, 前面으로는 섬강이 가로 놓여 있다. 이곳은 칠봉서원과는 달리 앞쪽이 탁 트여 있어 섬강 건너로 매사리 마을이 바라다 보이며, 정면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해발 259m의 建登山이 보인다. 이곳에 이르는 길은 396번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도로 뿐이며 전후와 우측은 모두 산이나 물로 막혀있다. 원주쪽의 42번 국도에서 연결되어 오는 396번 지방도는 양평군과 여주군으로 이어진다. 도천서원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陶川書院址 實態調査

도천서원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693年(肅宗 19年) 설립하고 觀雪許厚를 봉안하였다. 도천서원에 대한 기록은 『輿地圖書』에 「在官門西三十五里掌令觀雪許厚單享 肅廟癸酉賜額」라고 되어 있으며, 『原州郡邑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도천서원은 규모나 기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위치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신빙할 만한 기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천서원의 위치를 기록한 단편적인 기록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본 조사단은 단편적 기록과 口傳을 바탕으로 도천서원의 위치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먼저 文幕面 建登里에 도천서원이 있었다고 하는 口傳에 따라 이 지역

을 답사한 결과 건등산 기슭에 서원을 세울 만한 곳은 있으나 이곳은 섬강쪽을 바라보는 방향이 북쪽내지는 북서쪽이기 때문에 주로 남향으로 건축한 당대의 통례와 맞지 않으며, 또 서원지라고 할 만한 서원건축 石材라든가 기와 등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朝鮮襄興勝覽』院祠條에 「陶川書院在地正面茂長里觀雪許厚」라고 하여 도천서원이 “茂長里”(현재는 好楮面)에 있다는 기록에 따라 무장리를 답사하였으나 역시 서원지라고 인정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단은 吳慶錫의 『三韓金石錄』에 「興法寺 寺久廢其址今爲陶川書院」라고 하여 興法寺址가 있는 地正面 安昌里를 답사하였다. 靈鳳山 아래에 있는 이 절터는 안창리 505, 506, 506-1, 508, 517-2, 517-5, 518, 519-1번지 일대(塔이 있는 곳은 517-2번지)로 현재는 眞空大師塔碑龜趺 및 螭首와 三層石塔, 石造物, 瓦片 등이 남아있고, 절터 전체는 밭과 民家를 이루고 있다. 이 사찰이 언제 창건되어 언제 廢寺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眞空大師塔碑를 세운 해가 高麗 太祖 23年(AD 940年)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세워진 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며, 이 흥법사지에 도천서원을 세운 시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693년인데 오경석의 『三韓金石錄』에서 「寺久廢」라고 한 것처럼 이미 廢寺의 연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는 것이므로 흥법사는 도천서원이 건립되는 시기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에 廢寺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石材 및 瓦片이 다량 발견되나 그것이 흥법사의 것인지 도천서원 건축에 쓰여진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현재의 506번지 일대를 “서운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書院垜”가 訛傳되어 불리어진 것이 확실하며, 이는 흥법사지가 바로 도천서원이 세워졌던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앞서 위치와 환경에서도 말했지만 전방으로 섬강이 바라다 보이고 뒷쪽은 산으로 둘러져 있어 서원을 건립하기에 알맞는 지형이기도 하다.

3) 配享人物 觀雪 許厚

(1) 觀雪 許厚의 世系

陽川 許氏의 시조는 駕洛國 金首露王妃의 30세손으로 전하는 許宣文이다. 『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는 孔巖村(경기도 김포군 양천)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많은 양곡을 비축하였는데 고려 태조 王建이 후백제 甄萱을 칠 때 부족한 군량을 공급하여 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 후 태조는 허선문의 공을 가상히 여겨 孔巖을 食邑으로 하사하였다고 하며 이로 말미암아 본관을 陽川으로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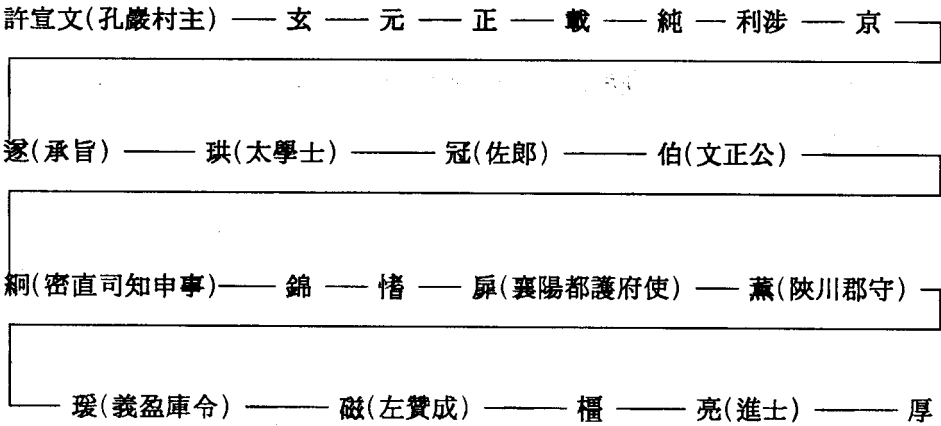
양천 허씨의 대표적인 인물은 宣文의 손자인 元이 고려 穆宗 때 科擧에 급제하여 內史舍人・知制誥・太子司議 등을 지냈으며, 증손인 正은 禮部尙書를 지낸 후 太子太保에 이르렀고, 正의 아들 載는 兵馬使를 지냈다. 또 그의 후손 珙은 高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1284년(충렬왕 10) 修國史를 겸하여 元傳 등과 『古今錄』을 찬술하고 僉議中贊에 올랐다.

또한 관설의 11대조인 伯은 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綱은 密直司知申事를 지내는 등 그의 직계 조상들이 대부분 관직에 나갔으나 특별히 고관에 오른 이는 없었다. 그러나 傍系로 특이할 만한 사람은 조선시대에 와서 載寧郡守를 지낸 蓀의 아들로 우의정에 오른 琮과 좌의정을 지낸 琛 형제를 지적할 만하다. 琮은 세조 3년(1457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文武를 겸비한 인물로 세조 13년(1467년) 吉州의 豪族 李施愛가 지방세력을 배경으로 北道의 수령을 南道의 인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북도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琮은 同知中樞府事로 威吉道節度兵馬使가 되어 亂의 평정에 공을 세워 敵愾功臣으로 책록되었으며 陽川君으로 봉해졌고, 또 도적 張永奇의 亂을 진압하는데도 공헌하여 병조판서를 지냈다. 동생인 琛은 성종 6년(1475년) 謁聖文科에 급제하였고, 후에 이조판서・우참찬・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청빈한 생활로 청백리에 錄選되기도 하였다.

관설의 증조부인 磁는 중종 18년(1523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에 이르렀으나 金安老에게 물려나 楊根郡守를 거쳐 黃州牧使가 되었으며, 그 후 공조판서·좌찬성 등을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尹元衡과 결탁하여 乙巳士禍를 일으킨 이기를 탄핵하다 도리어 李無疆 등으로부터 죄인 閔齊仁의 아우 閔齊英을 비호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함경남도 洪原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또 관설의 祖父 강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널리 詩書를 읽었으나 부친이 홍원으로 유배되어 죽자 벼슬에 대한 뜻을 버리고 40여년 동안 방랑하다가 임진왜란 때에 兎山에서 사망하였다.

관설 선생의 부친인 亮은 일찌기 進士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나 관설을 낳은 이듬해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관설의 가계를 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觀雪의 家系



(2) 觀雪 許厚의 生涯

149

관설은 선조 21년(1588년) 서울에서 進士 亮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본래 초명은 說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厚로 고쳤다. 자는 重卿, 호는 관설·돈계, 또는 逸休

라고 하였다. 양천현감 喬는 그의 叔父이며, 眉叟 許穆에게는 4寸兄이 된다.(현재 대부분의 각종 辭典에는 관설이 양천현감 喬의 아들이며, 許穆의 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설은 부친을 일찍 여의고 숙부인 喬의 보호아래 성장하였다.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인 1602년경 叔父宅에 金暹이라는 사람이 손님으로 와 있었는데 관설이 年少하면서도 배움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옛사람들의 修身之道를 가르치니 관설은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고 한다. 김섬이 죽은 후 모친의 숙부인 權用中에게서 四書を 배웠고, 23세가 되는 1610년에는 暮隱 장언침에게서 주역을 배웠으며, 그의 從弟 穆과 함께 星州로 寒岡 鄭述를 찾아가서 배운 바도 있다.

관설은 광해군 대에 亂世를 피하여 原州로 내려와 있다가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이항복의 천거로 內侍敎官이 되었으며,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원주의 士大夫들이 의병을 모으고 관설을 대장으로 추대하였으나 관설은 四寒 金昌一에게 양보하며 이르기를 “金公은 어른이시며, 또 名望이 중한 분이니 비록 연로하셨으나 장수는 그 분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며 관설은 從事가 되어 四寒을 도왔다. 胡亂이 종식된 후 濟用監直長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그해 10월에 李仁居가 橫城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었는데 관설이 전에 그를 만난 일이 있음으로써 이 獄事에 연좌되어 구속되었으나 곧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석방되었다. 그 후 1630년 다시 內侍敎官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에 사도시주부를 거쳐 砥平縣監이 되었는데 민폐를 끼친 內奴를 엄중히 다스려 폐단을 일소하였으나 奴婢를 濫殺하였다고 하여 투옥되었다. 그러나 현민들의 호소로 옥에서 풀려나 원주의 雉岳山 돈계에 素庵이라는 정자를 짓고 기거하였다.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李顯英·柳汝格이 관설을 찾아와 군사를 일으켜 오랑캐를 토벌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에 관설은 이들과 함께 원주로 내려와 일을 도모하던 중 인조가 城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해산하였다. 이듬해 太廟令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그 후 의성현령에 취임하여 4년간을 다스렸고 관직을 그만두고는 그곳의 昌樂에 寓居하였다.

1643년 다시 東宮翊衛로 관직에 나갔으며, 후에 형조좌랑·호조좌랑·호조정랑

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 후 恩山縣監을 거쳐 형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原州의 관설(현재 관설동)로 내려와 기거하였다. 이후 司僕寺僉正을 비롯하여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1654년(효종 5년) 선공감첨정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지평·장령을 거쳐 1658년 淮陽都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59년 효종의 장례를 당하여 장악원정이 되었으며, 이때 慈懿大妃(仁祖繼妃)의 복상문제로 예론이 일어나자 西人의 基年說(1年喪)에 반대하여 그의 從弟 穆 등과 함께 3년상을 주장하였다.

글씨에 능하였는데 특히 篆書에 뛰어났다고 하며, 肅宗 19년(1693년) 士林의 奏請으로 原州에 陶川書院(현재의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을 건립하고 배향하였다. 저서로는 그의 제자 李命蓍와 從弟인 許穆이 유문을 모아 1679년(숙종 5) 간행한 『돈계유고』가 있다.

(3) 觀雪 許厚의 思想

조선시대를 통하여 어진 선비상을 실천한 사람을 헤아린다면 관설 허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비록 관직에 있어서는 榮達하지 못했고, 또 자신이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 볼 때 묵묵히 識者의 도리를 힘써 행한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설은 從弟인 許穆과 마찬가지로 퇴계학파를 이은 寒岡 鄭述의 학맥에 속하며, 寒岡이 벼슬보다는 학문을 좋아하였던 것처럼 관설도 세속적인 名利보다는 자기수련과 知의 실천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설은 知行의 일치를 중시하여 배움을 좋아한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 禮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政事를 행함에 있어서는 公·明·愼을 지표로 삼았으며, 또 忠義를 중시하여 국가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서슴없이 의거하여 구국의 대열에 섰던 것이다.

관설의 부친은 관설이 태어난 이듬해에 사망하여 관설은 숙부인 喬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의 숙부를 섬기는데 있어서 친아버지처럼 대하여 朝夕으로 모시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빛이 있었으며, 혹 病席에 눕게 되면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그의 숙부가 늘 칭찬하기를

“아무가 나에게 朝夕으로 잘하는구나. 젊은 나이로 禮를 좋아하되 게을리 하지 않으며,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보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스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남들이 능하지 못한 것에 능하니 남보다 진실로 뛰어난 행실이다”(허목, 미수기언).

라고 하였다.

또한 일찌기 숙부댁에 손님으로 와 있던 金暹이라는 선비를 잠시 스승으로 모신 바 있는데 그가 죽자 心喪 3년을 하였다. 또 母親의 장례를 치르는데 喪輿가 漣川에 이르러 날씨가 몹시 추워 江이 얼어 붙어서 행렬이 움직일 수 없자 강가에 초빈하고 그 곁에서 상복을 벗지않고 한줌의 쌀로 죽을 끓여 마시며 살았다고 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혹 일찌기 弔喪하지 못한 이가 와서 弔喪을 하면 절하기를 초상사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관설이 평소 진심에서 나오는 禮의 실천에 힘썼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遺稿를 보더라도 그가 禮說에 대단히 밝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설은 일찌기 砥平・義城・恩山의 수령을 지냈는데 항상 法을 엄격히 시행하고, 지방의 豪族이 良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였다. 특히 恩山縣監으로 부임하여서는 公・明・愼 세가지를 기본 방침으로 삼아 다스렸는데 항상 이르기를 “반드시 승을 내리면 行해지고, 禁하면 그쳐진 뒤에야 정치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관설은 남다른 豫知가 있었다. 선생이 젊었을 때에 僧伽寺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당시는 金自點이 寒微할 때로 그도 또한 山水를 찾아 유람하다가 僧伽寺에 와서 자못 관설에게 정성을 다하여 마지 않았으나 관설이 도무지 기쁘게 여기지 않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길한 사람이 아니다. 후일에 반드시 화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하며, 그후에는 李仁居라는 사람이 있어 橫城 산골에 숨어 살면서 손수 농사를 지어 살았는데 인조가 반정을 성공한 후에

그를 불러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오지 않으니 사대부들이 그를 추종하는 자가 많았고, 관설도 그를 한번 찾아가 보고 나서 이르기를 “저 사람은 길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가 후에 逆賊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묘호란시에는 그의 스승인 寒岡이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켰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소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는데, 胡亂이 끝난 후 국가에서 모든 의병들에게 賞을 내리고 관설에게도 濟用監直長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관설이 진실로 참된 충의심에서 의병에 참여하였던 것을 이에서 볼 수 있으며,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거사를 도모하였던 것을 볼 때 한 나라의 백성, 또 識者로서의 道理를 실천하려 하였던 그의 의지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찌기 관설이 영남을 유람하며 여러 선비들과 만나 학문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토의하였는데 관설은 서슴없이 “해진 옷을 입고 굶은 음식을 먹으면서 남들과 더불어 거처하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였는데 나는 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허목, 미수기언) 라고 하여 학문을 하되 옛사람들의 어진 행적을 말로만 칭찬하고 암송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역설하였다.

또한 관설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한결같이 正道와 理致의 근본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허목과 더불어 「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미수선생이 “진실로 利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삼지않으면 거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자 관설이 답하기를 “그것은 끝(末)이다 書經에 이르기를 ‘곧으면 깨끗하게 된다’ 하였으니 일이 곧게 처리되면 깨끗한 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근본을 놓아두고 끝을 따라가려 하니 명예를 위하는데 가깝지 않은가 ?” 라고 하였던 것이다(허목, 미수기언). 따라서 관설선생은 아랫사람을 부리되 세밀한 것으로 밝음을 삼지 않았고, 일에 임해서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의리를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大典」대로 따랐다고 하는 바, 孝宗이 승하한 후 趙大妃의 服喪問題가 제기되었을 때 西人들의 暮年說에 반대하여 三年說을 주장하였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설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볼 때 禮節의 실천과 더불어 自守, 즉

자기 분수와 양심을 지키는 것을 생활의 지표로 삼아 항상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 분이였다.

그의 시문집인 『돈계유고』는 1679년 그의 제자 李命蓍와 종제인 穆에 의하여 유문 을 모아 간행되었는데 모두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이 遺稿는 卷1 答問 19 편, 答問附 9편, 卷2는 疏 3편, 書 20편, 祭文 4편, 詩 25수, 卷 3은 부록으로 行狀・墓誌銘・言行附錄・跋文으로 되어 있다. 觀雪 許厚의 年譜를 보면 다음의 < 표 15> 와 같다.

<표 15> 觀雪 許厚年譜

年 度	行 蹟
1588년 (선조 21)	○進士 亮의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
1589년	○2月 父親이 27세로 死亡
1602년	○金暹에게 학문을 배움
1610년	○暮隱 張彦忱에게서 周易을 배움
1613년	○李英彦과 더불어 李鰲壽에게서 受學함
1617년	○從弟인 穆과 더불어 星州로 寒岡 鄭逮를 찾아가 배움
1623년 (인조 1)	○李恒福의 천거로 內侍敎官이 됨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의병장 金昌一을 도와 공을 세웠고, 난이 끝난 뒤 濟用監 直長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음 ○10月 橫城의 李仁居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었는데 전에 그를 만난 일이 있으므로써 연좌되어 구속되었으나 곧 풀려남.
1630년	○다시 內侍敎官에 임명됨
1631년	○사도시 주부를 거쳐 지평현감이 되었는데, 內奴가 민폐를 끼친 바 있어 이들을 엄벌로 다스려 폐단을 일소하였다. 그러나 濫殺한 罪로 투옥되었다가 縣民들의 호소로 풀려나 原州 雉岳山 시냇가에 素庵이라는 정자를 짓고 기거함.
1636년	○胡亂이 일어나자 李顯英・柳汝格이 觀雪을 찾아와 의병을 일으킬 것을 의논하자 이들과 함께 原州로 내려와 거사를 도모하던 중 인조가 이미 城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해산함.
1637년	○太廟令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후에 義城縣令에 취임하

年 度	行 廣
	여 4년간 다스림.
1640년	○慶北 義城의 昌樂으로 가서 寓居함.
1643년	○東宮翊衛에 임명되어 世子の 北行을 전송함.
1645년	○刑曹佐郎에 제수됨.
1646년	○戶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음.
1647년	○戶曹正郎에 제수됨.
1648년	○恩山縣監에 취임하여 公·明·愼을 기준으로 다스림.
1651년	○형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原州의 觀雪(현재의 관설동)로 내려와 기거함. ○司僕寺僉正과 太廟令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음.
1654년 (효종 5)	○繕工監 僉正에 제수됨. ○병조정랑에 임명되었다가 곧 사헌부 지평에 特拜되었으나 疏를 올려 사직함.
1658년	○通禮院 相禮와 淮陽都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다시 장령에 임명되었으나 當路者가 시기하여 파직시킴. ○겨울에 安東大都護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음.
1659년	○尙衣院正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5月 孝宗이 승하하자 掌樂院正이 되었으며, 이때 慈懿大妃의 服喪問題로 禮訟이 일어나자 西人의 暮年說(1년상)에 반대하여 3년상을 주장하였다.
1661년 (현종 2)	○73세를 일기로 사거함

5. 맺 는 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原州郡 好楮面 山峴里에 위치하였던 七峰書院은 1612년(光海君 4) 書堂을 설치하고 아동을 교육하다가 12년 후인 1624년(仁祖 2)에 祠廟를 건립하여 耘谷先生(元天錫)의 神位를 奉安하고 七峰書院이라

하였다. 이로써 七峰書院은 尊崇하는 先賢을 奉安하고 祭享하면서 아동을 교육하는 書院으로서 原州地方의 精神的 支柱요 教育의 殿堂이 되었고, 그후 八溪先生(鄭宗榮)과 久菴先生(韓百謙), 觀瀾先生(元昊)을 봉안하고 1663년(顯宗 4) 國家로부터 額書와 함께 田畓・奴婢・書冊을 下賜받은 賜額書院이 되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七峰書院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構造・任員・祭享・教育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松潭書院이나 일반서원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것은 조선시대 서원은 구조・임원・제향・교육 등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書院의 일반적인 構造를 보면 先賢의 位牌를 모시고 春秋로 祭享儀式을 하는 祠堂, 兒童을 교육하는 講堂, 아동이 기거하는 東齋・西齋, 書冊을 보관하는 書庫, 祭享時에 필요한 祭需를 마련하고 器物을 보관하는 典祀廳, 祭享區域의 正門인 內三門, 書院의 정문인 外三門, 院生の 휴식공간인 樓閣, 書院의 管理와 식사준비를 위한 校直舍가 있었다.

또한 任員은 院務를 총괄하는 院長, 院長을 보좌하는 院貳長, 教育을 담당하고 생활을 지도하는 講長과 訓長, 大小事를 관할하는 都有司, 都有司를 보좌하는 副有司, 齋內를 총괄하는 齋長, 院內의 士氣를 장려하는 執綱, 儒會時 사무를 집행하는 直月, 直月을 보좌하는 直日, 院中의 大小事의 評議를 담당한 掌議가 있었다.

祭享은 春秋로 1년에 2회씩 丁日을 택하여 시행하였으며 모든 節次는 笏記에 의하여 시행하되 獻官과 諸執事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獻官에는 初獻官・亞獻官・終獻官이 있으며 諸執事에는 祝文을 읽는 祝, 祭享을 진행하는 贊者, 獻官을 인도하는 謁者, 모든 參拜者를 인도하는 贊引, 祭酒를 담당하는 司尊, 香을 담당하는 奉香, 香爐를 담당하는 奉爐, 술잔을 담당하는 奉爵, 술잔을 神位前에 드리는 尊爵 등이 있다. 祭官으로 선임된 사람들에게는 望帖(명단)을 보내어 피임되었음을 알린다. 현관은 대체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데 초현관은 일반적으로 그 지방의 지방관으로 정하며 그 외는 儒林 중에서 정하는데 諸執事들은 유림이나 원생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이에 配享된 인물은 耘谷(元天錫), 八溪(鄭宗榮), 久菴(韓百謙), 觀瀾(元昊) 4명

이다. 耘谷은 高麗의 進士로서 朝鮮王朝 建國에 반대하고 高麗王朝에 충절을 바친 節義之士요, 수많은 詩文과 글을 남긴 學者였고, 八溪와 久菴은 훌륭한 학자이면서 中央과 地方의 중요 관직을 지낸 師表가 될만한 분이었으며, 觀瀾은 世祖가 조카인 端宗을 내몰고 왕위에 오른 것에 항거하며 不事二君의 忠節을 지킨 生六臣의 한분이었다.

敎育은 講長이나 訓長이 담당하며 倫理的 目的으로 道德的 敎養人의 養成과 現實的 目的으로 官吏養成을 敎育의 目表로 하였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聖賢・君子の 양성과 科擧準備에 있었으므로 敎育내용은 經學과 詞章이 중심이 되었으니 구체적인 敎育內容은 小學을 비롯하여 四書・五經, 그리고 心經・近思錄 등 性理學이 중심이었다.

入學生은 東海市(三陟)의 龍山書院과 같이 신분의 고하나 연령의 장유를 불문하고 인품이 단정한 자로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입학할 수 있었으며 그 수는 대체로 2~30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침구를 정돈하고 세수한 다음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서 정신통일을 한 후에 공부를 시작하였고 저녁까지 부지런히 공부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 취침하도록 하였다. 生徒들은 學問 뿐만 아니라 生活의 지도도 철저히 하였으니 글을 읽지 않을 때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항상 九容・九思를 생각하며 言語와 行動이 禮儀凡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陶川書院은 配享人物이 許厚 1人이었고 설치연대도 七峰書院보다 후이였으므로 그 구조나 祭享・敎育 등의 규모가 다소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같은 賜額書院이었다는 점에서 그 규모나 임원・제향・敎育・생도 등 모든 내용이 대동소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江原道地方에 설치되었던 15개 書院 중 江陵에서 五峰書院과 松潭書院, 東海市에서 龍山書院, 襄陽에서 東溟書院을 復元하고 그 지방의 地方官을 비롯하여 儒林과 모든 지방민들이 모여 年 1회 祭享하면서 鄉校와 함께 정신적인 支柱로 삼으며 傳統文化를 계승하고 있다. 1395년 부터 1895년 까지 500년간 江原道觀察府가 있어 江原의 傳統의 都市요, 文化의 都市였던 原州地方에 書院을 復元하여 原州地方의 精神的인 支柱로 삼는 동시에 500年 江原首都의 傳統文化를 계승하